

전라감영과 전북 '와유' 臥遊

이종근 편저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3

전라감영과 전북 ‘와유(臥游)’

이 종 근 편저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전북 최초 와유(臥遊) 발간 의미

예나 지금이나 산수화와 유람기에는 ‘와유(臥遊)’라는 제목을 쓴 것이 적지 않다.

처음 이를 접한 사람들은 ‘누워서 노닐다’는 뜻을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에는 그럴만한 함축적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라는 기행문을 쓴 바 있다.

1199년 전주목(全州牧)의 사록겸(司錄兼) 장서기(掌書記)로 온 그는 전주 등 전북 곳곳을 여행하며 접한 특이한 견문거리를 시와 산문으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노년이 되면 젊어서 견문한 기록을 펼쳐보고 그 답답함을 풀겠노라고 했다.

조선 중기 이후 산수 유람의 기회와 기록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김종직의 ‘유두류록’, 고경명의 ‘유서석록’, 홍백창의 ‘동유기실’은 하나의 산을 유람한 기록이 단행본으로 편집돼 널리 읽혔고, 홍인우의 ‘관동일록’, 성해응의 ‘동국명산기’ 등은 여러 산의 유래와 명승에 관한 인문 지리서 성격까지 지니게 됐다.

‘내 발자취가 미친 모든 곳의 높낮이를 차례로 매겨본다면 두류산이 우리나라 제일의 산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인간 세상의 영화를 다 마다하고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직 이 두류산만이 은거하기에 좋을 것이다. 이제 돈과 곡식과 갑옷과 무기와 같은 세상 것들에 대해 깊이 알아 가는 것은 머리 허연 이 서생이 다룰 바는 아니리라’

유몽인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은 그가 관직을 사임하고 남원의 수령으로 내려가 있던 1611년 봄 두류산을 유람하고서 쓴 기행문이다.

이는 지리산을 말하며, 두류산의 의미는 ‘백두대간[頭]이 흘러왔다[流]’라는 의미이다. 유몽인은 두류산 곳곳의 경물을 눈에 보듯 실감나게 묘사했으며, 천왕봉에 올랐을 때는 그곳 매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동정하기도 하여 치자로서 백성의 고통을 느껴 보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

임훈은 1552년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峰記)’을 남겼으며, 김창협이 ‘동유기’를 보면

‘덕유산 멀리로, 진안의 중대산, 금구의 내장산, 부안의 변산, 전주의 어이산, 임피의 오성산, 함열의 함열산, 용담의 주출산(운장산)이 그 서쪽을 둘러고, 용담의 기산은 주출산 안에 있다. 고산의 대둔산은 북쪽에 비껴있다’

고 했다.

심광세 ‘유변산록(遊邊山錄)’이 변산 유산록으로는 최초의 기록라고 한다.

부안현감으로 부임(1607년)한 지 넉 달 만인 5월에 바쁜 일정 중 시간을 내어 변산을 유람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가 그랬다는 두루마리 화첩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강흔의 ‘부안 격포행궁기’와 ‘하설루기’는 아직 한문 번역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한다.

전라감영을 찾은 프크와 카르네프, 이하곤 등이 있어 제목에 이를 달았다.

총 4부로 각 부마다 시대는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지역은 전주로부터 시작해 익산, 남원, 고창, 부안 등을 둘러본다.

옛 사람의 글을 통해 갈 수 없는 아름다운 땅뿐만 아니라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사라져버린 산과 물까지 함께 즐겨 보는 건 어떠한가? ‘와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현대에도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북을 소재로 한 ‘와유(臥遊)’ 책자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두가 전북으로 오라. 지금부터 이종근이 여러분들을 ‘와유(臥遊)’의 세계로 초대한다.

2024년 8월

이 종 근

차례

들어가는 말 • 3

제1부 | ‘의관 문물의 고장’ 전주 • 9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 10

서거정의 ‘패향십영(沛鄉十詠)’ • 26

구봉령의 ‘빈일헌십영차운(賓日軒十詠次韻)’ • 32

조수삼의 ‘전주8경’ • 38

민주현의 ‘완산가’ • 46

제2부 | 강후진, 7층의 미륵사지 석탑을 보다 • 51

양대박, 1586년 지리산을 유람하다 • 52

강후진, 1738년 미륵사지 석탑을 보다 • 55

강흔의 ‘부안 격포행궁기’와 ‘하설루기’ • 61

강세황의 ‘격포유람기’와 ‘유우금암기’ • 68

마쓰다 고조, 1888년 5월 전북 곳곳 방문 • 73

야나기 무네토시, 전북의 특산품에 반하다 • 83

제3부 | 외국인들이 찾은 전라감영 • 91

-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峰記)’ • 92
- 이하곤이 1722년에 본 전라감영과 경기전 • 100
-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전라감영을 방문하다 • 107
- 러시아 카르네프 등이 1896년 전북을 찾다 • 113
- ‘심춘순례’와 전북 • 117

제4부 | 신선도 부럽지 않는 변산과 지리산 • 125

- 심광세의 ‘유변산록(遊邊山錄)’ • 126
- 유몽인, 1611년 지리산을 찾다 • 133
- 조위한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 141
- 김서경의 ‘송사상유변산서(宋士祥遊邊山序)’ • 156
-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 162

참고문헌 • 165

제 1 부

‘의관 문물의 고장’
전주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고려의 문인 백운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기엔 원효(元曉, 617~689)가 살던 방을 답사한 기행문이 보인다.

‘일행 예닐곱과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 후들 떨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트랙의 계단과 문이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항간에 전하기를 사포성인(蛇包聖人)이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가 따라와 모시었는데, 차를 달여 원효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물이 바위틈에서 갑자기 솟아 나왔다. 맛이 매우 달아 젖과 같으므로 늘 이 물로 차를 달였다고 한다. 원효방은 겨우 여덟 자쯤으로, 한 노승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삿살개 눈썹과 다 헤어진 누비옷에 모습이 고고(高古)하였다. 방의 중앙을 막아 내실(內室)과 외실(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과 원효의 초상이 있고, 외실에는 병(瓶) 하나와 신 한 켤레, 찻잔[茶盞]과 경궤(經機)만이 있을 뿐, 취구(炊具)도 없고 시자(侍者)도 없었다’

이규보의 이 기행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원효가 사용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잔에 대하여 재질이 ‘자(瓷)’임을 밝히고 있다. ‘자(瓷)’는 넓은 의미로 질그릇, 즉 토기·도기·자기 전체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자기만을 지칭한다. 더욱이 그 자신이 다자를 사용한 일이 있다.

이규보는 남원의 운봉에 살고 있던 노규선사(老珪禪師)가 조아다(早芽茶)를 얻어서 그에게 보이면서 ‘유차(儒茶)’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시를 청했을 때, 지어 주었다. 그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선사는 어디에서 이 좋은 차 구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를 찌른다고. 피어나는 풍로에 스스로 달여 꽃무늬 찻잔에 따르니, 색과 맛 뛰어나오. 입에 닿자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린 아이 젖 냄새 같다고.(중략) 공에게 맛있는 봄 술을 빚어놓고 권하오니 차들고 술 마시며 여생을 보내면서 오며가며 풍류놀이를 시작하여 보세 어찌 급히 절하지 않겠는가’

이로써 이규보는 자신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과 동일 재질의 잔을 원효방에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재질이었다면 달리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원효의 생존 시기(617~689)에 도자기 잔이 사용되었느냐가 의문의 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신라에서 도자기가 제조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도자기가 제조되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신라시대에 도자기(청자)가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이 된 남원 보련산 자락의 만학동 계곡에는 고려 시대 이래의 야생차 군락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차나무의 수령 등을 보면 조선시대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남원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권13에 실린, 앞서 말한 ‘유차’ 시에서 극찬한 지리산 운봉에 사는 노규 선사의 조아차(早芽茶)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금의 야생차의 근원이 고려시대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특히 이 시는 이규보의 다인으로서의 높은 경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다시(茶詩)로 백미(白眉)로 전해지고 있다.

명나라 장군 양호가 선조대왕에게 품질이 탁월하다고 한 차가 남원에서 생산됐다. 남원의 차에 대해서는 조선전기에 간행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대령이 가져온 차씨가 지리산에 심어졌고 남원도 지리산 자락이라는 점 등등의 근거로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실 차의 본향으로 하동과 보성이 알려진 것에 비하면 남원 차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기록으로 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 양호가 선조에게 남원 차를 진상하면서 차 산업의 활성화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 불교의 쇠퇴와 함께 남원의 차 문화도 단절되어 버렸다. 남원 차의 전통을 살리는 일을 적극 추진하면 어떨까.

이규보의 ‘유차(儒茶)’ 전문

인간이 온갖 맛을 일찍이 맛봄이 귀중하니
 하늘은 사람을 위하여 절후를 바꾸네
 봄에 자라고 가을에 성숙함이 당연한 이치이니
 이에 어긋나면 기이한 일이건만
 근래의 습속이 이 기이함을 즐기니
 하늘도 인정의 즐거움을 따르는구나
 시냇가의 차잎을 이른 봄에 싹트게 하니
 황금 같은 노란 움 눈속에 자라났네
 남쪽 사람은 맹수도 두렵지 않아
 험난함을 무릅쓰고 칠닝쿨 휘어잡고
 간신히 채취하여 불에 말려 단차 만드니
 남보다 앞서 임금님께 드리려 하네
 선사는 어디에서 이처럼 귀한 것을 얻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에 가득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에 손수 차를 달여
 꽃무늬 자기에 따라 그윽한 색을 자랑하누나

입에 닿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워
 마치 어린아이의 젖 내음과 같구나
 부귀한 가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선사 어찌 이를 얻었는가 알 수 없네
 남쪽의 아이들 선사의 처소를 알지 못하니
 찾아가 맛보고 싶은들 어이 이를 수 있는가
 아마도 깊은 구중궁궐에서
 높은 선사 예우하여 예물로 보냈음이라
 차마 마시지 못하고 아끼고 간직하였다가
 임금님의 그 봉물을 신하를 시켜 보내왔다네
 세상살이를 모르는 쓸모없는 이 나그네가
 더구나 좋은 혜산천의 물까지 감상하였네
 평생의 불우함을 만년에 탄식했는데
 일품을 감상하기는 오직 이뿐일세
 귀중한 유차를 마시고 어이 사례가 없겠는가

‘배꽃(梨花)’은 4월 중하순에서 5월 초순에 작고 하얀 꽃이 나무 가득
 히 핀다. 화신풀 중 해당화, 목련과 함께 춘분 절기의 두 번째 꽃이다.

이규보는 ‘옥야현 객사 현판의학사 채보문 ‘이화시’에 차운하다(沃野
 縣客舍 次韻板上蔡學士 寶文 梨花詩)’를 썼다.

‘처음엔 가지 위에 눈이 붙어 빛나나 의심했는데 맑은 향기를 독차지하니 무릇
 꽃인 줄 알리라. 한매를 다시 만나니 옥 같은 얼굴 깨끗하고 짙은 살구나무 아름
 다운 반침 뽐내는 그를 비웃네. 푸른 나무를 뚫고 날아오니 보기가 수월하고 떨
 어져 버려 흰모래에 섞이니 알기가 어렵구나. 아름다운 사람 흰 팔뚝의 비단 소
 매를 열고서 희미한 웃음을 머금고 정이 많음을 원망하네’

이는 '동국이상국집' 10권에 실렸다. 이는 고려 시대 문인 이규보가 당시 전주부에 속했던 옥야현 객사에서 지은 작품이다.

전주부 옥야현(沃野縣)은 전주의 서북 70리에 위치한다. 본래 백제의 소력지현(所力只縣)이었는데 신라 때 옥야현으로 고치어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전주에 예속시켰다. 명종(明宗) 6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뒤에 다시 예속시켰다. 군창(軍倉)이 있다.

배꽃은 꽃술에도 붉은빛이 없는 새하얀 꽃으로 한시에서도 유독 그 새하얀 풍경이 자주 묘사되었다. 작은 꽃들이 나무 가득 한꺼번에 핀 모습은 흡사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다. 위 작품에서 시인은 겨울 매화의 차가운 고결함과 농익은 살구꽃의 화려함 사이에 있는 여인의 하얀 살결 같은 배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그것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아리따운 여인의 소매 걷은 흰 팔의 이미지였다. 드러내 놓고 유혹하지도 그렇다고 매몰차게 거절하지도 않는, 보일 듯 말듯 은근한 아름다움을 지닌 배꽃이야말로 어쩌면 조선의 여인을 가장 잘 표현한 꽃일 것이다.

1199년 전주목(全州牧)의 사록겸(司錄兼) 장서기(掌書記)로 온 그는 전주 등 전북 곳곳을 여행하며 접한 특이한 견문거리를 시와 산문으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노년이 되면 젊어서 견문한 기록을 펼쳐보고 그 답답함을 풀겠노라고 했다. 전주목(全州牧)에서 근무하고 떠날 때 시문 외에 전북 기행문인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를 남겼다.

지난 2009년 6월 22일, 이규보(李奎報)의 휴허비가 부안군 위도면 망월봉 입구 등산로 출발점에 설립됐다.

전 남주학회 이사장 김석성씨가 각종 언론에 내 고장 부안의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며 비문을 지어 위도면에 제안, 위도면장과 주민들이 논의한 결과 고려시대의 시호로 불릴 만큼 뛰어난 명문장가로서 그 공적을 길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됐다.

이규보(李奎報)는 1199년 전주목(全州牧) 사록(司錄) 겸 장서기(掌書記)로 부임했으며, 그 후 변산 별목감독관으로 부안을 오가면서 ‘변산 노상’ 등 많은 글을 남겼다. 1199년부터 2년 동안 전주막부 등 전북 곳곳을 방문한 가운데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란 산문을 지었다.

1199년 11월 지석(支石), 즉 고인돌을 보고 쓴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우리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인돌 기록이다. ‘지석’은 고인돌의 한자 표기다. 이규보는 또 이렇게 말했다.

‘변산은 나라 재목의 보고이다. 소를 가릴 만한 큰 나무와 찌를듯한 나무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할 때도 변산의 나무들로 전함을 만들었다’

그는 전주에 대해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하며 백성의 성품이 질박하지 않고 선비는 행동이 신중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처음 전주로 들어오면서 말 위에서

‘북당에서 눈물 흘리며 어버이를 작별하니/ 어머니를 모시고 관직나간 고인처럼 부끄러운데/ 문득 완산의 푸른 빛 한 점을 보니/ 비로소 타향객인 줄 알겠네’라 읊은 7언절구가 전해온다. 그리고 전주 효자동을 지나다가 그 곳에 있는 무명의 효자비로 인해 효자리가 되었다는 5언고을시 ‘비석 세워 효자라 표했는데 / 일찍이 이름을 새기지도 않았네/ 어느 때 누구인지 알 수도 없으니/ 어떠한 효행인지 모르겠네’

라 읊기도 했다.

그는

‘전주는 완산(完山)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옛날 백제의 땅이다. 인구가 많고 집들이 즐비하여 옛 나라의 풍(風)이 있는 까닭에 그 백성들이 치박(稚朴)하지 않으며 아전들이 다 점잖은 사인과 같아서 행동거지가 자상함이 불만하다. 중자산이란 산이 있는데 나무가 가장 울창하여 이 고을에서 크고 웅장한 산이다. 소위 완산이란 산은 다만 나지막한 봉우리일 뿐, 한 고을이 이로써 이름을 얻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고 했다.

예컨대, 마령, 진안, 운제, 고산, 예양, 낭산, 금마, 이성 등을 두루 둘러보며 그 지방의 산천과 인심, 음식, 풍물 등을 유려한 기행수필로 엮어내었다. 그는 1200년 8월에 울금바위와 그 옆의 깎아지른 바위동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효방(元曉房)을 답사했던 기록이 나온다. 백제가 망한 후에 신라의 원효는 백제 부흥군들이 끝까지 저항하던 근거지였던 변산까지 왔던 것 같고, 변산의 요지인 울금바위 옆의 동굴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수도했던 것 같다.

‘경신년(1200, 신종 3) 계동(季冬) 서울에 들어와 한가히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꺼내 보았더니 너무 소략해서 읽을 수가 없었으니, 자신이 기록한 것인데도 도리어 우습기만 하였다. 그래서 다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읽을 만한 것을 모아서 우선 차례로 적어보겠다’

고 언급한 그.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를 답사코스로 지정해, 전라도 정도 천년 행사로 선보일 수는 없는 것인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전문

내가 일찍이 사방을 두루 다녀 무릇 나의 말발굽이 닿는 곳에 만일 이문(異聞)이나 이견(異見)이 있으면, 곧 시(詩)로써 거두고 문(文)으로써 채집하여 후일에 볼 것을 만들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무엇인가?

가령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굽어서 거처하는 곳이 방안에 불과하고, 보는 것이 자리 사이에 불과하게 될 때, 내가 손수 모은 것을 가져다가 옛날 젊은 날에 분주히 뛰어다니며 유상(遊賞)하던 자취를 보면, 지난 일이 또렷이 바로 어제 일 같아서 족히 울적한 회포를 풀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나의 시집 가운데 강남시(江南詩) 약간 수(首)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시들을 읽으면, 당시 노닐던 일이 역력히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다.

그 뒤 5년 후에 전주막부(全州幕府)로 나가 2년 동안에 무릇 유력(遊歷)한 바가 자못 많았다. 그러나 매양 강산(江山)·풍월(風月)을 만나 휘파람이 겨우 입에서 나올 듯하면 부서(簿書)와 옥송(獄訟)이 번갈아 시끄럽게 침노하여 겨우 1연(聯) 1구(句)를 얻고 그마저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으므로 전편을 얻은 것은 불과 60여 수뿐이었다.

그러나 열군(列郡)의 풍토(風土)와 산천의 형승(形勝)으로 기록할 만한 것이 있으되, 창졸간에 그것을 능히 가영(歌詠)에다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간략하게 단전(短牋)·편간(片簡)에 써서 일록(日錄)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방언(方言)과 속어(俗語)를 섞어 썼다.

경신년(1200, 신종 3) 계동(季冬) 서울에 들어와 한가히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꺼내 보았더니 너무 소략해서 읽을 수가 없었으니, 자신이 기록한 것인데도 도리어 우습기만 하였다. 그래서 다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읽을 만한 것을 모아서 우선 차례로 적어보겠다.

전주(全州)는 완산(完山)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백제국(百濟國)이다.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볼 만하였다.

중자산(中子山)이란 산이 가장 울창하니, 그 고을에서는 제일 큰 진산(鎭山)이었다. 소위 완산(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주 소재지에서 1천 보(步)쯤 떨어진 지점에 경복사(景福寺)가 있고 그 절에는 비래방장(飛來方丈)이 있다. 이것을 내가 예전부터 들었으나 사무에 바빠서 한 번 찾아보지 못하였다가 하루는 휴가를 이용하여 결국 가보았다.

이른바 ‘비래방장’이란 것은 옛날 보덕대사(普德大士)가 반룡산(盤龍山 함흥(咸興)에 있다)으로부터 날려서 옮겨온 당(堂)이다. 보덕(普德)의 자(字)는 지법(智法)인데, 일찍이 고구려 반룡산 연복사(延福寺)에 거처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고구려가 도교(道敎)만을 존숭하고 불법(佛法)을 숭상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피난을 해야 하겠는데 어느 곳이 좋을까?”

하자, 제자 명덕(明德)이 말하기를,

“전주에 있는 고달산(高達山)이 바로 편안히 머무를 만한 땅입니다”

하였다. 건봉(乾封) 2년(667, 보장왕 26) 정묘 3월 3일에 제자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 당(堂)이 이미 고달산으로 옮겨갔는데, 반룡산에서 1천여 리의 거리였다. 명덕이 말하기를,

“이 산이 비록 기절(奇絶)하기는 하나 샘물이 없다. 내가 만일 스승이 옮겨올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옛 산에 있는 샘물까지 옮겨왔을 것이다”

하였다. 최치원(崔致遠)이 전(傳)을 지어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한다.

11월 기사일(己巳日)에 비로소 속군(屬郡)들을 두루 다녀 보았더니, 마령(馬靈)·진안(鎭安)은 산곡간(山谷間)의 옛 고을이라, 그 백성들이 질박하고 미개하여 얼굴은 원숭이와 같고, 배반(杯盤)이나 음식에는 오랑캐의 풍속이 있으며, 꾸짖거나 나무라면 형상이 마치 놀란 사슴과 같아서 달아날 것만 같았다.

산을 따라 감돌아 가서 운제(雲梯)에 이르렀다. 운제에서 고산(高山)에 이르기까지는 높은 봉우리와 고개가 만길이나 솟고 길이 매우 좁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고산은 다른 군에 비하여 질이 낮지 않았다. 고산에서 예양(禮陽)으로, 예양에서 낭산(朗山)으로 갔는데, 모두 하룻밤씩 자고 갔다.

다음날 금마군(金馬郡)으로 향하려 할 때 이른바 ‘지석(支石 고인돌)’이란 것을 구경하였다. 지석이란 것은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 성인(聖人)이 고여놓은 것이라 하는데, 과연 기적(奇迹)으로서 이상한 것이 있었다.

다음날 이성(伊城)에 들어가니, 민호(民戶)가 조잔(凋殘)하고 이락(籬落)이 소조(蕭條)하여 객관(客館)도 초가(草家)요, 아전이라고 와 뵈는 자는 4~5인에 불과하였으니, 보기에 측은하고 서글펐다.

12월에 조칙(朝勅)을 받들어 변산(邊山)에서 벌목(伐木)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변산이란 곳은 우리나라의 재목창(材木倉)이다. 궁실(宮室)을 수리 영건하느라 해마다 재목을 베어내지만 아름다리 나무와 치솟은 나무는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벌목하는 일을 항시 감독하므로 나를 ‘작목사(斫木使)’라고 부른다. 나는 노상에서 장난삼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군사 거느리고 권세부리니 그 영화 자랑할 만한데 / 權在擁軍榮可詆
벼슬 이름 작목사라 하니 수치스럽기 그지없네 / 官呼斫木辱堪知
이는 나의 맡은 일이 담부(擔夫)·초자(樵者)의 일과 같기 때문이다.

정월 임진일(壬辰日)에 처음 변산에 들어가니, 층층한 봉우리와 겹겹
한 뗏부리가 솟았다 엮혔다 구부렸다 폈다 하여, 그 머리나 꼬리의 놓인
곳과 뒤축과 팔죽지의 끝난 곳이 도대체 몇 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옆에 큰 바다가 굽어보이고 바다 가운데는 군산도(群山島)·위도(狷
島)·구도(鳩島)가 있는데, 모두 조석으로 이를 수가 있었다. 해인(海人)
들이 말하기를,

“순풍을 만나 쏜살같이 가면 중국을 가기가 또한 멀지 않다”고 한다.
산중에는 밤[栗]이 많은데 이 고장 사람들이 해마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
지한다.

얼마쯤 가노라니, 수백 보 가량 아름다운 대나무가 마치 삼대처럼 서
있는데, 모두 울타리로 막아놓았다. 대숲을 가로질러 곧장 내려가서 비
로소 평탄한 길을 만났다. 그 길로 가서 한 고을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바로 보안(保安)이란 곳이었다.

밀물이 들어올 때는 평탄한 길이라도 순식간에 바다가 되므로 조수
의 진퇴를 보아서 다니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 내가 처음 갈 때에는 조
수가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선 곳에서 오히려 50보 정도의 거리는 있었
다. 그래서 급히 채찍질하여 말을 달려서 먼저 가려고 하였더니, 종자
(從者)가 깜짝 놀라며 급히 말린다. 내가 듣지 않고 그냥 달렸더니, 이윽
고 조수가 쿵쾅 하고 휘몰아 들어오는데, 그 형세가 사뭇 만군(萬軍)이
배도(倍道)로 달려오는 듯하여 매우 겁이 났다. 내가 냇을 잃고 급히 달
려 산으로 올라가서 겨우 화는 면하였으나, 조수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말의 배에 넘실거린다. 푸른 물결, 파란 뗏부리가 숨었다 나타났다 하

고, 음청(陰晴)·혼조(昏朝)에 경상(景狀)이 각기 다르며, 구름과 노을이 붉으락푸르락 그 위에 등실 떠 있어, 아스라이 만첩(萬疊)의 화병(畫屏)을 두른 듯하였다. 눈을 들어 그 경치를 바라볼 때 시를 잘하는 두세 명과 더불어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함께 읊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그러나 만경(萬景)이 넓을 건드리매 정서(情緒)가 스스로 뒤흔들려서 시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시가 저절로 지어졌다. 일찍이 주사포(主史浦)를 지날 때 밝은 달이 고개에 올라 해변의 모래벌판을 휘영청 비추어서 기분이 상쾌하기에 고삐를 놓고 천천히 가며 앞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침음(沈吟)하였더니 마부가 이상히 여겼는데, 그러는 중에 시 한 수를 지었다…….

윤 12월 정미에 또 조정의 영을 받아 여러 고을의 원옥(冤獄)을 감찰하게 되어 먼저 진례현(進禮縣 금산(錦山))으로 향하였다. 산이 매우 높고 들어갈수록 점점 깊숙하여 마치 다른 나라의 별경을 밟는 듯하여, 마음이 울적하고 무료하였다. 낮이 지나서야 비로소 군사(郡舍)에 들어가니, 현령(縣令)과 수리(首吏)가 모두 부재중이었다. 밤 2경(更) 무렵에 현령과 수리가 각기 8천 보 밖에서 헐떡거리면서 달려왔다. 그들은 문기둥에 말을 매어놓고 여물을 주지 못하게 경계하였다. 무릇 매우 달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는 척하면서 들었다. 그 두 사람이 이 노부(老夫)를 돌보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알고서는 부득이 술자리를 허락하였다. 한 기생이 비파(琵琶)를 타는데, 꽤 들을 만하였다. 내가 다른 고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다가 여기에 와서 유쾌히 마시고 또 현악(絃樂)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은 아마 머나먼 길을 달려왔으므로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온 기분으로 사물을 보고 쉽게 감동되어 그런 것이리라.

진례현에서 떠나 남원부(南原府)에 이르렀다. 남원은 옛날의 대방국

(帶方國)이다. 객관(客館) 뒤에 죽루(竹樓)가 있는데, 한적하여 사랑스럽기에 하룻밤을 자고 떠났다.

경신년 춘3월에 또 바다를 따라 배를 조사할 때 수촌(水村)·사호(沙戶)·어등(漁燈)·염시(鹽市)를 유열(遊閱)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만경(萬頃)·임피(臨陂)·옥구(沃溝)에 들러 며칠을 묵고 떠나 장사(長沙)로 향하였다. 길가에 한 바위가 있고 바위에 미륵상(彌勒像)이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를 쪼아 만든 것이었다. 그 미륵상에서 몇 보 떨어진 지점에 또 속이 텅 빈 큰 바위가 있었다. 그 안을 경유하여 들어갔더니, 땅이 점차 넓어지고 위가 갑자기 환하게 트이며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불상이 준엄하게 빛났는데 그것이 바로 도솔사(兜率寺)였다. 날이 저물기에 말을 채찍질해 달려서 선운사(禪雲寺)에 들어가 잤다.

다음날 장사에 들렀다 장사에서 떠나 무송(茂松)에 이르렀는데, 모두 잔폐(殘弊)한 작은 고을인지라,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다만 바다를 따라 배를 조사하고 척수를 계산했을 뿐이다.

평소에 샘 하나 못 하나를 만나면 움켜마시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하여 그지없이 애완(愛翫)하였던 것은, 강해(江海)를 그리워하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바다와 함께 노닐 지 오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물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역시 물이 고함치는 소리이므로 싫증이 날 지경이다.

왜 하느님은 마치 배고픈 자를 갑자기 배불리 먹여서 도리어 맛있는 음식을 물리치게 하는 것처럼 이같이 실컷 먹이는가?

이해 8월 20일은 내 선군(先君)의 기일(忌日)이었다. 하루 앞서 변산소래사(蘇來寺)에 갔는데, 벽 위에 고(故) 자현거사(資玄居士)의 시가 있으므로 나도 2수를 화답하여 벽에 썼다.

다음날 부령 현령(扶寧縣令) 이군(李君) 및 다른 손님 6~7인과 더불어

어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떨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정계(庭階)와 창호(窓戶)가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듣건대, 이따금 범과 표범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속어에 이른바 ‘사포성인(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다. 원효(元曉)가 와서 살자 사포(蛇包)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효공(曉公)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 원효방은 겨우 8척쯤 되는데, 한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삼살개 눈썹과 다 헤어진 누비옷에 도모(道貌)가 고고(高古)하였다. 방 한가운대를 막아 내실(內室)과 외실(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佛像)과 원효의 진용(眞容)이 있고, 외실에는 병(瓶) 하나, 신한 쥔레, 찻잔과 경계(經机)만이 있을 뿐, 취구(炊具)도 없고 시자(侍者)도 없었다. 그는 다만 소래사에 가서 하루 한 차례의 재(齋)에 참여할 뿐이라 한다. 나의 배리(陪吏)가 슬그머니 나에게 말하기를,

“이 대사는 일찍이 전주에 우거했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힘을 믿고 횡포하매, 사람들이 모두 성가시게 여기더니 그 뒤 간 곳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 바로 그 대사이옵니다”

하였다. 내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저 중품·하품의 사람은 그 기국이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악(惡)으로써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자는 그 기국이 보통 사람과 다르므로 한번 선(善)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이처럼 초월하는 것이다. 옛날에 사냥하던 장수가 우두 이조대사(牛頭二祖大士)를 만나 허물을 고치고 선을 닦아 마침내 숙덕(宿德)을 이루었고, 해동(海東)의 명덕대사(明德大士)도 매사냥을 하다가 보덕성사(普德聖師)의 고제(高弟)가 되었으

니, 이런 유로 미루어본다면, 이 대사가 마음을 고쳐 개연(介然)히 특이한 행실을 닦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였다.

또 이른바 ‘불사의 발장(不思議方丈)’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 구경하였는데, 그 높고 험함이 효공의 방장의 만 배였고 높이 1백 척쯤 되는 나무 사다리가 곧게 절벽에 걸쳐 있었다. 3면이 모두 위험한 골짜기라, 몸을 돌려 계단을 하나씩 딛고 내려와야만 방장에 이를 수가 있다. 한번만 헛디디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는 평소에 높이 한 길에 불과한 누대(樓臺)를 오를 때도 두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아찔하여 굽어볼 수 없던 터인데, 이에 이르러는 더욱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 들어가기도 전에 머리가 벌써 빙 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 승적(勝跡)을 익히 들어오다가 이제 다행히 일부러 오게 되었는데, 만일 그 방장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 진표대사(眞表大士)의 상(像)을 뵈지 못한다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어정 어정 기어 내려가는데, 발은 사다리 계단에 있으면서도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들어가서 부싯돌을 쳐서 불을 만들어 향(香)을 피우고 율사(律師)의 진용(眞容)에 예배하였다. 율사는 이름이 진표(眞表)이며 벽골군(碧骨郡) 대정촌(大井村) 사람이다. 그는 12살 때 현계산(賢戒山) 불사의암(不思議巖)에 와서 거처하였는데 현계산이 바로 이 산이다. 그는 명심(冥心)하고 가만히 앉아 자씨(慈氏 미륵보살)와 지장(地藏 지장보살)을 보고자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이에 몸을 구렁에 던지니, 두 명의 청의동자(靑衣童子)가 손으로 받으면서 말하기를,

“대사의 법력(法力)이 약한 때문에 두 성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력하여 삼칠일(三七日)에 이르니, 바위 앞 나무 위에 자씨와 지장이 현신(現身)하여 계(戒)를 주고, 자씨는 친히 《점찰

경(占察經)》2권을 주고 아울러 1백 99생(姓)을 주어 도왕(導往 중생을 인도해 감)의 도구로 삼게 하였다. 그 방장은 쇠줄로 바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바다 용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돌아오려 할 때 현재(縣宰)가 한 산꼭대기에 술자리를 베풀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망해대(望海臺)입니다. 제가 공(公)을 위로하고자 먼저 사람을 시켜서 자리를 베풀고 기다리게 했으니, 잠깐 쉬십시오”

하였다. 내가 드디어 올라가서 바라보니, 큰 바다가 둘러 있는데, 산에서 거리가 겨우 백여 보쯤 되었다. 한 잔 술, 한 구 시를 읊을 때마다 온갖 경치가 제 스스로 아양을 부려 도무지 인간 세상의 한 점 속된 생각이 없어 표연히 속골(俗骨)을 벗고 날개를 붙여 육합(六合) 밖으로 날아가는 듯, 머리를 들어 한 번 바라보니 장차 못 신선을 손짓하여 부를 듯하였다. 동석한 10여 인이 다 취하였는데, 내 선군의 기일(忌日)이므로 관현(管絃)과 가취(歌吹)만이 없을 뿐이었다.

무릇 내가 지난 곳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적지 않았다. 대저 경사(京師)를 몸으로 보고 사방(四方)을 지체(支體)로 보면, 내가 노닌 곳은 남도의 한쪽, 한 지체 중에도 한 손가락일 뿐이다. 하물며 이 기록은 다 잊고 빠뜨린 나머지인데 어찌 후일의 볼 만한 것이 되랴? 우선 이것을 간직하여, 뒤에 동서남북을 모조리 노닐며 온통 기록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하여 1통(通)을 만들어서 늘그막에 소일할 자료를 삼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는가?

신유년 3월 일에 쓴다.

서거정의 ‘패향십영(沛鄉十詠)’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조선 초에 전주부의 승경을 노래한 것이 ‘패향십영(沛鄉十詠)’이다.

경기전(慶基殿)

手提金尺靖東韓 손수 금척을 쥐고 동한을 평정하셨기에
闕殿眞容爲奉安 깊고 그윽한 신전에 진용을 봉안하였네
好是龍興根本地 훌륭하다 예가 바로 용흥의 근거지이니
千秋蕉荔謹黃丹 노란 파초 붉은 여지를 천추에 올리리다

견훤도(甄萱都)

猾賊當時事險微 교활한 적은 당시에 음험을 일삼았는데
蕭牆奇禍不堪譏 뜻밖의 집안 재앙은 가소롭기 그지없네
可憐四十年間業 가련도 하여라 사십 년 동안 벌인 사업이
城郭依稀鶴語非 성곽마저 희미해 학의 말대로는 아니로세

만경대(萬景臺)

臺高千仞倚青空 천 길이나 높은 대가 창공에 솟아 있어
俛仰乾坤萬里通 위아래 천지 사이에 만 리가 탁 트였네
莫說甄郎興廢事 견훤의 흥망에 관한 일을 말하지 마소
靑山默默鳥飛中 청산은 말이 없고 새만 높이 나는구나

기린봉(麒麟峯)

山河磅礴瑞輪囷 산하의 층만한 기세에 상서가 우뚝해라
仙李盤根弈葉春 선리가 뿌리를 내려 대대로 봄이로다
豐鎬由來形勢異 풍호는 예로부터 형세가 유독 달랐거니
請君來此看麒麟 그대는 이곳에 와서 기린봉을 보게나

봉황암(鳳凰巖)

甄家兩顆不才兒 견훤의 집 두어 자식은 못나기 그지없어
梟獍爲心豚犬姿 효경 같은 심술에 돈견 같은 자질이었네
當日鳳凰去何處 그 당시엔 봉황이 어느 곳으로 갔던고
如今覽德自來儀 지금은 덕을 보고 스스로 내려왔는걸

건지산(乾止山)

虎擲龍疲一雲空 용과 범의 싸움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江山依舊雨昏濛 강산은 예전대로 비만 자욱이 내리누나
傷心莫問濟羅事 상심되거니 백제 신라의 일은 묻지 마소
多少峯巒露碧葱 하 많은 산봉우리만 우뚝우뚝 푸르구려

덕진연(德津淵)

以德名津語不空 덕으로 이름 지은 그 말이 헛되지 않았도다
澤民曾有濟時功 백성에게 은택입혀 세상 구제한 공이 있네
誰知泓臥龍行□ 그 누가 알리오 깊은 못에 용이 누워서
十雨時能又五風 때로 능히 십우와 오풍을 행사하는지

공북정(拱北亭)

北望神州稽首欽 북으로 대궐 향해 경건히 머리 조아릴 제
華山高聳碧抽簪 우뚝 솟은 화산은 흙사 벽옥잠 같아라
南州冠蓋多於織 남쪽 고을 관리들은 유독 많기도 한데
戀闕思君只此心 대궐과 임금 사모하는 그 마음뿐이었네

제남정(濟南亭)

濟南佳麗惱人多 제남정 화려한 경치는 펍 사람 들뜨게 하여
憶昔萋騰盡醉過 내 옛날 잔뜩 취해서 곤드레가 된 적 있네
爲問今時老□□ 묻노라 지금은 --- (이하 원문 누락)
□□□□□□□

쾌심정(快心亭)

畫棟朱簷對碧岑 단청 화려한 정자가 푸른 산 마주했는데
竹林蒼翠轉深深 푸른 대나무 숲 돌아서 깊숙이 들어가네
何時賢尹一樽酒 어느 때나 어진 부윤과 술자리를 열어서
快盡平生未快心 평소 울적한 마음을 유쾌히 다 풀어볼꼬

서거정은 한상 이봉(李封)이 보내준 시에 차운하여 전주의 풍경으로
열 가지(패향십영)를 노래하였다.

성화(成化) 계묘년(1483)에 이봉은 전주부윤으로서 전주부 객관 동
북쪽에 매월정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봉과 서거정은 자주 시문을 주고
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 위의 시는 서거정이 당시 전주 부윤이던 이

봉에게 보낸 것이다.

서거정은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발상지라는 의미에서 전주를 ‘패향(沛鄉) 또는 풍패지향(豐沛之鄉)’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 패군(沛郡) 풍읍(豐邑)이었던 데에서 전하여 제왕(帝王)의 발상지(發祥地)임을 가리킨다.

서거정이 꿈은 전주의 열 가지 경치는 경기전(慶基殿), 견훤도(甄萱都), 만경대(萬景臺),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건지산(乾止山), 덕진연(德津淵), 공북정(拱北亭), 제남정(濟南亭), 쾌심정(快心亭)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의 전주 8경과 겹치는 것은 ‘기린봉(麒麟峯), 덕진연(德津淵), 건지산(乾止山)’ 정도이다.

서거정이 노래한 공북정, 제남정, 쾌심정 등은 후대에 이르러 누정이 사라지면서 8경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잘 다스려진 세상을 근심하고 명철한 군주를 위태롭게 여기다(憂治世而危明主)’

중국 송나라 때 문인 소동파가 한 말이다. 근심할 만한 위기가 없으면 안일하고 게을러져 고식적으로 되기 쉬움을 경계한 것이다. 조선 초기 제도와 문물이 완성되고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든 시기 소동파의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서거정이다.

서거정의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또는 정정정(亭亭亭)이며 본관은 달성(達成)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배경과 타고난 재능으로 1444년(세종 26년) 스물다섯 살 되던 해 문과 급제했다. 사재감 직장으로 벼슬을 시작한 이래 성종까지 여섯 왕을 섬기고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일생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는 영화로운 삶을 살다 간 서거정. 사회 최상층 위치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고민했는지 ‘사가집’ 속에서

진정한 지도층 인사의 면모를 찾아보자.

다음은 ‘사가집’ 제1권에 수록된 ‘침류조’(枕流操)라는 시의 일부다.

나는 베개가 없노라
대신 흐르는 물을 베고 눕지
머리도 감고 갓끈도 씻노라
씻고 또 씻어 가을별에 말리지
혼탁한 세상 이미 멀리했으니
이 한 몸 깨끗이 하여 내 생애 마치리라

너무나 풍족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 부유할수록 오만함과 나태함이 스며들고 뻔뻔함이 파고들어 후회 가득한 삶으로 마감하기 일쑤다. 서거정은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 자제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뛰어난 재능까지 지니고 태어나 일찍부터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위 시에서처럼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갈고닦았다.

이러한 다짐은 ‘사가집’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철장조’(鐵腸操)라는 시에서는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동경했는가 하면 ‘패위조’(佩韋操)라는 시에서는 부드러운 가죽을 통해 강경하고 급박한 자신의 성격을 반성하며 고치고자 노력했다.

서거정은 48세 대제학이 된 이래 23년간이나 일국의 문예를 이끌었다. 국가의 정책과 사명뿐만 아니라 제도, 언어, 문학, 역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은 서적을 주도적으로 편찬해 나갔다. ‘동문선’(東文選)은 이 가운데 하나다. ‘사가문집’ 제4권에 실려 있는 ‘동문선서’ 일부를 보자.

‘우리나라는 역대 성왕이 서로 계승하여 덕을 함양한 지가 100년이다. 훌륭한 인재가 그 사이에 나서 성대하고 순수한 자질로 문장을 지으니, 역동적이고 뛰

어난 문장 또한 옛날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 이 동문선은 우리 동방의 문장이 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문장도 아니고 송나라와 원나라의 문장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문장이다. 역대의 문장과 함께 나란히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사라지게 놔두어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남아 있는 서문만도 거의 80편에 이른다. 서거정은 이런 글을 통해 우리 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천명하고, 자기 시대에서 시운과 문운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당대에 완성된 제도와 문물을 후대에 길이 전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깊이 자각한 것이리라.

구봉령의 ‘빈일헌십영차운(賓日軒十詠次韻)’

서거정 다음으로 전주8경을 노래한 이는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은 1568년에 전라도에 나가 재상(災傷)을 안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1583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했다.

‘빈일헌십영차운(賓日軒十詠次韻)’은 이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이다. ‘빈일(賓日)’은 부산 동래 왜관에 있던 건물로, 일본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구봉령은 ‘빈일헌십영’에 차운하였다고 밝혔지만, 10편의 시를 다 짓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전주팔경’에 맞추어 건지산(乾止山), 견훤도(甄萱都), 경기전(慶基殿), 공북정(拱北亭),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제남정(濟南亭), 쾌심정(快心亭) 등 여덟 곳을 차운했다.

一戎神烈靖東韓 갑옷을 입고서 매섭게 동한을 안정시키니
百戰山河永安安 수백 번 싸움터는 길이 평안하게 되었네
繡戶雕梁瞻仰處 수놓은 문 조각 들보를 우러러 바라보니
孤臣白髮血心丹 고신은 백발이 되어도 붉은 마음뿐
右慶基殿(경기전)

濟羅分界竝衰微 백제 신라 싸우던 경계도 사라지고
奸孽圖王況足譏 얼자가 왕을 바라는 말할 가치도 없네
畢竟人心歸有德 사람 마음은 끝내는 덕 있는 곳으로 가니
當年雲物已全非 당년에 풍정이 이미 바루어 졌다네
右甄萱都(견훤도)

溪上晶熒碧玉岑 푸른 옥 같은 봉우리는 시냇가에 빛나고
 白虹搖影透蒼林 햇빛 비치는 숲에는 흰 무지개 일렁이네
 落紅來處尋無路 길도 없이 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니
 一曲瑤琴寫客心 가야금 한곡조가 객의 시름 그려내네
 右快心亭(쾌심정)

龍飛鳳舞逗層空 허공중에 용과 봉이 날고
 桃李芳園紫靄濛 복숭아 배꽃 핀 동산에 자색 안개 어리네
 却愛春陵佳氣在 문득 용릉에 아름다운 기운이 있음을 사랑하니
 上林何獨賦青蔥 상림에서 어찌 유독 푸르름을 노래하리오
 右乾止山(건지산)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남원의 황산벌에서 왜장 아지발도(阿只拔都)를 토벌하고 전주로 입성했던 이성계의 옛 고사를 인용하였다.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던 아지발도를 활로 쏘아서 죽이고 왜구를 토벌하였기 때문에 동한(東韓)은 평안하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 그러한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을 바라보는 화자는 곧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움이 온 몸에 가득하다. 두 번째 노래한 ‘견훤도’는 곧 완주(지금의 전주)를 말한다. 완주는 곧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곳이다.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은 왕이 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열자였다. 승구와 결구에서는 유덕자(有德者)에게로 민심이 귀의하듯, 민심이 덕이 있는 이태조에게 기울어짐으로써 완주의 풍정이 바르게 되었음을 말했다.

세 번째는 ‘쾌심정(快心亭)’을 노래했다. 쾌심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제남정(濟南亭)으로부터 4리 떨어져 있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산이 끊어지고 물이 돌아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돌을

쌓아 터를 만들고, 그 위를 정자를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자가 사라지면서 전주팔경에서도 사라졌다.

‘건지산’은 전주의 주산(主山)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용릉(春陵)은 후한 광무제의 고향인 남양(南陽)의 지명이다. 또한 주돈이의 고향이기도 하다. 용릉은 곧 패향(佩香)의 다른 말이고, 이는 곧 전주를 의미한다. 상림은 궁중의 동산을 말한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李翰)의 묘소를 조성한 조경단(肇慶壇)이 위치한 곳이다. 절구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찌 짙은 녹음 같은 산의 풍경만을 읊을 수 있겠는가?하는 반어의 언술을 취함으로써, 건지산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공북정(拱北亭),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제남정(濟南亭) 등을 더 노래했다.¹

용두정(龍頭亭) 명소가 있는 낙동강변에
오리는 노을과 가지런히 날고 물빛은 하늘과 같구나
속세의 나그네 천리 밖 고향 꿈에 시름하는데
강에는 맑은 바람 밝은 달과 고기 낚는 배로 가득하네

龍頭名勝洛江邊
飛鷺齊霞水共天
塵土客愁千里夢
滿江風月釣魚船

1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拱北亭：螭陛丁寧一字欽。拜來天日照冠簪。傾陽豈敢斯須替。晨夜茂葵寸寸心。
麒麟峯：蔥瓏秀氣碧輪囷。漏洩坤靈萬古春。須識興王曾有象。前峯晴翠踣祥麟
鳳凰巖：人物寧論大小兒。穹巖山面峙雄姿。自從聖澤淪遐邇。彩羽和風日作儀
濟南亭：地靈人傑濟南多。文彩聲華軼古過。老杜詩名留秀句。風流千載較如何

구봉령의 ‘용두정’ 시다. 용두정은 예천에 있다.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의 한시이다. 그는 조선전기 경북 안동 출신의 문신으로 1545년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했고 1548년 스승 퇴계 선생이 단양군수 시절 단양을 방문하였다. 도담삼봉은 신선이 피리소리 들으며 노닐기 좋은 경승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도담(島潭)’도 그의 시이다.

가운데 우뚝하고 양쪽이 낮게 차례대로 놓였는데
봉우리 위엔 풀과 나무 또한 자라지 못하네
신선 있었다면 응당 이곳에 노닐며
달 아래서 피리 소리 들으려 했겠지

中峻雙低次第成
峯頭草木亦難生
神仙若在應遊此
月下要聽笙鳳聲

‘庚’과 ‘眞’ 운(韻)의 칠언절구(七言絕句) 2수(首)로 이루어진 ‘도담(島潭)’이다. 구봉령은 도담삼봉(島潭三峰)을 보고서, 세 봉우리가 물결 위에 솟아있는 모습이, 삼신산(三神山) 곧 봉래산과 영주산 다음 가는 산(山)일 거라고 칭송한다. 그리곤 하늘 위로 곧추 서있는 정신이 참으로 고고하니, 괜히 붓을 휘둘러 그 정신을 더럽힐까 저어된다고 읊었다.

도담(島潭)

구봉령

인간 세상에 다시없는 천연의 비경이니
 세 줄기 옥순이 물결 속에 솟았네
 품평하는데 어찌 말이 필요하겠나
 다만 소봉영이라 부르면 되리
 씻은 듯이 반짝반짝 푸른 물결 위에 솟아
 하늘 위로 곧추 서있으니 정신이 드높네
 붓 휘둘러 번거롭게 더럽히지 말지니
 지은 시가 또 하나 티끌 될까 두렵네

人間未有此天成
 三筍波心擢玉莖
 題品那堪費言語
 只須呼作小蓬瀛
 灑濯晶熒出碧粼
 凌空骨立最精神
 莫將吟筆煩相浼
 却恐詩成亦一塵

‘세 줄기 옥순이 솟았네’는 단양팔경 중 제1경인 도담삼봉(島潭三峰)의 세 봉우리가 물결 위에 솟아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소봉영(小蓬瀛)’의 봉영은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의 병칭으로,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전하는 삼신산(三神山)을 가리킨다. 곧 봉래산과 영주산 다음 가는 산이라는 뜻이다.

주요 관직들로는 예문관의 검열, 홍문관의 정자, 호조 좌랑, 병조 좌랑, 수찬, 예조 좌랑, 이조의 정랑, 교리, 직제학, 부제학,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사간원, 사헌부, 성균관으로 통칭 되는 삼사(三司)의 수장인

대사헌, 대사성, 대사간을 두루 역임했다.

관직의 품계가 오르면서 이조참의,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만년에는 동지중추부사, 이조참판, 동지경연사, 예문관 제학 등의 관직을 거치며, 61세로 별세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공의 일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전 대사헌 구봉령이 졸했다. 자는 경서(景瑞)이고, 호는 백담(栢潭)이다. 안동(安東)에 살면서 이황을 사사(師事)하였는데 이황은 그를 문학과 덕행이 있다 칭찬하여 매우 중히 여겼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상례를 잘 거행했고, 지극한 효성으로 조모를 섬겼으며, 임금과 스승의 상을 당하여서도 모두 예절을 따라 소식(素食)했다. 성품이 충후(忠厚)하고 순근(純謹)하여 모나거나 기이한 것을 일삼지 않았고 문필(文筆)을 구비했다. 젊어서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으므로 삼대(三代)의 인물이요, 양한(兩漢)의 문장이라는 칭송을 받았었다. 조정에 들어온 뒤에 비록 묵묵히 안으로 감추기를 힘썼지만 명망은 남달리 성대했다. 번갈아 가며 대관(臺官)에 제수되어서는 논하고 아뢰이 모두 강직하였고, 밖으로 나가 방백이 되어서도 명성과 치적이 또한 현저했다.

벼슬길에 나서는 데에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 관직이 제수될 때마다 곧 사양하였고 부득이한 뒤에야 명을 받았다. 사론(士論)이 분열될 때에도 중립을 지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발(李潑)에게 꺼림을 받았고, 이어 당인(黨人)으로 지목을 받게 되자, 이로부터 관직에 제수되어도 일체 부임하지 않았다. 산간에 집을 지어 책을 갖추어 놓고 제자들을 가르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존모(尊慕)해 섬겼으며, 그가 죽은 뒤에도 조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사당을 세워 향사했다.(선조실록 19년조)’

조수삼의 ‘전주8경’

전주는 백제시대 완산, 고려시대에 전주목 완산부, 조선시대 전주부로 불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전주의 풍물 경관을 짐작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많지 않다.

서거정이 ‘패향십영(沛鄉十詠)’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부의 승경을 노래한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완산32경이 소개되어 있다.

오늘날의 전주8경을 이야기한 인물로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다산 정약용과 같은 해에 태어나 그보다 열세 해를 더 산 조선 후기의 문인이다. 다산과 달리 한미한 중인 출신이었던 그는 무관 말직으로 늙다가 나이 여든셋에 향시에 합격해 진사 벼슬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문학은 물론 의학과 바둑, 거문고, 글씨, 기억력 등에 두루 출중했다.

그는 조선 후기 여항문학(=양반 아닌 저잣거리 사람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조수삼의 시문을 보면 과연 그러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적 될 사람이 따로 있나/꿇주림과 추위가 너무한 탓이지” —‘농성에서’

“가을에 열 말 쌀 받아들이고/봄에는 닛 말의 겨를 내주네./잘 짊은 쌀은 어디로 가져가나/날마다 불리는 건 아전의 배로구나” —‘마랑도에서 2’

그의 초명은 경유(景澐). 자는 지원(芝園)·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경원(經畝). 중인 출신으로, 문장과 시에 뛰어나 중국을 드나들면서 시명(詩名)을 떨쳤다. 작품에, 장편시 ‘고려궁사(高麗宮詞)’, ‘추재기이’와 시문집 ‘추재집’이 있다.

“꼭두각시 무대에 올라오자/동방에 온 사신은 손뼉을 친다/원숭이는 아녀자를

깜짝 놀라게 해/사람이 시키는 대로 절도 하고 꿰어도 앓네” —박제가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에서

조선 후기 다양한 공연 문화가 꽃피는 가운데 원숭이로 공연하는 걸 ‘후희(후戲)’라고 했다. 원숭이를 길들이고 조련하는 사람은 ‘농후자(弄后者)’라고 불렀다.

한반도에 서식하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원숭이를 키웠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원숭이를 나무에 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차돈이 순교한 뒤 원숭이가 떼 지어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문인 이인로는 ‘파한집’에 “첩첩산중에 원숭이 울음소리뿐이구나”라는 시구를 남겼다. 조선 전기 문인 최수성은 원숭이를 길러 편지를 전하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다.

원숭이는 외교 선물로 이 땅에 들어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물은 국가 간 친선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다. 조선은 명나라에 매와 사냥개를 보냈고, 명나라와 일본에서 원숭이를 받았다. 원숭이는 사복시 관원이 맡아 키웠다. 태종 대에는 원숭이 수가 크게 늘어 궁 밖으로 분양했다. 원숭이가 탈출해 야생화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궁궐뿐 아니라 저잣거리에서도 농후자가 공연을 했다. 공연은 원숭이 습성을 이용했다. 원숭이가 높은 곳을 잘 오르는 점을 활용해 까마득히 높은 솟대를 세우고 끝에 먹이를 둔 다음 원숭이가 뛰어오르도록 했다.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에는 원숭이 두 마리에게 목줄을 매 높은 솟대에 오르게 하는 공연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갓을 쓴 농후자는 염소를 곁에 두고 있다. 원숭이가 염소를 타는 공연도 했을 것이다.

박제가가 쓴 ‘성시전도시’ 속 원숭이는 사람처럼 절하고 꿰어앉기도 한다. 원숭이가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조련한 공연이다. 이는 중국 사신

에게 선별 만큼 진귀한 모습이었다.

조수삼이 쓴 ‘추재기이(秋齋紀異)’에 ‘농후개자’라는 인물이 나온다.

농후개자는 원승이로 공연하며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별이가 시원치 않아 거지 행색을 면하지 못했던 것. 보는 사람이 감탄하며 돈을 낼 만큼 기묘한 재주를 선보이려면 원승이를 혹독하게 조련해야 했지만 농후개자는 한 번도 원승이에게 채찍을 들지 않았다. 또 아무리 피곤해도 집으로 갈 때면 원승이를 어깨에 올려놓았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활약한 조수삼은 말년에 호남지방에 머물렀다. 전주8경과 부합하는 작품들이 그의 문집 ‘추재집’ 3권과 4권에 들어 있다. 이에 조수삼의 여덟 편의 시를 소개한다.

죽림야우(竹林夜雨)

雨入竹中鳴達宵 비 내리는 대숲은 밤새 울어대니
竹聲相近雨聲遙 대소리가 가까우니 빗소리 멀어지네
伶人百隊人千口 악공 수천 명으로 하여금
口口爭吹綠玉簫 녹옥피리 다투어 부는 듯

죽림(竹林)은 완주군 상관면 만덕산 아래, 현재의 죽림온천 지역으로 추정된다. 상관면 일대는 매우 무성해서 ‘죽음리(竹陰里)’라고 하였다고 한다. 중국 소상8경의 첫수인 ‘소상야우’를 본 따 ‘죽림야우’라 했다. 밤에 대숲에 내리는 빗소리는 낮에 듣는 빗소리와 달리 매우 뚜렷하고 크게 들린다. 그는 수백 수천의 악공들이 다투어 피리를 분다고 표현한다.

인봉토월(麟峯吐月)

麟峯雙髻碧嵯峨 기린봉 두 봉우리 푸르게 우뚝 솟고
秋月迢迢漾素波 가을 달빛은 멀리서 하얗게 일렁이네
五木臺前黃葉盡 오목대 앞의 노란 잎은 다 하고
南川橋上醉人多 남천교 위에는 취한 사람이 많네

인봉토월은 기린봉 위로 달이 떠 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현재의 기린토월에 해당한다. 인봉토월은 달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봉(麟峰)’은 전주부 동쪽에 위치한 기린봉을 말한다. ‘오목대(五木臺, 梧木臺의 誤記)’는 이성계가 왜장 아지발도를 황산벌에서 토벌하고 전주에 이르러 잔치를 했다는 곳이며, ‘남천교(南川橋)’는 전주천에 있는 다리이다.

위봉수폭(威鳳垂瀑)

白練垂垂掛翠微 하얀 비단이 푸른 산에 걸린 듯
雨絲霞線染餘暉 빗줄기는 저녁노을에 물드네
何人直把并刀去 어느 누가 곧바로 칼을 가지고 가서
斷下清秋織女機 맑은 가을 하늘아래 직녀가 짠 베를 잘라놓았나

위봉수폭은 위봉산 동문 쪽에 있는 위봉폭포를 말한다. 위봉폭포는 높이가 60m로, 2단으로 물줄기가 쏟아진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얀 비단, 푸른 산, 저녁노을에 물든 빗줄기, 맑은 가을 하늘은 백색, 붉은 색, 푸른색이 서로 강렬한 색으로 대비되게 그리고 있다.

비정낙안(飛亭落雁)

飛飛亭下雁飛秋 비비정 아래 가을 기러기 내려앉은
水碧沙明十里洲 물 맑고 모래 고운 명사십리길
北望京華何處是 북쪽 서울 집은 어느 곳이던가
家書容易到南州 편지는 쉽게도 남주에 이르네

비정낙안은 평사낙안에 해당하는 시다. 비정(飛亭)은 ‘비비정’의 줄임말로, 삼례를 지나는 만경강가에 서 있다. 비비정은 1573년(선조 6년)에 무인 최영길이 건립했다. 송시열은 비비정기(飛飛亭記)는 익덕 장비(張飛)의 신(信)과 용(勇), 악비(岳飛)의 충(忠)과 효(孝)를 본떠 ‘비비(飛飛)’라고 했다.

덕진채련(德津採蓮)

蓮唱初高刺掉頻 채련곡 노래 소리 높아질 때 배를 끌고 나서니
水禽驚起綠粼粼 물오리 놀라 일어나니 연잎이 맑도다
畫舫漸入花深處 놀이배를 타고 점점 꽃밭 속에 들어가니
一色紅粧不見人 온통 붉은 속에 사람은 보이지 않네

덕진연못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방위를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고려 때 이미 호수가 있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조선조에는 풍수적으로 보아 북쪽에 산이 없는 전주의 지형 상,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기 위해서 건지산과 가련산을 이어 제방을 만들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덕진연못의 절반가량을 채우고 연꽃은 가장 큰 볼거리로, 오월 단오

를 맞아 피기 시작하여 한 달 가까이 꽃이 피고 진다. 단오가 되면 전주 시내의 아낙네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 위해 덕진연못을 찾아 나서곤 했다. 놀잇배를 끌고서 우거진 연밭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여기저기 온통 붉게 피어 있는 연꽃만 보이게 된다. 조수삼은 이러한 절경을 팔경의 하나로 노래했다.

동포귀범(東浦歸帆)

江鄉魚米不論錢 강마을에는 물고기와 쌀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巨口長腰日貿遷 넓은 해구와 긴 강줄기를 따라 날마다 바꾸어 가네
試向南峯高處望 잠깐 남쪽 봉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遠帆無數入青天 멀리 수많은 돛단배가 푸른 하늘가에 떠 있네

동포귀범의 동포(東浦)는 ‘동지포(東之浦, 혹은 東止浦)’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동지포는 곧 만경강의 청하면 동지산(東之山, 혹은 東止山)리에 있는 옛 포구를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조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주의 관할은 서쪽으로 옥구 임피현 경계까지였다고 나온다.

한벽청연(寒碧晴烟)

遠視迷離近卽空 멀리서 보면 아득하고 가까이 보니 텅 비었는데
一川寒碧漾冥濛 전주천 가의 한벽당은 흐릿하게 일렁이네
隔村多少斜陽樹 건너 마을에는 석양 아래 서너 그루 나무들
只坐輕籠淺抹中 다만 열게 붓질한 듯 얇아 있네

한벽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7~8차례의 중수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숙종 때 관찰사 이사명(李師命)은 별도로 여러 층의 누각을 창건하고 화려하게 단청했다. 완주부성 지도와 규장각 지도에 나타난 것을 참조하면, 이때 지어진 한벽당은 비탈면을 따라서 4동의 건물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벽청연의 시간적 배경은 해질 무렵이다.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과, 해가 지고 난 직후 완전히 어두워지기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 시간에 사물은 흐릿하게 보여서 물건을 똑바로 보기 매우 어렵다. 기구와 승구는 초저녁 시간대에 밖에서 본 한벽당의 모습이다. 전주천변에 세워진 한벽당은 뒤편에 발산 자락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어둡게 보이기 마련이다. 건너 마을에 석양이 지는 가운데, 서너 그루의 나무들은 수목화에서 열게 붓질한 듯 서 있다. 전구와 결구는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 보아서 한벽청연은 남원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한벽당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남고모종(南固暮鍾)

城郭鍾聲何處聞 성곽의 종소리 어디에서 들리나
 上方斜日下方曛 상방에 석양이 드니, 문턱이 따뜻하네
 回頭更欲尋初地 머리 돌려 다시 초지를 찾으려니
 惟見空山多白雲 텅 빈 산에는 흰구름만 보이네

남고모종은 남고산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고산성은 전주 남쪽의 고덕산과 천경대, 만경대, 역경대로 이어진 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은 산성이다. 이 산성의 안쪽에 남고사가 있다. 저녁에 해가 지면서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찾으려고 했지만 산에는 무

심히 흰 구름만 보이고, 찾고 싶은 초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화자가 찾으려는 ‘환희지’는 ‘남고사’를 의미한다. 전주 시내에서 바라보는 남고사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민주현의 ‘완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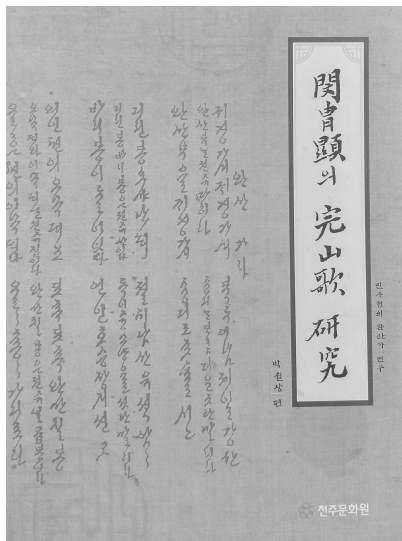
‘구경 가세 구경 가세 완산부
구경가세, 원편에 이목대요, 오
른편에 오목대라’

사애(沙厓) 민주현(閔胄顯,
1808~1882)이 만든 가사 ‘완
산가(完山歌)’와 서애집(沙厓
集)에 소재한 전주 관련 한시들
을 알고 있는가.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명소
를 역람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완산
가’에는 19세기 당시 문인들이

전주의 유적과 명승을 둘러보는 순서가 반영되어 있다. 지리적 배치와
풍류가 반영된 이 루트를 따라 전주를 가장 인상 깊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

민주현은 1854년 47세의 나이로 전주 조경묘(肇慶廟) 별검(別檢)에
제수, 빈 재실(齋室)을 지키면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에 현령 정의관(鄭義觀), 참봉 이봉현(李鳳賢), 진사 최현우
(崔顯宇) 등 몇몇 벗들과 함께 완산의 승경인 한벽당, 만경대(萬景臺),
옥류동(玉流洞) 등을 구경하고 돌아와 1856년에 완산의 풍물과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은 ‘완산가’를 지었다. 이는 한문 고사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문학사적으로 볼 때 가사문학의 쇠퇴기에 나타난 귀족·양반가
사로서 고아(古雅)하고 품격 높은 작품의 하나다.



민주현의 완산가 연구

전라도 동복(同福) 사평리(沙坪里, 현재 전남 화순군) 출신인 그는 29세에 향시(鄉試)를 거친 후 44세가 되던 1851년에 문과 병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벼슬길은 승문원과 춘추관에서 시작했으나 외직인 조경묘(肇慶廟) 별검(別檢)에 제수되어 3년간 전주에 머물렀다.

비교적 한직(閑職)인 조경묘 별검으로 있는 동안 그는 전주의 사적과 명승을 둘러보며 그 감회를 여러 편의 한시로 지어 남겼고, 1856년 ‘완산가’라고 제한 200구 가량의 가사를 지어 후손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자기가 품은 경륜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재실을 지키는 별검으로 밀려나자, 그 답답한 심정을 이 작품 속에 은연중 표현했다.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완산가’는 비록 현직 관원이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유배가사 또는 은일가사(隱逸歌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1단락은 먼저 북도 이남 제일강산인 완산의 기린봉(麒麟峰)·발봉(鉢峰)·이목대(梨木臺)·오목대(梧木臺)·완산칠봉(完山七峰)·건지산(乾止山)·곤지산(坤止山)·장군봉·투구봉 등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들에 대해 노래한다.

‘구경 가새 구경 가새

완산부(完山府) 구경 가새

북두이남(北斗以南) 제일강산

풍기(風氣)도 조흘시고

기린봉 솟았난대

발봉(鉢峰)도 돌너 있다

절피남산(節彼南山) 유석암암(維石巖巖)

어인 호승(胡僧) 장재 선고

원편에난 이목대오
 올은편엔 오목대라
 보죽보죽 완산칠봉
 울울충충(蔚蔚蔥蔥) 가기(佳氣)로다
 건지산은 북에 있고
 곤지산은 남에 잇다
 장군(將軍)은 어대 가고
 투구 벗어 봉(峯)에 둔고(1~16구)'

‘호승(胡僧) 장자(長子)’는 승암(僧巖)을 의미하며, 그 형세를 시경
 ‘절피남산(節彼南山) 유석암암(維石巖巖)’의 일절을 가져와 표현했다.
 마지막 두 구는 완산칠봉 장군봉과 투구봉을 다루고 있다. 민주현은 장
 군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가 벗어 놓은 투구만 봉우리에 남아 있다
 해서 두 지명을 묘미 있게 엮었다.

이어 한나라의 발흥지인 풍패(豐沛)와 같이 조선조의 발흥지인 완산
 의 사적, 옥류동·한벽당을 거닐고, 만경대·공북루(拱北樓)·만화루(萬
 化樓)를 대상으로 지은 시들을 읊는다. 그리고 십리에 걸친 덕진지(德津
 池)의 연꽃과 남쪽 시냇가에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 등 완산의 풍물을 노
 래했다.

제3단락은

‘나 일즉 산인(山人)으로 그 뜻이 간절(懇切)하나/명시(明時)를 마침 만나 참아
 영결(永訣) 못하온이/기산영수(箕山潁水) 숨은 사람 이 내 종적 옷지 마소/나도
 언제야 소원(所願)을 약간 잡고/급류(急流)에 물러나 벽산(碧山)에 깃들일가 하
 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

‘완산가’에서 그는 기린봉, 발봉(鉢峰), 이목대, 오목대, 완산칠봉, 건지산, 곤지산, 장군봉(將軍峯) 등이 펼쳐진 전주의 지세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면 전주가 후백제 견훤의 도읍지였다가 조선의 풍패지향이 되기까지의 내력, 호남 제일의 고장으로서 전주가 지니는 위용에 관해서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어 ‘옥류동(玉流洞) → 한벽당 → 남고사(南固寺) → 만경대 → 동고사(東固寺) → 서고사(西固寺) → 공북루(拱北樓) → 만화루 → 덕진지’의 순서로 자신이 역람했던 공간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에 따른 감흥을 표출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완산가’에서 언급된 장소들이 한시 작품들에서 다루어졌던 공간과도 대개 겹친다는 점이다.

옥류동, 한벽당, 만경대, 만화루, 덕진지는 개별 한시 작품의 제명으로 등장할 정도이고, 그 밖의 장소 또한 시구에 일부 언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의 문집인 ‘사애집(沙厓集)’ 권1에 여러 한시 작품들이 수록됐다. 그는 만경대(萬景臺), 한벽당(寒碧堂), 승금정(勝金亭), 만화루(萬化樓), 풍패관(豐沛館) 등 고래로 전주의 명승이라 일컬어져 왔던 곳이나 왕조의 유래와 연관된 유적을 찾아다니며 감회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완산팔경(完山八景)’에 속하는 한벽당과 덕진지에 대한 작품 뿐만 아니라, 포은 정몽주의 충심이 서린 공간으로 회자되는 만경대, 전주향교의 문루인 만화루, 전주의 객사인 풍패관, 견훤이 쌓은 토성의 흔적을 찾은 후 지은 작품도 발견될 만큼 그의 작품에는 19세기 전주의 주요 경관이 망라되어 있다.

예컨대 ‘승금정수조가두용판상운(勝金亭水調歌頭用板上韻)’에서는 덕진지에 배를 띄워 봄가을로 꽃을 감상하는 감회를 묘미 있게 표현했

고, ‘지완부상동성화
유(到完府賞東城花
柳)’에서는 전주부에
서 맞이하는 봄날의
풍경을 그려 놓았다

김승우 전주대 국
어교육과 교수는 “기
린봉, 발봉, 이목대,
오목대, 완산칠봉,
건지산, 곤지산, 장
군봉, 옥류동, 한벽
당, 남고사, 만경대,

동고사, 서고사, 공북루, 만화루, 덕진지 등 전주의 주요 명소를 안내하
거나 소개할 때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리적 배치와 풍류가 반영된
이 루트를 따라 전주를 가장 인상 깊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창안하기 위한 기본적인 착상을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현의 사애문집

제 2 부

강후진,
7층의 미륵사지
석탑을 보다

양대박, 1586년 지리산을 유람하다

남원 선비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이 1586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리산을 유람했던 사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가을을 즐기는 방법’을 주제로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11월호를 발행,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저물어가는 가을 유람은 필수가 아니던가.

‘조선시대 사대부의 가을날 지리산 유람’은 조선 사대부의 지리산 유람을 다뤘다. 조선 사대부의 지리산 유람록 중에서 가을철(음력 7월~9월) 유람이 절반 이상 자치한다고 한다. 조선 사대부들도 여행하기에 날씨가 좋고, 단풍까지 아름다운 가을철에 지리산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양군수(咸陽郡守)로 재직 중이던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등산 가이드북인 ‘수친서(壽親書)’를 보고 지리산 등반에 나섰다.

남원출신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은 기생과 악공을 대동하여 유람의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두류산기행록’은 양대박이 1586년(선조 13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행문이 적혀 있다. 그는 지리산 단풍을 구경하고 천왕봉 일출을 본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을 뿐, 벗과 함께 시를 주고받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실상사는 양대박의 지리산 유람에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다.

‘흥하고 망함은 한결같이 참 사유의 지침이요

밝고 어두움은 천 겹 세월의 먼지이네

용천(龍天)들도 또한 사라져 없어지고

금지(金地)는 이미 잡목 숲이 되었네
돌이끼 무성한 비석에는 글자 하나 남아있지 않고
산은 텅 비었는데 불상만 텅그라니 앉아 있네
흐르는 시내 다정도 할사
올며볼며 가는 길손 전송하네'

실상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

‘두류산기행록’에 따르면 실상사는 청계의 유람 당시로부터 100년 전 쯤 병화로 소실되었는데, 깨진 비석은 길옆에 쓰러져 있었고 전각은 모두 불타버려 철볼도 별판의 대좌 위에 그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산과 지리산에 가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고, 가을철에 산을 찾아가서 즐기는 산수기행은 사대부에게는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수양을 위한 하나의 필수 덕목이었다.

‘가을의 소리를 듣다’에서는 소리가 글이 되고, 글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되는 예술적 여정으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추성부’는 송대(宋代) 문단의 정점이던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가을밤의 정경을 읊고 인생의 쓸쓸함에 대하여 기록한 부(賦) 형식의 문학작품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구양수의 글이 숭앙되고 또 애호되었던 만큼 이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추성부도’이다. 김홍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기년작인 1805년 ‘추성부도’는 원전의 내용은 물론, 화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구양수의 시의에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한다.

이외에 ‘웹진 담(談)’에서는 조선시대 가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단풍 절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라는 정구(鄭逑)의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 속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을은 단풍이 아니라면 공연과 함께’에서는 공연 마지막에서 불리는 노래 “행복도 잠깐, 불행도 잠깐,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가사처럼 쓸쓸한 가을에 어울리는 현대 창극 ‘나무, 물고기, 달’을 분석한다. ‘중양절 등고회에 경사났네’에서는 명석한 머리로 언제나 사또 아버를 돕는 15살 여자아이 비야가 도난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집안 반대에 부딪힌 선남선녀를 맺어주기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방책을 내놓는다. ‘단풍나무 아래 서서, 선원 김상용의 마음을 느끼다, 청풍각(淸楓閣)’에서는 조선조 최대의 국난기를 살았던 선원 김상용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의 공간이었던 ‘청풍각(淸楓閣)’의 편액(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을 소개한다.



양대박 윤암승전비

강후진, 1738년 미륵사지 석탑을 보다

‘왕궁성(왕검성) 북쪽 10여 리에 미륵산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터가 남아 있다. (중략) 발두령 사이에 7층 석탑은 엄청 높고 크며, 모든 석재들은 돌리막아 첩첩히 쌓아 올려졌고, 돌기둥은 별도로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다. 소위 동방석탑의 으뜸이라 함은 헛말이 아닌가 싶다. 백 년 전에 벼락으로 그 절반이 무너졌고, 아래 석문이 있어 출입할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가 놀 수 있을 정도이다. 서쪽 벽을 밟고 탑 위에 올라가 농부 세 사람이 농기구를 옆에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발두령 사이에는 초석과 석조(石槽), 그릇 등이 널려 있는데, 반쯤은 노출되고, 또는 전부 노출되어 기울어져 있거나 부서져 있다. 종각으로 추정되는 초석은 완전히 남아 있다’

지금부터 282년 전, 1738년(영조 14) 어느 가을 날 기록이다. 54세 때 익산 금마를 답사한 강후진(康侯晉, 1685~1756)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0여 년의 시공을 뛰어 넘어 너무나도 선연히 금마땅 미륵사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답사기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실제 석탑이 7층까지 남아 있었고, 무너진 탑 서쪽 면의 벽을 쌓아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마전이나 사자암 지명은 현존하며, 저산, 명적암, 석정, 용추 등의 지명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김승대 전북도청 학예연구관은 고창 무장현 출신 고고학자 ‘강후진의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 연구’ 한국실학연구 제38호(285~333페이지)’에 발표했다.

‘유금마성기’는 익산 금마 일대의 왕궁리, 미륵사지, 쌍릉 등이 답사를 통해 당시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완산의 김창익·김수봉, 익산 사람 최운거와 함께 만경강 춘포 일대의 횡탄, 왕검성(왕

궁리)의 정원유적와 오금산성, 그리고 미륵사지와 기준성(미륵산성), 당산과 쌍릉 등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역사적 소신을 바탕으로 답사기를 적고 있어 이채롭다.

강후진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무장현(茂長縣) 출신의 지식인이다. 본관은 신천(信川)이며, 자는 순보(順甫), 호는 스스로를 태평산인(太平散人)이라 칭했다. 1685년(숙종11)에 태어나 1756년(영조32) 5월 2일에 72세의 나이로 죽었다.

신천강씨(信川姜氏)의 28대 손으로 무장에 세거했다. 그는 반계 유형원, 이재 황윤석 등과 더불어 호남실학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직접 발로 뛰는 상고사를 집필한 당대의 지식인으로 투철한 체험정신과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 지리, 사상, 언어,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 저술활동을 남긴 학자로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산인 강후진은 현재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2007년 폐교된 석곡초등학교 뒤편에 쓸쓸이 잠들어 있다. 그가 나고 자란 용장마을로부터 서쪽으로 약 900m 남짓한 곳이다. 그는 아버지 강유태가 52세 때 늦둥이(晩得)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에 가문을 이끄는 계승자도 아니었으며, 학문적 연원이나 이름난 계승자도 없었기에 철저한 야인으로 살았던 전라도 무장의 한 지식인이었다.

강후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저술이다.

‘역대회령’은 서제(庶弟)인 후준의 아들 강주신이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각지에 있는 신당(神堂)의 내력과 신령의 기원을 서술한 책이며, ‘송사록’은 무장현의 역사 지리지로 강후진의 지역사 연구 저술로 평가된다.

‘송사(松沙)’란 무장(茂長)이 무송(茂松)과 장사(長沙)를 합쳐 만든 고을 이름이므로 송사록은 무장지(茂長誌)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송사

록'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무장의 자존심을 찾고 지역에서의 유산과 정서를 보존·계승하려는 중요한 사찬 읍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와유록’은 자신의 직접 답사한 내용과 지지(地誌) 자료를 모아 저술한 책이다. 1729년 평안도 성천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 ‘유동명도기(遊東明都記)’, 같은 해 묘향산의 사찰과 단군 유적을 답사한 ‘유묘향산기’, 1730년 여름 평양의 단군과 기자유적을 답사한 ‘평양기’, 1734년 황해도 곡산을 답사한 ‘유두류동기(遊頭流洞記)’, 1734년 익산 마한·백제 유적을 답사한 ‘유금마성기’, 또한 고조선·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과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지리지를 엮은 ‘서경총람’과 ‘송경’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와유록은 자신이 지은 답사 기행문과 기존의 서책에서 발췌하여 답사를 위한 지리지를 합쳐 만든 저술로서 그의 해박한 학문적 바탕과 실제 답사를 통해 매우 사실적이고 특색 있는 문장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 ‘유금마성기’는 우리 지역인 익산 금마 일대의 왕궁리, 미륵사지, 쌍릉 등이 답사를 통해 당시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완산의 김창익·김수봉, 익산 사람 최운거와 함께 만경강 춘포 일대의 횡탄, 왕검성(왕궁리)의 정원유적과 오금산성, 그리고 미륵사지와 기준성(미륵산성), 당산과 쌍릉 등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역사적 소신을 바탕으로 답사기를 적고 있어 이채롭다.

김승대 전북도청 학예연구관은 “‘감영록’은 강후진의 가장 방대하고 대표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총 6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2권은 안타깝게도 실전(失傳)되었다. 국가와 시조, 그리고 수도와 제도를 1~4권에서 다루었으며, 5~6권에서는 민간신앙과 사물을 수록하였다. 그는 상고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르는 분류사에 가졌던 관심

을 독서로 정리하고 발로 답사하여 얻은 지식을 수록하였다. 특히 고승전, 언어, 민간신앙, 동물 등 희귀한 민담이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생활사와 민초들의 애환 등을 엮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는 만경강 춘포 일대의 횡탄를 건너 왕궁리 유적 일대를 답사한다. 이는 1738년 익산 금마지역을 답사한 강후진이 기록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오금산성, 미륵사지, 미륵산성, 쌍릉 등 백제유적에 대한 생생한 답사기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는 1책 11장으로 된 한문필사본이다. 강후진은 유금마성기의 첫 글에 ‘호남의 금마군(金馬郡)은 옛날 미한국(馬韓國)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마’를 강후진은 마한의 시조 무강왕(武康王) 준왕(箕準)의 남래(南來)지역으로 보고, 기준이 세운 나라 ‘馬韓’의 중심 도읍지로 익산 금마를 지칭하고 이를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는 금마를 마한의 옛 도성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왕궁리 유적(왕검성)은 무강왕(武康王) 기준의 옛 궁터로, 미륵사지는 무강왕 기준이 건립한 절로, 미륵산성(기준성)은 무강왕 기준이 쌓은 성으로, 쌍릉은 무강왕 기준왕과 왕비의 능으로 추정하고 답사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 강후진의 답사는 전주 이북에서 출발한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김익창(金昌益) 등으로 이들은 금마 일대의 지리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

강후진은 ‘왕궁리 유적’을 ‘(왕궁성)王宮城’이 아닌 ‘왕검성(王儉城)’으로 명명하고, ‘마한왕이 행차하여 정사를 듣는 곳’으로 판단했다. 강후진은 당시에 왕궁성의 정황을 “그 돌은 모두 다듬고 쪼아서 사방 모퉁이를 두루 돌렸고, 무너진 기왓장과 깨어진 그릇이 발두렁에 겹쳐서 쌓인 것이 무수하다.”라고 생생히 적고 있다. 특히 기와의 제작 기법을 고구려식과 비교분석하기도 하고 흑도(黑陶)의 소박한 형태, 기와의 음각, 양각 기법 등이 확인됨을 세세히 적시하고 있다.

또, 왕궁리유적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왕궁리 5층석탑과 '3개의 와우석(臥牛石)'이다. 그는 뒤에 나오는 미륵사지석탑뿐만 아니라 왕궁리 5층석탑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5층석탑의 이름은 '왕검'이며, 석탑 뒤에는 '민총(民塚)'이 있고, 석탑 아래에서는 세 사람이 마주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때 한 농부가 곁에 와서 그 뒷산에 있는 3개의 와우석(臥牛石)을 가리키면서 이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 해준 내용은 무척 인상적이다. 강후진은 농부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이번에는 농부가 다시 가리키는 '서남쪽의 두 개의 토성(土城)'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익산토성(오금산성)으로 추정되는 토성을 “말통대왕(末通大王)이 평민으로 여기에 서 살 때 작은 보첩으로 쌓은 성이다. 그가 여기에서 밭을 갈다 다섯 개의 금덩어리를 얻어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뒷사람이 여기에 사찰을 세우고 '오금사(五金寺)'라는 명칭을 한 바, 지금은 빈 터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당대의 생생한 기록은 매우 중요시된다. 비록 강후진은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지 창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대 1738년 당시 7층까지 탑이 남아 있었고, 강후진 시대보다 백 년 정도 전에 석탑이 벼락으로 무너졌다는 내용이 중요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강후진, 김창익, 김수봉 세 사람이 함께 서탑 1층의 십자형 공간의 석문(石門)을 통해 출입했고, '탑의 서벽(西壁)을 밟고 탑 위에 올라가 보니 3명의 농부가 거기에 누워 있다'는 기록은 매우 사실적이다. 서탑 서벽(西壁)은 서탑 해체 과정에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강후진 시대보다 이른 17세기 전후 반파되어 무너진 석탑의 서쪽 면을 쌓아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아, 이를 쌓은 조선후기 당대(當代)의 주체들에 대한 연구

도 향후 필요하다.

김승대 박사는 “미륵사지 유구의 초석과 유물이 반파되거나 노출된 상태로 있음을 알 수 있다. 200여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선연히 금마땅 미륵사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답사기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면서 “특히, 실제 석탑이 7층까지 남아 있었고, 무너진 탑 서쪽 면의 벽을 쌓아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고 했다.

강혼의 ‘부안 격포행궁기’와 ‘하설루기’

강혼(1739~1775년)은 ‘부안 격포행궁기’와 ‘하설루기’를 지었다.

호는 삼당재(三當齋), 본관은 진주(晉州)로 증조부 강백년(年), 조부 강현(姜), 아버지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으로 이어지는 소북(小北)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763년 25세의 나이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그가 관계에 진출한 뒤 아버지 강세황 역시 영조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관직에 나섰다. 얼마 뒤 영남 지방에 잠깐 근무하며 각지를 두루 여행했다. 1767년 사헌부 검열과 대교, 병조 좌랑을 거쳐 1769년 부안 현감으로 부임했다가 조정에 돌아와 사헌부 지평에 올랐다. 1772년 이조 좌랑과 승지 등을 두루 지냈고, 문장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누렸지만 곧 세상을 떠났다.

강혼은 재기 발랄한 문인으로 시와 산문 모두 경쾌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그 가운데 담배를 읊은 열 편의 시(詠烟茶草十首效)는 담배가 간절하게 떠오르는 순간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산문 가운데 서(序)와 기(記)의 문체에 불만한 작품이 많다. 문집으로 필사본 ‘삼당재유고(三當齋遺稿)’가 전한다.

그는 1769년 가을 전라도 부안의 현감에 제수되어 부임했다. 부안은 그가 산 37년의 짧은 인생에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부안에서 강혼은 읍지를 만들고, 후루를 새로 세우고 낙성식을 열었다. 부임한 이듬해 봄에는 남들처럼 아버지를 모셔 구경을 시켜 드렸다. 강세황은 아들 덕에 1770년 5월 채석강과 격포진 일대를 유람하고서 ‘격포유람기’와 ‘유우금암기’와 ‘우금암도(禹金巖圖)’를 남겼다.

표암 강세황(1713~1791)이 18세기 부안을 배경으로 남긴 유일한 실경산수화인 ‘우금암도(미국LA 카운티미술관 소장)’이다.

‘우금암도(禹金巖圖, 지본수묵, 25.4×267.34cm)’는 강세황이 아들 완이 부안현감으로 재임(1770.8~1772.1)하던 당시 이틀에 걸쳐 부안의 변산 일대를 유람하며 그린 산수화다. 그의 아들 완이 부안현감으로 재임할 시기, 강세황이 그린 실경산수화로, 강세황이 그림과 함께 적은 글은 ‘표암유고’의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변산 특유의 암산(巖山)의 분위기를 굵은 갈필(渴筆)로 표현, 명승지를 지나며 빠른 필치로 각 장소의 특징을 사생한 작품으로, 당시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지역이 금강산이 아닌, 전북 부안 일대를 그린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아들 완이 부안현감으로 재임한 시기를 고려해 보면, 1770년 2월 혹은 이듬해 2월에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구성은 이동 경로에 따라 우금암(禹金巖)→문현(文懸)→실상사(實相寺)→용추(龍湫)→극락암(極樂庵)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금암과 문현 사이의 장면은 지명이 적혀 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극락암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주변 기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장소다. 직각으로 가늘게 쪼개진 벽의 무늬가 마치 비단과 같다고 기록한 ‘우금암’에 깊은 인상을 받아 묘사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격포행궁기(格浦行宮記)

이 글은 변산에 있었던 행궁을 찾아가 지형과 구조, 건립의 역사에 관리 실태까지 두루 살펴보고 썼다. 여행의 과정을 묘사한 숨씨도 빼어나다. 그러나 이 글의 묘미는 후반부에 있다. 국난에 대비하려고 요충지에 구축한 요새가 부실한 정도를 넘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젊은 지방관으로서 민심도 군사 대비도 모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태를 관찰하고 개

탄과 우려를 담아 감개하게 서술했다. 부안 행궁의 실상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우환 의식을 구체적 체험을 통해 밝힌 의의가 있는 글이다.

부안 격포의 행궁(格浦行宮記)

부안현 관아의 서문을 나와 들길로 이십 리를 가면 변산이다. 변산은 둘레가 구십여 리인데 그 반쪽이 바닷물에 들어가 있다. 산을 안고서 동남쪽으로 이십 리를 가면 웅도(熊島)이다. 여기에서 바닷배를 타고 산을 따라 아래로 삼십 리를 가면 동남쪽은 큰 바다이고, 서북쪽은 바로 산이다. 산세가 갈수록 둥그렇게 둘러싸고, 풍기(風氣)가 갈수록 단단하고 뻑뻑해지는데 이곳이 바로 격포진(格浦鎭)이다. 격포진은 산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고, 진 앞에 있는 만하루 밑까지 조수가 곧장 밀려들어 온다. 진에서 꺾어 서쪽으로 일 리를 가면 그곳이 바로 행궁(行宮)이다.

행궁은 동쪽을 바라보고 뒤로 높은 봉우리에 기대 있다. 봉우리 뒤는 큰 바다이지만 사면을 산이 감싸고 있어 행궁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음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정전(正殿)은 열 칸이고 동서 날개집은 여덟 칸이며 누각 네 칸, 행각(閣) 네 칸이다. 바깥문은 세 칸이고 안문은 두 칸으로 답을 둘러쳤다. 단청이 심하게 벗겨졌으나 건물의 규모는 거창했다. 변산 지역 승려를 불러 모아 행궁을 지키고 있다.

선조 임금 18년 경진년(1580년)에 삼남 순검사(三南巡檢使) 박황(朴璜)과 관찰사 원두표(元斗杓)가 조정에 보고하여 진을 설치하고, 경종 임금 4년 갑진년(1724년)에 관찰사가 또 조정에 보고하여 이 행궁을 지었다. 행궁의 지세가 높은 산에 의지하여 험준하고, 또 험한 바다에 걸쳐 있어서 요새로 삼았다.

이 지역은 몹시 가파른 산이 백 리를 가로지르고 있다. 큰 바다가 여

기에 이르면 칠산(山) 앞바다에 막혀 해로의 목구멍이 된다. 돛을 달고 북쪽으로 항해하면 하루 밤낮 사이에 강화도에 곧장 도달할 수 있으므로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험준한 지형이다. 선배들이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도조차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진을 설치하고 행궁을 지었다. 그 큰 책략과 원대한 계획이 이와 같다.

정전 뒤편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봉수대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만 리에 층층이 이는 파도가 눈 아래 아스라하다. 서쪽으로 고군산도나 계화도 등 여러 개의 섬을 바라보니 바둑판이 벌려 있고 별이 펼쳐진 모습이다. 주변 풍경을 두루 살피면서 감개한 기분으로 배회했다.

이윽고 격포진의 장교를 불러 무비(武備)에 관해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진의 서쪽 일 리쯤 되는 곳에 대변(變)이 있는데 무기고입니다. 창은 부러지고 검은 무더졌으며, 깃발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어느 것 하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함 한 척과 양곡선 두 척, 척후선 세 척이 있어서 삼 년에 한 번 보수하고 십 년에 한 번 지붕을 교체하는 것이 군율입니다. 지금 십여 년이 흘렀지만 감영이나 수영(水營)에서 물자와 인력을 대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은 벌써 훼손되어 버려 지금은 한 척도 남은 배가 없습니다”

오호라! 국가가 태평스러워 바다에 외침의 물결이 일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전쟁을 알리는 나쁜 소리를 듣지 못한 지 수백 년째다. 만에 하나 변경이 안정되지 않아 외적이 침략할 때 무비가 이렇듯 엉성하다면 지리상 이점을 활용할 길이 없다. 바닷가 백성들은 소금 독점과 어세(漁稅)에 핍박당해 생계를 잇지 못한 지 오래다. 풍속이 본디 교활하고 변덕이 심하므로 인화(人和)도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사정이야 군현을 맡은 낮은 관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조정의 많은 현명한 분들이 술

마시며 노래하고 흥겹게 잔치하는 여가에 잠깐만이라도 엮두에 두고 있을는지 나는 모르겠다.

서설을 반기는 누각(賀雪樓記)

부안 관아의 후선루(仙樓)가 완성되자 한겨울이 찾아왔다. 누각이 높아서 멀리 조망하기에 넉넉한지라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날씨가 춥지 않은 해라 얼음이 얼 김새가 없어 몹시 울적해졌다. 십이월이 되자 연일 눈이 크게 내렸다. 한두 손님과 함께 후선루에 올라 놀기로 했다. 잔치 자리를 넓게 깔아 술잔과 그릇을 차려 놓으니 비취 소매의 기녀는 추위에 떨고 붉은 화로에서는 불기운이 이글거렸다. 변산에서 돌아온 사냥꾼은 꿩과 사슴을 안춧거리로 바쳤다.

사방을 둘러보니 무성(武城)과 영주(州), 김계(金谿, 김제) 여러 군의 산은 백옥 같은 봉우리와 고개가 한 가지 빛이고, 성곽 서북쪽의 숲과 골짜기도 온통 흰빛이었다. 관아 건물의 높은 대와 대를 둘러싼 다락에는 떨어지는 꽃잎과 휘날리는 솜버들 사이로 구슬 같은 용마루와 옥 같은 기와가 불쑥 나타났다가 어느새 사라졌다. 상쾌한 기운이 폐부로 스며들 때 술잔을 들어 손님들께 권하며 말했다.

“지금 이 눈은 납일(日) 전에 내린 세 번의 서설인데 한 길 높이로 쌓였으니 음산한 요기가 스르르 사라지고 아직 남은 메뚜기 알이 땅속으로 숨어들 겁니다. 내년에는 참으로 풍년이 오리라는 것을 점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적은 틀림없이 일어나지 않을 테고, 송사도 틀림없이 일어나지 않을 테지요. 그러면 나는 이 누각에 올라 즐겁게 지낼 겁니다. 옛날 소동파(蘇東坡, 소식)가 비가 내릴 때 희우정(喜雨亭)을 완성한 것처럼 나는 눈이 내릴 때 이 누각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 이 누각의 이름을 눈을 축하한다는 뜻의 하루로 바꾸렵니다”

술잔이 여러 번 오가고 나자 서글피 예전 일이 떠올랐다. 임오년(1762년) 한양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였다. 귀족과 호걸 집안의 한두 친구가 대설이 내리자 편지를 보내 나를 불렀다. 저물녘에 대문을 나서 나귀에 걸터앉았다. 골목을 지나 큰길을 뚫고 대지의 눈길을 헤쳐 나갔다. 백옥 빛천지에서 친구와 상봉해 어깨를 부딪고 손을 부여잡으며 추위를 몰아낼 난방 도구를 벌여 놓았다. 그 뒤에 운을 나눠 시를 짓되 소동파가 옛날 취성당(聚星堂)에서 한 것처럼 했더니 기분이 몹시도 호쾌해 눈 속에서 나보다 더 멋지게 눈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다음 해 남쪽 지방에 벼슬살이하러 떠나 조령에 이르렀을 때 대설을 만났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곳이라 늙은 나무가 어지러운 삼줄기처럼 솟아 있어 한기가 평야의 열 곱절이나 더했다. 때때로 소나무는 쌓인 눈 무게를 못 견뎌 가지가 부러지고 황새가 깜짝 놀라 날아올랐다. 절정에 올라 저 아래로 일흔 개 고을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몹시도 상쾌해 눈 속에서 나보다 더 멋지게 여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또 그다음 해 홍문관(弘文館)에 숙직할 때 대설을 만났다. 푸른 나무와 검푸른 추녀만이 어우러져 있을 뿐이었다. 달빛이 환해 금청교(禁淸橋)를 산보하노라니 자줏빛 옷을 입은 내시가 임금님의 보묵(墨)을 받쳐 들고 와서 문신들에게 눈을 반기는 시를 지어 올리라는 하명을 전했다. 절을 하고 받들어 시를 지어 바치고 나자 기분이 몹시도 즐거워 눈 속에서 나보다 더 멋지게 시를 지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그다음 해 산으로 돌아와 은거하노라고 문을 걸어 닫은 채 겨울을 날 때 또 대설을 만났다. 깊은 산에 지팡이를 짚고 문을 나서서 매화가 피었는지 더듬어 가다 내친걸음에 수리산(山)의 절에 올랐다. 선루(禪

樓)와 요사채가 눈에 띄었고, 소나무가 눈에 묻혀 대숲을 가두어 거의 길이 끊겼다. 문을 두드리자 장작처럼 갸마른 스님이 향불을 사르고 불경을 읽고 있었다. 기분이 몹시도 호젓해 눈 속에서 나보다 더 멋지게 눈을 감상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축년 올해 나는 또 이 누각에 올라 눈이 온 것을 축하했다. 십 년 이래 한 몸이 노년 자취가 또렷하게도 마음과 눈에 떠오르건만, 머리를 돌려 보면 종적조차 찾을 길 없다. 마치 눈 위에 찍힌 기러기 발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다. 인간 세상 세월이란 이처럼 손아귀에 잡고 즐길 수 없단 말인가! 앞으로 몇 년 만에 어디에 몸을 부쳐 몇 길의 눈을 만나 몇 번이나 즐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이 글을 지어 여기에 남겨 두면 곧 관복을 벗고 떠나리라. 고향에 돌아가 지낼 때 육칠월이 되면 불우산은 허공에서 불타고 시방 세계는 가마솥 같으리라. 초가집 처마 밑이나 토방 위에서 나뭇잎 하나 흔들거리지 않고 새 한 마리 울지 않을 때 낮잠 끝에 목침에 기대 누워 이 글을 읽는다면 맨발로 짹짹 언 얼음을 밟는 기분이 들리라.

강세황의 ‘격포유람기’와 ‘유우금암기’

표암 강세황(1713~1791)이 변산을 유람하고 두 편의 산문을 그의 유고집 ‘표암유고(豹菴遺稿)’에 남겼다. 변산 유람은 둘째 아들 강흔(1739~1775)이 1769년 부안현감으로 부임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는 1770년 5월, 채석강과 격포진을 유람한 후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와 ‘유격포기(遊格浦記)’를 지었으며, ‘우금암도(禹金巖圖)’를 남겼다.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

부안현의 서문을 나와 서쪽으로 십여 리를 가면 돌밭이 아득히 뻗쳐 있고, 왼쪽으로 먼 산이 하늘가에 보일락 말락 하는데 이곳이 고부, 정읍 등지이며, 오른쪽으로 이은 봉우리가 끊임없이 서려 있어 그 형세가



강세황과 그의 저서

웅대하고 수려하니 이게 변산이다. 산의 동쪽자락에는 동림서원(東林書院)이 있고, 또 얼마를 가면 들 가운데 평평한 언덕이 있고, 거기에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나 있는데 이곳에 유천서원(柳川書院, 이 지점이라면 개암사 입구 청등마을에 있는 청계서원(淸溪書院)인듯하다. 유천서원은 개암사로 가는 길에서 한참 남쪽으로 지금의 영전에 있다.)이 있다. 또 거기서 십여 리를 가면 오른쪽으로 변산의 입구를 들어가는데 얼마동안 꺾어 들어가면 솔밭 사이에 큰 가람이 있는데 이것이 개암사다. 절에 들어가 우리러 쳐다보니 절 뒤엔 만장(萬丈)의 높은 봉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꿰뚫고 서 있고, 봉우리 위엔 바위 셋이 서 있는데 높이가 모두 백여 장이나 되어 보였다. 가마를 타고 올라가니 바위 밑에는 굴이 있는데 크기가 백 칸 집 같았고, 길어도 수십 장쯤 되는데 벽 무늬가 가로 세로로 되어 마치 무늬 있는 비단 같았다. 이것을 우진굴(禹陳窟) 또는 우금굴(禹金窟)이라 하는데, 굴 앞에는 자그마한 절이 있어 옥천암(玉泉庵)이라 편액했다. 거기서 굴을 돌아 오른쪽 재를 넘어서 수리를 가니 비로소 평탄한 길이 나선다. 좌우의 기봉(奇峰)은 응접할 틈이 없고, 맑은 물과 층암절벽은 인간세상이 아닌 듯했다. 때는 봄이건만 아직도 남아있는 잔설이 어긋어긋 깊은 숲속 그윽한 시냇물 속에 서로 비치었다. 실상사에 도착하니 절은 매우 웅장했으나 지금은 많이 헐었다. 스님이 고물을 내보이는데 오동향로(烏銅香爐), 오동구학(烏銅龜鶴), 오동양지병(烏銅楊枝瓶)이었다. 그 제작이 또한 모두 기이하고 정교했다.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둘러보다가 월명암이 좋다는 말을 듣고 가마를 재촉해 타고 절 뒤 높은 봉우리에 오르니 봉우리 모습은 벽처럼 서 있고, 돌길은 실낱같이 밟을 일 수가 없었다. 급경사를 오르기 한 오 리쯤에 절정에 이르러 남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돛단배가 왕래하고,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흥덕(興德)땅이라고 한다. 북으로 꺾어 산허

리를 타고 가니 녹다 남은 눈이 아직도 깊이 쌓여 정강이가 묻혔고, 그
 곁으로 난 길은 매우 위태로워 천 길 낭떠러지 벼랑이어서 만약 한 발만
 헛디디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월명암에 도착하니 지세는 가장 높
 아 큰 산을 굽어볼 수 있으나 물결치고, 구름도 끼었기에 똑똑히 다 볼
 수는 없어 가던 길을 바로 되돌아와 실상사의 오른쪽으로 돌아 용추(龍
 湫)로 향했다. 돌길이 위태로워 월명암 가는 길보다 더욱 심하여 가마는
 탈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기어올라 두어 고개를 넘으니 나는 폭포가 두
 벼랑사이에 쏟아지고 구슬이 튀어 그 형세가 매우 기장(奇壯)하고 바람
 소리 부딪쳐 서로 어울리는 소리가 숲이며 온 골을 울리고 있었다. 폭포
 를 따라 오르고 또 올라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굽어보았고, 꺾어서 동쪽
 으로 내려오다가 또 꺾어 북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월명암으로부터 이
 십여 리를 가셔야 내소사에 도착하였다. 절 뒤의 봉우리는 곧 실상사의
 안산(案山) 밖이었다. 절은 화재를 만나 중건되었는데 비록 장려(壯麗)
 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자못 정신(整新)하여 아직 모두 단청을 하지 않
 았다. 여기서 점심을 지어 먹고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타고서 산 어귀로
 나와 북쪽으로 가니 개암동구길이 다시 나선다. 해가 겨우 저서야 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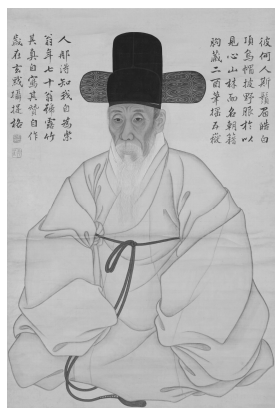


강세황의 우금암도

격포유람기(遊格浦記)

경인(庚寅, 1770년) 5월 나는 둘째 아들의 임지인 부안에 있었다. 친구인 임성여(任聖與)가 마침 정읍의 수령으로 있다가 부안으로 나를 찾아왔으므로 함께 격포를 유람했다. 서문을 나서 서남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봉우리가 수십 리에 걸쳐 이어져 있었으니 이것이 변산의 바깥 기슭이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구름이 머물고 출렁이는 물결은 온갖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왼쪽으로 큰 바다와 나란하였는데, 안개와 파도가 끝이 없었다. 때때로 점 같은 여러 푸른 봉우리들이 수평선 끝에 떠 있어, 대왕등도(大王登島) 여러 섬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오시에 해창에 이르렀다. 해창은 변산의 바깥에 있다. 그 앞이 포구와 가까웠다. 포구 밖의 기이한 봉우리는 뾰족하기가 바짝 세운 붓과 같았다. ‘바다 위 뾰족한 산 칼날과 같네’라는 시구를 읊조리며 유주의 산수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만조라 물이 점점 불어나 앞길이 물결에 잠겨 있어서 나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은 후 같이 유람하던 나(羅)군과 함께 한가히 이야기 하면서 조수가 빠지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해가 기울자 물살이 점차 줄어듦으로 말을 재촉하여 떠났다. 길은 매우 질척거렸으며 깨진 돌과 조개껍질이 땅 가득히 쭉 깔려 있었다. 산기슭이 조수에 씻기어서 바위들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 영롱하면서도 기묘하여 마치 조각한 듯 아름다웠다. 어떤 곳은 십리 넘게 쭉 이어지기도 했고, 더러는 끊겼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다. 만일 미불(米芾,



부안을 찾은 강세황 초상

1051~1107, 송나라 양양 사람으로 소동파(蘇東坡), 황정견(黃庭堅) 등과 친교가 있었다. 금석(金石)이나 고기(古器) 감상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기석(奇石)을 좋아하여 특이한 돌을 보면 이것에 절을 하였다)을 여기에 불러온다면, 일일이 다 절할 겨를이 없을 것이었다. 포박해서 지나가려니 그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조수가 다 빠지지 않는 곳도 있어서 말이 물속을 걷기도 했다. 말 앞의 검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물의 신선이 용을 타고 수면을 다니더라도 이보다 더 낫지는 않을 것 같았다. 이따금 조수를 피해서 봉우리에 오르기도 하고 더러는 진창을 만나 정강이까지 빠지기도 하였다. 석양이 바다에 가라앉자 얇은 구름이 그것을 감쌌다. 빛깔은 연지 같고, 크기는 수레바퀴 같았다. 일출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기이한 장관인 줄 알지 못하겠다.

마쓰다 고조, 1888년 5월 전북 곳곳 방문

마쓰다 고조(松田行藏, 宮崎縣)는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부산상법회의소(오늘날 상공회의소) 서기로 근무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전부다. 1880년대 말 일본인 마쓰다 고조의 여행기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그가 작성한 ‘경상도전라도여행기사병이농상황조사록(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並二農商況調査錄)’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광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최근 들어 일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행기록물 ‘호남여행기’를 편찬했다. 책은 광주지역의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재단은 일본어와 한문으로 작성된 자료는 번역을 하고 해설과 원문을 추가했다. 또, 한글로 작성된 자료도 현대문으로 수정하고 해설을 추가해 수록했으며 해제는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가 맡았다.

고조는 여행기 첫 머리를 통해 “이 책은 기사의 문체(文體)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실지(實地) 산천(山川)의 모양과 촌락(村落)의 위치(位置), 체재(體裁) 등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통상(通商)의 일을 맡은 사람의 길잡이로 쓸 수 있게 하여 행상(行商)을 하려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조선의) 내지(內地) 촌락의 체재라든가 상업 활동의 실태 등을 알려주는 편의를 도모하는데



마쓰다 고조를 소개한 호남여행기

있으니, 문체의 졸렬함을 나무라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했다.

책은 운봉현, 남원부, 임실현, 전주, 익산군, 임피현, 옥구현, 만경현, 김제군, 금구현, 태인현, 고부군, 흥덕현, 고창현 등 전북과 광주를 비롯, 창평현, 남평현, 나주, 무안현, 영암군, 해남현, 진도군, 강진현, 장흥부, 보성군, 낙안군, 순천부, 광양현, 구례현 등 전남이 등장한다.

△ 운봉현

마쓰다 고조는 1888년 5월 초 경상도 부산에서 출발하여 전라도로 향했다. 부산(5.3)→동래(3)→김해(4)→창원(6)→함안(7)→진주(8)→단성(11)→산청(11 ?)→함양(11~12)을 거쳐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의 호남 여행이 처음 시작된 곳은 운봉현이었다.

1888년 5월 12일(이하 일본력임) 경상도 함양에서 전라도 운봉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조선=음력 4월 2일). 13일까지 운봉에 머물렀던 그는 그 뒤 남원부(14)→임실현→전주(15)→익산군(17)→함열현→임피현(18)→옥구현(19)→만경현→김제군→금구현(20)→태인현→고부군(21)→흥덕현→고창현(22)→장성부(23) 등을 거쳐 동년 6월 7일(음력 4.28) 구례현이 호남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운봉현을 출발해 4킬로미터를 가면 여원재(女院峙) 주막을 만난다. 호구는 10여 호이다. 이곳과 운봉현 사이는 거리가 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마을이 한 곳도 없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전라도는 토지 비율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가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8킬로미터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본디 이곳은 남원부와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 아래에 고개가 있는데, 여원재라고 부른다. 높이는 300미터 남짓이다. 이곳에서 아래로 300미터 내려가면 남원부의 영역인 성(城)으로 들어간다.

△ 남원부

여원재를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나무골=목수동(木樹洞)이라고 부른다. 호구는 10호 남짓이다. 그 남쪽에 다와리(科里)가 있는데 호구는 50호 남짓이다. 그곳은 땅이 척박하여 보리가 자라기에 무엇보다도 좋지 않다. (보리의) 줄기 길이가 30센티미터 안팎으로 지금은 단지 이삭을 늘어뜨릴 뿐이지 보리가 번성하지는 않았다. 논은 아직 경작에 착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밭은 들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어서 크게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면류(綿類) 같은 것은 불티가 나게 팔린다고 한다. 성벽의 주위는 2킬로미터를 둘러싸고 있다. 동쪽 문에 향일루(向日樓)라고 쓴 편액을 걸어 놓았고, 동쪽 면으로 관아를 세웠다. 본관(本關)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 뒤쪽에 관아를 여러 채 설치해 놓았다.

△ 임실현

메추레기마을=순양촌(鵪陽村)의 호구는 30이다. 마을의 주위는 어디를 가나 뽕나무를 심어 놓아서 대개가 누에치기(養蠶)에 종사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 마을의 서쪽 아래에 모래내(砂川)오원장터(烏院場基)에 다다른다. 호구는 10 남짓이다. 장이 열리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장을 여는 기일은 1년에 세 번으로 되어 있다. 즉 1월에는 13일, 12월에는 28일로 날을 잡아서 장을 여는데, 본래 한적한 시장이라고 한다. 연달아 흘러서 물을 이용하기가 꽤 좋아 마을이 오히려 부유한 모습을 보인다.

△ 전주

고조는 전주(全州)의 시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주의 상업 번성을 그는 일본 오사카와 견줄 정도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전주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정리한 조사표의 ‘비고란’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전주는 마치 일본 오사카(坂地)와 비슷한 중요한 곳이라서 상인들이 폭주하여 상로가 대기관(大機關)에 해당하는 지역임. 그런데 현지에서 산출되는 물건은 없고, 단지 먼 곳 또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화물이 몰려드는 이곳 시장에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송함. … 3도(道)의 상인이 이곳에 모여서 상업 기회를 얻고자 싸우며 사람들이 몰려옴. 항상 그 수가 몇 천에 이름. 이에 상세(商勢)는 날로 왕성하며, 수입하는 화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니, 당목(唐木)과 한랭사(寒冷紗) 같은 것은 늘 공급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朝鮮產) 중에서 목면, 면주, 생사(生絲), 베(布) 같은 것은 광주 나주 진주에서, 종이류는 진주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금은 옥구 꼬트머리에서, 모두 전주로 모여들고 있음. 장이 열리는 당일에는 상인들이 먼저 구매(購買)해 그것을 각자가 목표로 삼는 장소로 전송하여 그 물건을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현(現) 산지(產地)로 되돌려 다시 원주인(本主)의 손에 들어가는 일도 있어서, 오히려 일본 오사카와 다를 바가 없게 됨. 시중(市中)의 점포는 남문 밖에서 (시작해) 서부에 걸쳐서 그 위치를 잡고 항상 몇 십 채가 개점을 함. 각각 종류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지방(紙房), 면방(綿房), 또는 약방(藥房), 미방(米房) 등 각각 그 상표(商標)를 내거는 것은 서울(王城) 종루가(鍾樓街)와 비슷한 점임. 상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어 상업이 번영을 이루고 화

물의 운반이 활발하니, 다른 곳의 개시(開市) 당일보다 오히려 번잡해 짐. 이것은 곧 상세(商勢)가 번성하여 대체로 상인들이 중요한 권력을 차지했고,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달리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함. 전주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산물은 오직 소가죽뿐이며, 오곡 같은 것은 이 고장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본디 소가죽은 모두 육로를 통해서 남원부(南原府) 또는 진주부(晉州府)로 전송하고, 남원은 하동부(河東府) 두치강(豆恥江)에, 진주에서는 남해(南海) 조창(漕倉) 연안을 거쳐서 모두 부산(釜山)으로 배를 이용하여 회송한다고 함. 그런데 임실(任實) 고산(高山) 익산(益山) 금구(金溝) 여러 현(縣)의 같은 물품, 즉 소가죽도 같은 행적을 거칠 것으로 보임'

△ 익산군

용안(龍安)지방의 높은 산이 아득하게 보이는데, 그곳까지 거리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에 작은 봉우리가 점처럼 흩어져 있다. 논밭에 심은 식물이 푸른빛을 띠어 안광(眼光)이 차가움을 느낄 정도이다. 이 산을 오른쪽에 두고 행진하면 오미점(五味店)에 이른다. 이곳은 함열현(咸悅縣) 관내이다

△ 함열현

오미점촌(五味店村)은 웅기 제조소가 있는 곳이다. 하루 평균 3~4개를 만드는데, 웅기 가격은 큰 것이 30문, 작은 것이 10문 내지 5문 정도가 된다고 한다. 누에봉=잠봉(蚕峰)이 솟아 있는데 소나무가 무성하다. 이 산의 남쪽 기슭에 소룡동(巢龍洞)이 있다. 이 마을 앞쪽에 있는 봉우리의 동쪽 기슭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나아가면 월운정(月云亭) 주막이 있다.

△ 임피현

월운정(月云亭) 주막을 지나서 1킬로미터를 가면 연봉리(蓮峰里)가 있다. 호구는 20 남짓이다. 또한 나무다리=목교촌(木橋村)을 통과하여 흙다리를 건너면 그 남쪽 들의 복판에 부름정=야정(冶亭)이 있다. 호구는 10 남짓이다. 이곳을 지나면 임피현(臨陂縣)에 이른다. 이 고장은 논도 밭도 충분하다. 그런데 논보다는 오히려 밭이 많은 까닭에 중간 지대가 온통 밭이며, 보리농사는 더할 수 없이 풍년이라고 한다. 일본 상인들이 눈을 조선의 서부로 옮겨서 장래 상업 기회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고조는 임피현(臨陂縣)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화물을 보내는 곳은 모두 인천(仁川)이며, 부산으로 우회한다고 한다. 부산항(釜山港) 상무(商務)의 관할이 광활함이 정말로 이와 같다. 그런데도 어찌 상업의 형세가 부진하여 화물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재갈 거리는 것은 아닌지? 적당히 관할 지역 안에서 나는 물건을 주워 모으기에 급급한 요즘에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제발 일본 상인들이 널리 눈을 서부로 옮겨서 장래의 상업 기회를 꾀하기를 바란다’

△ 옥구현

3, 8일에 장을 여는데 시장은 한적하다. 생업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용와산(龍臥山)이 가로놓여 있는데 소나무가 울창하다. 그 동쪽에 고개가 있는데 하루피=하산(荷山)이라고 부른다. 여기를 내려가면 아래쪽에 지경장터(地境場基)가 있는데, 호구는 30 남짓이다.

△ 만경현

남쪽으로 건너면 전주(全州)의 안에 신창(新滄) 주막이 있는데, 임피현 신창촌(新滄村)과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호구는 8~9호이다. 이곳에서 6~7백 미터를 남쪽으로 나아가면 왼쪽에 청하산(靑鰕山)이 우뚝 서 있고 소나무가 울창하다.

△ 김제군

김제군에서 동남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멀리 2킬로미터 떨어진 산기슭에 큰 마을이 있는데, 금구현(金溝縣) 관내인 강정리(江丁里)라고 한다. 호구는 100 남짓이다. 왼쪽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이 마을의 북부는 전주 지방에 속한다. 경지가 아득히 멀리 뻗어 있다. 이곳을 가로질러 행진하면 우측 남쪽 방면에 반월리(半月里)가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이곳의 동쪽 방면은 경지가 마을로 이어지고 있다. 보리농사가 무르익을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꽤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마을을 내려가면 평지가 나온다. 왼쪽에 여수애촌(如水涯村)이 있는데 호구는 40이다. 그 북서쪽에 있는 작은 들의 중턱에 3개의 점처럼 자리를 잡은 촌락이 있는데, 객간말(客肝末)이라고 부른다.

△ 금구현

구정리(九井里)가 있는데 호구는 40 남짓이다. 이 마을은 구성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촌락인데, 사금(砂金)을 캐내려고 시굴한 흔적이 있다. 그 상세(詳細)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1887년, 메이지 20년)까지 발굴을 했지만, 당시 감독관인 별장(別將)의 명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본디 발굴 중에 종사한 인부는 2백 명 남짓이었으며, 각자 자유롭게 발굴을 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발굴한 액수는 5푼 안팎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따로 확정된 물주[持主]는 없었지만, 한 사람이 한 달에 3문(匁)의 세금(税金)을 별장에게 납부하도록 정해진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금맥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연을 물었더니, 이곳은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발굴을 시도하여 과연 말대로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그 명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시 일으킬 수도 있을 터인데, 더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아는 바가 없다.

원평은 평상시에도 5~6호의 일용품 점포가 있다. 대체로 가옥 구성이 크고 상업의 형세가 활발하다. 이 고장의 상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매매한다고 한다. 그리고 4, 9일에 장[市]을 열어 약간 번성한 시장인데, 이곳에서 작은 칼과 그 밖의 부엌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놓아, 쇠불이의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 남쪽에 신장(新場) 주막이 있다.

△ 태인현

상두산(象頭山)의 서쪽에 대곡산(大谷山)이 우뚝 솟았으며 큰 소나무가 무성하다. 그 서쪽 아래에 통사동(通沙洞)이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이 산 서쪽 산맥에서 낮고 오목한 곳으로 가면 고개가 나오는데, 이곳을 승현(昇峴)이라고 부른다. 이곳을 넘으면 승치(昇峙) 주막이 나온다.

△ 고부군

입암(笠巖) 반등산(半登山)의 서쪽 기슭에 다가가면 고부군 선돌 마을=와석촌(臥石村)이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그 서남쪽 작은 봉우리 중턱에 신촌(新村)이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토양은 기름지며, 물 사정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선돌 마을=와석촌(臥石村)이 고부(古阜) 흥덕(興德) 두 현의 경계가 되어 있다.

△ 흥덕현

선돌 마을=와석촌(臥石村)을 지나 동남으로 5~6백 미터를 가면 태동(兌洞) 주막이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이 마을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오른편에 고부군(古阜郡) 변산(邊山) 두 산맥이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고, 중앙에는 여러 봉우리가 뿔 모양으로 튀어나왔다. 그 오른쪽에는 흥덕현(興德縣) 반등산(半登山)이 동서로 이어져 산맥을 이루며 멀리 가로놓여 있는데, 그 중앙이 가장 위로 솟아 있다. 그 오른쪽으로 멀리 서쪽 정면을 바라보면 부안현의 변산(邊山)이 남북으로 길게 우뚝 서 있는데, 꼭대기가 울퉁불퉁한 것이 색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7~8백 미터를 더 행진하면 봉양촌(峯陽村)이 있는데, 호구는 30 남짓이다. 그 오른쪽에 주암산(舟岩山)이 가로놓여 있다.

△ 고창현

관아는 반등산(半登山)의 동남쪽 산맥 작은 봉우리 사이에 점점이 흠어져 있다. 그 동쪽 위의 봉우리에 석벽을 쌓고, 바로 그 서쪽 아래 골짜기를 타고 넘어 관아가 서쪽을 바라보게 설치했다. 관할 지역의 총 호구

는 9백 남짓이며, 중심부는 150여 호에 지나지 않는다. 4, 9일에 장을 열어 여러 물건들을 경매한다. 생업은 농업을 전업으로 삼아서 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사람들의 기질은 순박하고 솔직하다. 생계는 부유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조금 기름지다.

야나기 무네요시, 전북의 특산품에 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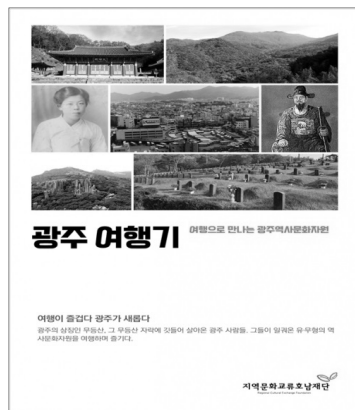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으로 불린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같은 조선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과 교류했으며, 그래서 조선을 종종 찾았다.

“조선이 발흥하고 일본이 쇠퇴해 일본이 조선에 합병되고 에도성이 폐허가 되어 일본총독부 건물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일본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1922년 일제의 광화문 철거에 반대하며 쓴 ‘장차 잃게 될 조선의 한 건축물을 위하여’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당시 이 문장은 검열 때문에 발행되지 못했지만 야나기의 조선 미술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표현으로 유명하다.

1957년 5월이다. 기차를 기다렸다가 다시 전주로 향했다. 이곳은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이번 여행에서 예정한 중요한 곳의 하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착하자마자 차를 상공장려관으로 몰았다. 일요일이기도 하고 이미 시간도 늦었으나 광주에서 미리 통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카즈[高津] 관장의 호의로 물품들

을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풍부한 창고였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물품에 우리들은 무의식중에 탄성을 질렀다. 석기, 목기, 벼루, 떡, 장도,



야나기 무네요시의 호남 방문을 소개한
광주여행기

부채 등 많은 것이 우리를 맞이했다.

특히 석기는 진작부터 우리가 구하려던 목기와 함께 전라북도의 특산품임을 알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은 벌써 그 산지로 달려가고 있었다. 석기는 장수(長水), 목기는 운봉(雲峰)¹⁰이다. 지도는 그곳의 길이 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다. 밤에는 이쵸오야[銀杏屋]에서 묵었다. 큰 여관이다.

5월 10일, 전주의 도청을 찾아갔다. 마쓰모토 씨의 소개로 손 지사와 김 산업과장을 만났다. 우리의 여행 목적에 대해 좋은 이해를 표시해 준 것은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한 대의 자동차와 한 사람의 안내자를 제공해 주고 자유롭게 조사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다. 이리하여 하루의 먼 길은 우리 여행에 다시 몇 가지 물품과 많은 기쁨을 더해 주었다. 우연히 안내하러 오게 된 박형진(朴衡鎭) 군이 뜻밖에도 전에 나의 강연을 듣고 저서를 애독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기우에 놀랐다. 박 군은 전에 대구에서 농촌의 부업에 힘을 다했다고 한다. 이 이상의 안내자는 없다. 박 군이 계획했다는 왕골의 슬리퍼는 모양도 세공도 훌륭했다.

차는 멀리 남원을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아 길 왼쪽에 닥나무를 뜨는 작업장을 발견했다. 배도 건조장도 모두 노천이다. 별로 큰 시설도 없다. 그런데도 여기서 천하제일의 종이를 생산하는 것이다. 닥나무 종이의 최상품은 전주에서 난다고 한다. 잠시 후 임실로 접어들었다. 다행히도 다시 장날을 만났다. 곧 네 사람의 눈이 바쁘게 돌아갔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큼직한 물건을 샀다. 하나는 대로 만든 새장이다. 길쭉한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한 칸 남짓할 것이다. 어떻게 이처럼 대담한 모양을 고안해 내었을까. 몸체 한가운데에 뚫린 네모난 창은 새들의 출입구이다(지금은 아마가타현 신쇼의 설해(雪害) 조사소 진열실에 있다). 또 하나는 길이 6척에 이르는 구유이다. 먹이통이 두 개 패여 있어 진귀하다.

자연목의 두 가지가 좌우의 발이 되어 받쳐 준다. 사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큼직한 키도 샀다. 키도 남한의 날개가 달려 있어 모양에 특색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임실의 것은 꼼꼼하게 잘 만든 데다가 재료가 좋아 빛깔도 아름답다. 사용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짠 값과 이것들을 바꾸었다.

임실에서 큰 고개를 넘어 장수면으로 향했다. 올라감에 따라 끝없는 시계가 눈 아래 펼쳐진다. 산은 이미 봄이 깊어 나무들은 서로 초록을 다투고 있다. 이렇게 길고도 아름다운 고개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장수의 석기(石器)는 어젯밤부터의 꿈이었다. 읍내에서 차를 내려 임명순(林明璫) 군수를 만났다. 석공의 집은 읍에서 20리 가량 떨어진 선창리에 있었다.

산 중턱을 달리는 길 왼쪽 아래로 멀리 몇 채의 집이 숨은 듯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보인다. 우리는 길이 없는 길을 헤치고 곧장 내려갔다. 아득히 건너편에는 구름이 걸린 산이 보인다. 그곳에서 돌을 캐어 이 마을로 운반한다고 한다. 기슭에는 널찍이 트인 논이 보인다. 비탈진 언덕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이 한촌은 쉬고 있는 것이다. 길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겨우 석공의 집을 찾았다. 주인은 돌을 캐러 산에 가고 없었다. 조그마한 일방에 몇 가지 소재와 두세 개의 간소한 도구가 널려 있다. 물건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나 마루에는 그가 깎은 멋진 가모가 난 화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조선 공예품의 불가사의함이 또 다시 되풀이된다. 누가 법을 전하고 누가 형태를 창조했을까. 실수로라도 추한 것을 만드는 일이 없다는 것은 어찌된 이유에서일까. 그러나 번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버렸다. 지금은 겨우 두 사람의 석공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수첩에 양해주(梁海珠), 최만영(崔萬榮)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서 그토록 많고 훌륭한 석기를 먼 도시에까지 보냈을까. 생각할수록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이 돌도 없는 일을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조선이 아니고서는 낳을 수 없는 훌륭한 공예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1년이나 걸리리라는 것도 잊고 많은 주문을 했다. 동시에 많이 써서 남은 물건들을 되도록 많이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뒤에 군수가 몇 상자나 되는 짐을 도쿄로 보내왔다). 우리는 멀리 이곳에 온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많은 추억을 남기고 이날 목계 될 남원으로 향했다. 이 오래된 도시는 많은 건물로 옛날을 말해 주면서 우리들을 맞았다. 이날 밤은 기쿠스이[菊水]라는 큰 여관에 유숙했다.

5월 11일, 오늘은 운봉으로 가는 날이다. 운봉 마을은 지리산 뒤에 있으며 옛날부터 목기(木器)로 유명하다. 둥근 찬합을 이곳에서 ‘운봉’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이름을 딴 것이다. 아마 원래는 불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부분은 승려들의 수공업이었을 것이다. 산내면에서는 지금도 일이 계속되다. 우리는 작업방을 찾아갔다. 대부분은 소나무를 재료로 쓰는 것 같다. 몇 개의 큰 나무가 뜰에 놓여 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한 자 정도로 잘라 물레에 건다. 모두가 생나무이다. 보고 있으려니 송진의 비밀이 강한 향기를 풍기며 우리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칼날 밑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생나무의 부드러움이 쾌적한 소리를 내며 깎여 나간다.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는다. 그대로 단숨에 만들어 버린다. 건조에 까다로운 우리들의 일과는 아주 다르다. 아마도 나중에는 갈라지고 모양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형태는 이와 같은 사정만이 보증하고 있지 않은가. 생나무만이 낳을 수 있는 형태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안

온함은 우리들에 대한 약이다. 목기에는 거의 모두 옷칠을 한다. 만드는 것은 주로 소반이나 공기나 대접 또는 밥통이다. 우리는 몇 가지 형태와 크기를 적어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만일 이런 마을에 며칠이고 머물 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많은 명기를 만났음에 틀림이 없다.

강을 건너면 입석리이다. 명찰인 방장산의 실상사가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우리는 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거대한 석조대장군의 마중을 받았다. 당당한 조각이다. 이런 유의 것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본 적이 없다. 시대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갈까. 이와 같은 사보(寺寶)는 없을 것이다. 절의 역사는 오랜 것 같다. 몇 개의 신라 석탑이 옛날의 신앙을 말해 주고 있다. 경내에는 전각이 적지 않다. 문 하나에는 ‘청룡급수 백호부신(靑龍汲水 白虎負薪: 청룡이 물을 길고 백호가 장작을 진다)’이라고 적혀 있다. 마음을 끄는 묘한 구절이 아닌가. 그러나 돌아다닐 시간도 충분히 없었다. 주지의 접대도 사양하고 우리는 갈 길을 서둘렀다. 오늘 열리는 전주의 큰 장에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남원을 거쳐 차를 달렸다. 남대문이 보이면 이미 전주이다. 누각 위를 쳐다보니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과 ‘풍남문(豐南門)’이란 두 현판이 걸려 있다. 안쪽에 있는 현판에는 ‘명석루(明石樓)’라 쓰여 있다. 이곳도 명필아구(名筆雅句) 고장이다. 상공장려관(옛날의 군청)에 걸린 큰 현판 ‘풍패지관(豐沛之館)’과 더불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장은 누문 밑에 널찍하게 펼쳐져 있다. 파는 소리, 부르는 소리, 말하는 소리, 웃는 소리, 거기에서 먹는 소리, 마시는 소리, 잡다한 소음 속에서 옷, 그릇, 물동이, 술, 장식품, 칼 등 온갖 기물이 흥정된다. 남자도 여자

도 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또 소도 돼지도 개도 닭도,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모조리 장을 향해 모이는 것이다. 살아 있는 조선을 보려면 장날을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넘칠 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싸리로 엮은 바구니, 징, 독, 항아리, 술병, 종이, 은세공, 죽세공, 합죽선, 단선, 참빗 등을 샀다. 실로 여행을 떠나 장날을 찾아다니기 9일 동안에 열두 번 전남·전북의 거의 대부분을 누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했다. 이런 혜택받은 여행을 언제 또다시 함께 맛볼 수가 있을 것인가.

전라도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다. 밤기차는 우리들의 꿈을 서울로 옮겨 주었다. ‘전라도의 골동품, 일본인 예술가를 사로잡다’ 야나기 무네요시의 ‘전라기행’(‘공예’ 82호, 1938.3, 도움=광주여행기)

*그는 1937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북을 방문했다.

때는 이때 5월 5일이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전남 장성 상오리에 있는 한지 만드는 곳에 갔을 때 주막집에서 김봉수를 만나 고창(고수도자기) 탁주잔을 소개받았다.

일정은 바꿨다. 아직 장성이 남아 있다. 장성은 전남에서 제일가는 종이 산출지다. 그곳에 닿은 것은 오후 3시가 거의 되었을 때였다. 다행히도 지업조합 이사 이정선(李廷善) 씨의 안내를 받아 종이를 뜨는 작업장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상오리라고 하는데 주로 온돌용 장판지를 만들었다. 작업장은 정말 볼 만한 것이었다. 길이는 겨우 두 칸 반 정도나 될까. 굵은 느티나무로 만든 두 개의 큰 디딜방아가 놓여 있다. 열 사람이 달려들어 방아를 밟아 공이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 무게로 포개

어진 장판지가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원시적인 힘으로 만드는 종이가 일본에는 없다. 지금은 새로운 법을 채용하여 건조할 때 철판을 사용하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두 야외에서 말렸다고 한다.

장판지는 두께에 따라 구별된다. 같은 전라도 안에서도 남도는 이것을 삼갑지(三甲紙) 내지 육갑지(六甲紙)로 나누고, 북도에서는 삼배지(三倍紙) 내지 팔배지(八倍紙)로 나눈다고 한다. 여기서 숫자가 붙어나는 것은 두께가 붙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을 먹인 이러한 종이로 조선의 방이 끝렸다. 이씨에게 안내를 부탁하여 그 집을 방문했다.

이름은 이치봉(李致鳳) 씨. 주인은 전에 구마모토[熊本]에 살았던 일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일본 사람들의 친절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당신들이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고 했다. 우리를 흔쾌히 안으로 맞아들여 술상까지 차리고 대접해 주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환대에 우리는 황송스럽기까지 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안마당에 있는 김칫독들과 외양간에 있는 여물을 담은 구유이다. 구유는 느티나무로 만든 멋진 모양의 것이었다(뒤에 이정선 씨의 알선으로 이 구유를 양도받았다. 지금은 민예관에 장식되어 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길가의 목로술집에 걸려들고 말았다. 술에 걸려든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는 그 백자 사발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두세 가지 물품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장성의 장날에도 나오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고창의 가마에서도 구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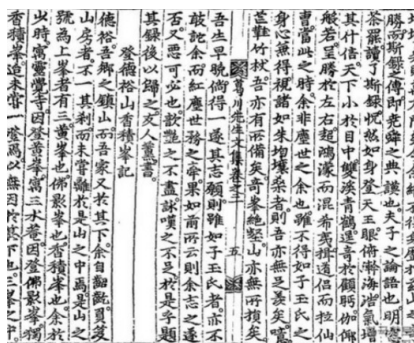
주저하지 않고 5백 개 분을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기꺼이 발송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날 장성에서 광주로 돌아왔을 때 밤은 상당히 깊었었다. 이즈미야 여관에서 잠을 잤다.

제 3 부

외국인들이 찾은
전라감영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峰記)’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

러운 등골을 닦았다.

이름에서도 넉넉함이 묻어난다. 덕유산의 원래 이름은 광여산(匡廬山)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병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안개가 자욱해져 산속에 숨어 있는 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안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고, 이것이 산 덕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덕이 많은 산’이라 하여 덕 덕(德)자에 넉넉할 유(裕)자를 붙여 덕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및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있는 덕유산(德裕山)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조선 후기 문인 허목(許穆, 1595~1682)과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덕유산을 우리나라 남쪽의 대표적인 산으로 일컬은 바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덕유산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듯하다.

덕유산에는 벌써 상고대가 내려 순백의 산을 뿜내고 있다. 겨울 산행의 백미, 덕유산이다. 눈꽃산행으로 겨울 등산객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

흰 소를 닮은 덕유산이 상고대만 빼고 모든 걸 내주었다.

덕유산(德裕山, 1,614.2m)은 크고 높다.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지만 어느 한 곳 거친 곳 없이 부드러운 산세를 지니고 있다. 향적봉에서 바라보는 덕유산 산줄기는 마치 소의 부드

다. 조선 선비들도 제법 찾은 듯하다. 조선 중기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고 남인의 정수였던 허목은 그의 문헌집 ‘기언’ 제28권 하편 덕유산기에 지리지 같은 글을 남겼다.

‘남쪽 명산의 정상 가운데 덕유산이 가장 기이하니, 구천뢰(九千磊) 구천동(九千洞)이 있고, 칠봉 위에 향적봉이 있다. 덕유산은 감음(感陰, 안음의 옛 이름이며, 지금 함양의 옛 지명)·고택(高澤, 전북 장수의 옛 이름)·경양(京陽, 금산의 옛 이름)의 여러 군에 걸쳐 있는데, 곧장 남쪽으로 가면 천령(天嶺)과 운봉(雲峰)이다. 지리산 천왕봉과 정상이 나란히 우뚝하며, 이어진 산봉우리에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또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가 300리나 서려 있다. 봉우리 위에 못이 있는데, 못가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자라는 나무는 특이한 향기가 풍기는 사철나무가 많은데, 줄기는 붉고 잎은 삼나무와 같으며, 높이는 몇 길이 된다. 못의 모랫가엔 물이 맑으며, 깊은 숲에서는 특이한 향기가 난다. 산을 오르는 데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감음의 혼천(渾川)을 따라 구천뢰 60리를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양의 자갈길을 따라 사자령(獅子嶺)에 올라서 이르는 것이다’

허목보다 앞서 갈천 임훈(林薰, 1500~1584)은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峰記)’를 통해 1552년(명종 7) 최초로 덕유산 유산기를 기록했다.

추석이 막 지난 음력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에 걸쳐 덕유산의 일출과 일몰, 향림의 경치를 만끽했다.

‘등덕유산향적봉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덕유산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교 유적, 식생, 지명 유래, 지리 등에 대한 정보가 그것이다. 그중 덕유산 지리 정보를 제시한 것이 백미다.

임훈은 향적봉에 올라 주변을 조망한 부분에서 김종직(金宗直)이 문

‘유두류록」(遊頭流錄)’에서 사용한 체계, 즉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교직하는 방식을 끌어와 덕유산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성을 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기존 체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유두류록’보다 한층 섬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지리 정보를 제시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 지리 정보는 신경준(申景濬)의 산수고(山水考)와 성해응(成海應)의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 같은 후대 문인들의 저술한 산지(山誌)에 수용되기도 했다.

이는 ‘등덕유산향적봉기’가 후대 문인들에게 덕유산 관련 긴요한 정보를 수록한 작품으로서 인정받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 이전에 누군가 올랐겠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가 올라간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유산기 초반부에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산에는 상봉(上峰)으로 불리는 봉우리가 셋 있으니 황봉(黃峰)·불영봉(佛影峰)·향적봉(香積峰)이다. 나는 어렸을 때, 영각사에 잠시 머물렀을 때는 황봉을 올라가 보았고, 삼수암에 우거하면서 불영봉에 올랐다. 오직 향적봉만은 지금까지 인연이 없어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내려왔다. 세 봉우리 가운데 향적봉이 가장 높으면서 경치가 뛰어나다고 한다. 내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것은 잊을 수 없는 한이 되고 있다. 내가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두 봉우리를 올랐던 것은 반드시 인연이 있어서인데, 비록 가장 아름다운 경승지라 하더라도 인연이 없었기에 아직 끝을 맺지 못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인생사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이 50세를 넘겨서 이미 몸이 쇠약해진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되니 한평생 하나의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인생사 한낱 보잘 것 없는 한 송이 눈과 같지 아니한가? 임자년(1552) 8월에 아우 언성과 효응이 두류산 유람을 계획하고 4, 5명의 동지들을 불러 날짜를 정하고 행장을 꾸렸다. 그 뜻이 매우 독실하고 기백이 매우 대단했는데 나는 슬프게도 몸이 쇠약해진 지 이미 오래되어 부득이 그 약속을 함께 할 수 없는 심정이다. 하지만 향적봉은 가까이 있으니 마땅히 한 번 오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오르기로 했다. (중략) 그리하여 삼수암의 승려 혜웅, 성통과 함께 오르기로 약속하고 탁곡암에 만나기로 하였다’

이 유람에는 동생들 대신 생질 이칭(李稱, 1535~1600)이 동행했다.

그리고 삼수암의 승려 혜웅(惠雄)과 성통(性通)이 안내자 역할을 했다. 유람 둘째 날부터는 전날 묵은 탁곡암(卓谷菴) 승려 옥희(玉熙)와 일선(一禪)도 함께해 일행의 유람을 도왔다.

임훈은 8월 24일에 길을 떠나 같은 달 29일 돌아왔다. 당시 그는 5년여 간의 성균관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1545년 낙향해 8년째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향집에서 길을 떠났을 그는, 첫날인 24일에는 탁곡암에서 일행과 만나 하룻밤 묵고 다음날 25일 향적봉 아래의 향적암(香積菴)에 도착한다.

이후 향적봉 부근에서 2박 3일을 머무르며 향적봉과 그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려 노력했다.

심지어 궂은 날씨로 인해 하산을 재촉하는 승려들에게 “며칠 시간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봉우리에 오르는 것이 내 뜻일세”라고 말하며 향적봉을 온전히 유람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상응하게 작품 속에는 향적봉을 유람한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임훈은 유람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승려들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 대화는 일종의 유람에 대한 총평에 해당한다. 나는 성통 등에게 말했다.

“이 산의 고고함과 웅장한 형세는 지리산에 버금가는데 세상의 유람객들은 두류산과 가야산(伽倻山)만 높이고 이 산은 언급하지 않소. 저곳들은 선현의 유풍

과 고적을 간직하고 있어 사람들을 우러러 사모하게 만들기에 그런 것이요. 이 산은 아직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애초에 이 산이 볼 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사물은 스스로 귀해지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귀해진다’라는 말이 옳소.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이 산에게 무슨 상관이었소. 산의 승경을 보고 마음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찌 선현의 유적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소. 세상의 무리가 선현의 유적만 좇고 산의 승경을 버리는 것은 잘못이오.” 성통이 말했다. “공의 말이 어찌 이 산이 알아주는 사람을 한 번 만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인용문에서 임훈은 덕유산에 주변의 지리산·가야산과 달리 유람객들이 찾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덕유산이 산의 가치를 알아준 선현의 자취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산의 가치를 알아준 선현의 유적이 있느냐와 무관하게 산의 승경을 완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산 그 자체임을 강조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통의 답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성통은 임훈의 말이 덕유산의 입장에서 볼 때 지우를 입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임훈의 말이란 ‘산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데 그 말을 실천한 인물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임훈이다. 따라서 성통의 답변에는 ‘임훈이 바로 덕유산을 알아준 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임훈은 승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덕유산을 알아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덕유산 발견자로서의 긍지를 표출한 셈이다.

그는 탁곡암에서 일행을 만나 1박을 한 뒤 장유암→해인사 터→지봉서쪽 등마루→향적봉 제3계→향적봉 제2계→향적봉 제1계→향적암 앞→하향적암→향적암→판옥→향적봉→지봉→탁곡암으로 다시 돌아온

듯하다. 등산코스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지만 하산코스는 안개와 구름이 잔뜩 끼어서 그런지 급히 내려간다면 유산기를 마무리해서 어느 코스로 내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의 유산기만 보면 정상 향적봉을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불명확하다. 하지만 ‘안개 낀 상태에서 봉우리에 닿으니 암석으로 만들어진 돌무더기가 작은 돌을 사용해 틈새를 채워 보충해 놓았는데 혹은 제단이 아닌가’라는 묘사를 보면, 지금의 향적봉 정상 비석 주변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임훈 일행은 지봉을 지나서 구천둔계곡으로 내려갔다.

‘골짜기가 끝나고 넘어진 회(檜, 노송)나무를 타고 넘어 계곡을 따라 가다가 물을 건너니 이곳이 곧 향적봉의 제3계이다. 개울가를 따라 1리쯤 걸어가다 보면 백암봉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모여드는 곳이 있으니, 이곳이 곧 향적봉 제2계이다. (중략) 이 계곡을 따라 산기슭을 행하여 1리 못미처 또 제1계를 건너니 여기가 곧 향적암 앞 아래다’

주목을 향목(香木) 또는 적목(積木)이라 하며, 그는 향림이 즐비하게 있으므로 산봉우리 명칭을 향적봉이라 했다고 했다. 향적봉의 유래다. 향적봉은 당시 명칭과 지금 그대로이다. 임훈의 향나무, 즉 주목에 대한 설명이다.

‘향목(香木)은 처음대로 넝쿨로 자라다가 해가 오래될수록 곧게 자라서 성목이 되면 절반은 땅에 눕게 되고, 비록 노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키는 몇 길에 불과하고 크기도 몇 아람에 불과하다. 나무줄기와 잎은 무리 중에서 뛰어나 만년송 같다. (중략) 이 나무의 지엽(枝葉)에서는 왜 달리 향기가 없느냐고 물어본즉 반드시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살게 될 때를 기다려야만 된다고 말을 하니 승려들은 온갖 것에 말들이 많아 가히 우습다’

중봉 올라가기 직전 드넓게 펼쳐진 덕유평전을 바라보고 있다. 뒤로 구름과 안개가 뒤섞인 산 그리메가 너울처럼 일렁인다. 오수자굴은 영락없이 사람의 눈을 닮았다. 어찌 보면 윗입술 같기도 하다.

이 커다란 바위에 어찌 이런 구멍이 생겼나 신기할 따름이다. 오수자굴은 조선 명종 때 광주목사를 지냈던 갈천 임훈이 ‘향적봉기’에 ‘계조굴’로 적은 곳이지만 오수자라는 스님이 이곳에서 득도했다는 전설이 있어 지금은 오수자굴로 불린다.

관수세심(觀水洗心), 관화미심(觀花美心), 관산개심(觀山開心)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산을 보면 이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관수(觀水)’라는 뜻은 ‘맹자’의 ‘진심장(盡心章)’에 연유한 것으로, ‘물을 보는 데(觀水)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흐르지 않는다(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는 글에서 따온 이름이다.

세상을 보는 일, 나 자신을 추스르는 방법을 일러주는 말씀인 셈이다.

‘물을 보고 마음을 씻고(觀水洗心)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觀花美心)’란 글귀를 마음에 새겼을 것이란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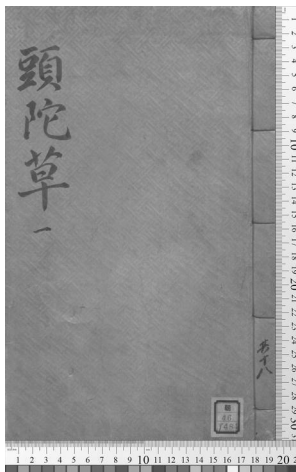
흐르는 물을 보면 언제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어느새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잡념을 모두 행군 채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겸양의 물보라를 만든다. 시나브로 한 송이의 꽃을 피운다. 마음이 순수해야 꽃을 보아도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내 마음꽃도 피어난다. 누구라도 보는 것이 아름다워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까닭이다.

산은 물과 꽃을 포용하며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올곧게 한곳에 심지를 굳히고 있다. 아무런 말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직하게 생명불이들을 잘도 지켜낸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치우치지 않고, 더 이상 혼란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향기롭게 사는 지혜를 삼백예순다섯 날마다 물과 꽃, 산을 통해 배우곤 한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들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다. 당신, 지금 ‘뭘 보고 있나’

이하곤이 1722년에 본 전라감영과 경기전

조선 후기 문인화가인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전라감사가 먹었던 밥상을 ‘찬품극정결(饌品極精潔)’이라 기록했다. ‘찬품극정결(饌品極精潔)’은 ‘음식에 극진히 정성을 다해 바르고 훌륭하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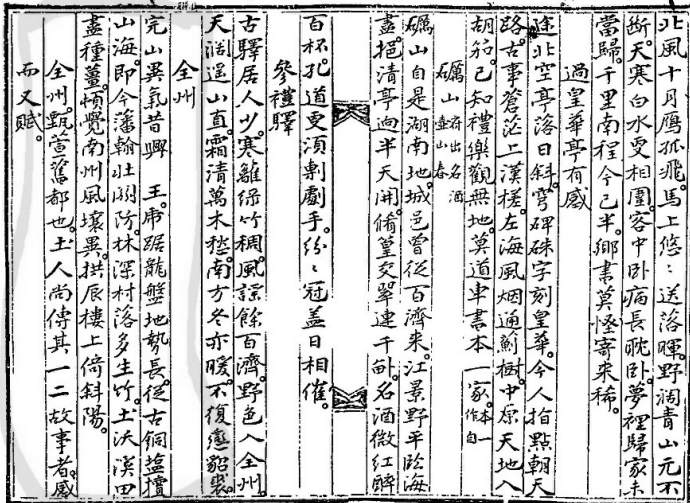
그는 1722년 10월 29일 전주에서 전라감사 황이장(1653~1728, 1722년 9월~1724년 1월 재임)으로부터 저녁에 술과 안주를 대접받았을 때 나온 찬품을 대하곤 이처럼 말했다.



이하곤의 두타초

담헌 이하곤 집안이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일대에 세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증조부 이시발(李時發, 1569~1611)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시발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두타산 아래의 땅을 하사받았다. 이시발은 지금의 청주 오근장 출신으로, 서계 이득윤 밑에서 수학했다. 조부 이경억(李慶億, 1620~1673)과 부친 이인엽(李寅燁, 1656~1710)도 잇따라 급제, 벼슬이 좌의정과 대제학에 이르는 등 명문가 명성을 이어갔다.

이하곤은 1677년(숙종 3) 서울에서 부친 이인엽과 모친 임천조씨의 사이에서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담헌은 문중 농장이 진천에 있는 까닭에 서울과 진천을 자주 오르내렸다. 두타초 등 그가 남긴 문집을 보면, 담헌은 그의 나이 25살, 29살 때 진천을 일시적으로 찾았고, 35살 때는 가족을 거느리고 하향했다.



이하곤의 두타초

담헌은 이때부터 초평 일대를 거주지로 삼았고, 완위각도 이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그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32세 되던 숙종 34년(1708)에 과거에 응시, 진사과에 장원 급제했다.

그러자 담헌에게는 ‘익위사세마’, ‘세자익위사부술’ 등의 벼슬이 잇따라 제수됐다. 이는 가족은 진천 초평에 거주하고 있으나 담헌 자신은 관료생활 관계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담헌은 두 차례의 관직을 모두 사양했고, 특히 ‘세자익위사부술’에 임명될 때는 병을 핑계대고 사직하고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정7품의 세자익위사부술은 글자 그대로 왕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으로, ‘훗날’이 보장되던 자리였다.

담헌은 이후로 줄곧 선대의 장원(莊園)과 숨결이 남아있는, ‘진천으로 완전한 낙향’을 꿈꿨다. 그러나 담헌이 처음부터 진천으로의 낙향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친구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은 담헌을 생

각하며 이런 글을 남겼다.

“경세제민을 스스로 기약하여 이미 治兵理財와 當世의 시무에 관한 군서를 박
람하여 두루 통섭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뛰어난 언변이 골짜기를 물이 터져 시
내가 흐르는 것처럼 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동계집 중 담헌애사〉

즉 담헌은 인품, 학문, 경륜, 문장을 두루 겸비한 무소부지(無所不知)
의 박학(博學) 군자를 이상적인 정치가상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헌은 복잡한 정치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담헌 자신의 가문은 소론이고, 스승 김창협과 장인 송상기는 노론계
였다. 뿐만 아니라 절친이자 문인화가인 윤두서(尹斗緒, 1668~1715)
는 남인계 집안이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세상이 어지러우니 참으로 출처가 어렵기도 하네(世亂方知出處難)’ —두타초
제2권

이라고 읊기도 했다.

1721년(경종 1)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소론의 지지를 받고 등극한
경종이 후사 없이 위증해지자 노론계는 연잉군(후에 영조)을 세제로 책
봉하자고 건의했다. 그러자 소론계가 반격을 가하면서 노론계 대신들
이 대거 숙청된다. 여기에 장인 송상기도 포함돼 있었다.

1723년에는 김석홍이 스승 김창협을 혈뜰는 상소를 올리자 스승에
대한 변무소를 올렸다고 탄핵을 받았다. 그는 그해 진천 초평으로 최종
적으로 낙향했다.

18세기 전복의 모습은 어땠을까. 충청도 선비 이하곤이 1722년 10
월 13일부터 12월 18일 까지 호남지방을 여행했다. 그는 ‘두타초(頭陀

草)’에 일정과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놔다.

그는 10월 13일 충북 청주를 출발, 27일 여산, 28일 삼례, 29일 전주, 11월 1~3일 금구, 금산사, 피향정, 무성서원을 여행했다. 전남지역을 돌아본 후 12월 7일 남원, 8일 오수, 10일~12일 전주 경기전을 둘러본 후 연산 개태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10월 27일 여산에서 호산춘(壺山春)을 맛보았다.

‘이곳 여산(礪山)으로부터 호남 땅이니, 성읍은 일찍이 백제시대부터 있었네. 강경평야가 바다에 닿아있고 읍청정(挹淸亭)은 하늘가에 우뚝 섰다. 우뚝 솟은 푸른 대나무 수 이랑에 이어지고, 호산춘(壺山春)을 마셔 약간 불그스레하지만 많이 마시면 취하네. 큰길은 빼어난 솜씨로 자른 듯 잘 나 있어 일산(日傘)과 가마 날마다 바쁘게 나다니네’

10월 28일엔 삼례 남동 삼십 리를 가서 전주에 도착했다. 서쪽 성으로부터 천천히 남문 밖의 박자룻이 우거하는 곳에 도착했다. 다음날 전주 경기전에서 첨지 이대, 감사 황이장을 따라 알현했으며, 아침을 먹고 민지수와 경기전을 찾았다.

그는 전각이 한양의 영희전(永禧殿)보다 낫다고 했다.

‘서쪽에 어정(御井)이 있었다. 깊이가 수십 척이 되며 벽돌로 쌓고 쇠로 덮개를 만들었다. 대개 성안의 샘물 맛이 모두 나쁜데 이곳이 가장 좋아 그 제일이라 한다’고 했다. 어정(御井)은 임금의 음식을 만들거나 임금이 마실 물을 기르는 우물을 말한다. 종묘(역대 여러 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왕실의 사당), 사직단(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인 사와 곡신인 직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등에서 임금이 참여하는 제례(제사)에 사용하는 우물도 어정이라고 한다.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셨던 경주의 집경전, 평양의 영승전, 전주의 경기전의 우물도 어정이라고 한다. 깨끗하고 성스럽게 취급해야 하므로 주위에 담을 두르고 문을 설치해 두기도 했으며, ‘여지승람’을 보면 ‘(전주)성 안에는 우물이 223개가 있었는데 이

것이 그중 첫째가는 우물이다’

고 소개된다.

전주시는 2004년 4월 20일 경기전 서쪽 부속 건물인 어정을 비롯, 수복청(守僕廳), 수문장청(守門將廳), 마청(馬廳), 동재(東齋), 서재(西齋), 제기고(祭器庫), 전시청(典祀廳), 용실, 조과청(造菓廳) 등 제사 관련 9개의 유물을 복원했다.

경기전 조경묘의 어정을 생각하면 고종황제의 딸 황녀 이문용(1900~1987) 여사가 생각난다. 그녀는 말년에 이곳에서 기거를 하였다고 하며, 10년 동안 어정을 사용했다.

그가 호남여행을 할 당시엔 전주성 안쪽엔 ‘회경루(會慶樓)’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다. 그 후 전라관찰사 서기순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으로 바꾼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주의 풍요로움 팔도에 드물고 토속 민풍이 서울과는 다르네. 추녀는 누런 머리카락에 말아 올린 머리 삐딱하고 약삭빠른 녀석은 하얀 얼굴에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평량자(平涼子, 패랭이) 쓰기를 좋아하고, 가게에는 모두 백산자(白散子)가 놓여 있네. 생강 수염으로 만든 김치 절임은 그 맛이 일품이니 북쪽 객은 새 맛을 보고는 돌아갈 길 모르네’

그는 전주 남박시장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평량자(平涼子)와 박산(薄散)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회경루에 올라 시장을 바라보니 수 만인이 모여 서 있는 것이 한낮의 서울 종로(鐘路)거리와 같았단다. 실제로 이증환의 택리지 전라도조엔 ‘전주가 서울과 다름없는 대도시(貨財委責, 與京城無異, 誠一大都會也)’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박산은 쌀밥과 엿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목판으로 종이

처럼 고루 얹다랴게 눌러, 네모나게 잘라 점점 타원형으로 하여, 네댓 조각을 겹으로 쌓아 하나의 떡을 만들었다. 이는 공사(公私)의 잔치와 고임상에 차려 쓰는데 오직 전주 사람들이 이것을 잘 만들었다고 했다.

12월 12일 일기는 또 전주지방의 ‘삼불여설(三不如說)’을 기록했다.

그는 당시 호남인들에게 삼불여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른 바 여자가 남자만 못하다(기불여남, 女不如男), 배가 무우만 못하다(이불여청, 李不如菁), 꿩이 닭만 못하다(치불여계, 雉不如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주에는 사불여설(四不如說)이 전하고 있다. 이는 양반이 아전만 못하다(반불여리, 班不如吏), 기생이 통인(通引)만 못하다(기불여통, 妓不如通), 배맛이 무 맛보다 못하다(이불여청, 梨不如菁),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안주만 못하다(주불여효, 酒不如肴) 등이다.

당시의 경기전의 모습도 흥미를 더하고 있다.

‘동각문을 거쳐 후원에 들어섰다. 나무 중에는 짧은 감나무가 많았다. 전복(展僕)이 “여름철에 풀이 사람 키 높이로 자라도 절대로 벌레나 뱀 같은 것이 없고, 비록 장마가 졌다 개어도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니 또한 지극히 이상하다. 북쪽으로 수십 보 지점에, 우뚝 자란 대나무가 하늘로 치솟아 어둠침침하고 청랭(淸冷)한 것이, 별경(別景)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니, 밖으로부터 바라보면 즉 감춰져 있어 끝내 이곳에 이 같은 아름다운 정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정을 바라보고 돌아와 재실에서 식사를 했다’

10월 29일 방문 시엔

‘평상시에는 연(輦)과 일산(日傘) 등의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정원과 뜰이 매우 넓다. 좌우에 8~9주의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줄기와 가지가 엉키고 구부러져 마치 규룡(虯龍, 용이 부르짖음)이 뒤엉켜 싸우는 듯하니 지극히 기이한 사물의 형상이다. 내가 민지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리품 값을 보상해주는

구먼” 하니 그 또한 웃었다. 어원(御苑)에 고목이 많고, 또 우뚝 솟은 대나무가
꽃꽂이처럼 서 있어 그 사이를 바라보니 비취빛이 가득했다. 이 날은 참봉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어용(御容)을 참배하지 못해 한스럽다’

고 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방문한 것 같다.

금산사 미륵전 장육불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11월 2일 금산사
장육불(丈六佛)의 엄청난 크기를 보고 작품을 남겼다. 장육불은 부처의
별칭으로, 그 키가 1장 6척에 몸이 황금색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
는 쇠로 주조했는데 높이가 20여 척은 되고, 아래는 철환(鐵鑊, 철가마)
으로 쌍받침을 했다고 했다.

‘호남에서 최고로 유명한 절은 금산사라. 첫 번째 보이는 건 동편의 장육불(丈
六佛)이라네. 손가락 끝까지 높이 뻗어야 좌대에 닿는 정도요’ 고개 들어 바라
보니 정말 태양이라도 가릴 듯하네. 장엄하게 치장하느라 신라, 백제가 이미 망
했으며, 창설의 공력 귀신에게 뺏길까 두렵네. 대중의 도움을 힘입어 세워진 줄
알겠으니, 명목(冥福)이 펼쳐져서 우리 백성들에게 미치리라.’

금산사 미륵삼존불은 이보다 앞선 1626년 조성됐으며, 미륵존상의
개금(改金)불사를 행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복장문(服藏文)을 봉안한
것은 1708년이다.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전라감영을 방문하다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단행본

의, 전쟁과 일제 강점기 이전의, 근대화가 이뤄지기 이전의 풍경이다. 두 권의 얇고 얇은 노트에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쓴 글 속에서, 조지 포크는 ‘숨겨진 왕국’의 생생한 초상을 남겼고 조선 왕조가 쇠약해지기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폭넓게 담았다. 조지 클레이튼 포크는 조선 왕조 공무원처럼 가마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 순간순간의 경험과 감정을 그의 일기에 담았다. 최초 공개된 기록을 통해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의 생생한 삶과 개화기 조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884년 11월 1일 미국 해군 소속 조지 포크 소위는 수도 한양을 출발하여 조선의 남쪽 지역을 관통하는 900마일(1,448km)의 고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길 위에서 보낸 44일 동안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두 권의 노트에 38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 여행기가 지닌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그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여행기는 포크가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그 어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지은이, 조지 클레이튼 포크, 옮긴이 조법종 우석대교수, 옮긴이 조현미, 출판 알파미디어)’는 조지 포크(1856~1893)가 900마일 가마 타고 44일 동안 기록한 조선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

포크는 묘사력이 뛰어난 글 솜씨로 여행했던 지역의 모습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려 냈다. 외세의 침략이 있기 이전

편 서양인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기록이다. 그는 조선 왕조의 고위 관리나 정부 관리가 하는 방식대로 가마를 타고 기나긴 여정을 소화해냈다.

1897년 10월 23일 자 미국 신문 선(The Sun)에 실린 거북선 그림, ‘조선 전함 거북선’을 보도한 1894년 기사의 후속 기사지만, 여기서는 거북선을 중국 배로 잘못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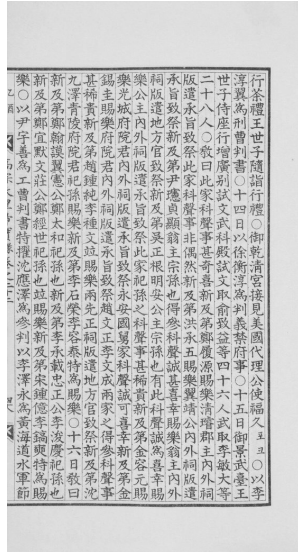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전에 기여했던 ‘한국 전함 거북선’을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한 자료가 발굴됐다.

전주는 조선시대 관찰사가 지금의 전북과 전남·제주를 총괄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곳이다. 1884년 11월 10일 전라감영을 방문한 포크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받은 아침 밥상을 그림까지 그려 소개했다.

‘콩이 섞인 쌀밥’ ‘무를 썰어 넣은 소고기 계란국’ ‘구운 닭’ ‘소고기 조각’ ‘김치’ ‘조개젓과 굴젓’….

조지 포크는 둥그런 밥상에 담긴 17가지의 음식을 그림까지 그려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적었다. “아침 10시에 엄청난 밥이 도착한다. 감사(관찰사)가 특별히 나에게 보내준 것이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밥상.”

전주시와 전주대 식품산업연구소는 1884년 주한미국공사관 대리공



고종왕조실록에 포크는 복구로 기록됐다

사였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일기장 등을 토대로 조선시대 전라도 식재료와 조리법을 연구해 관찰사 밥상을 복원했다.

‘폭신한 잠자리에서 잘 잤다. 파리가 많이 날아다녔다. 8시에 일어났다. 늙은 철학자의 사위가 불렀다. 나는 곧 그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를 만나 그의 존경하는 장인의 말씀을 듣고 친밀감을 느꼈고 그래서 어제 존경의 표시로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사위는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 그리고 조용하고 공손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는 내게 즐거운 사건이었다. 전라감영에서 전주 이남지역에서는 5푼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5푼짜리 동전 4,000개를 1푼짜리로 바꾸었다. 여기서 나는 나주(250)까지 갈 수 있도록 감사에게 1푼짜리 5,000개를 더 요구할 것이다. 감사는 어젯밤 내가 잠자리에 든 이후에도 계속 술과 음식을 보내왔다. 광주에서 가져온 편지에 대한 답례로 비장이 술 한 병과 품질이 좋은 감 한 바구니를 가져왔다. 9시에 아침으로 세이지 꿀, 밤, 감을 이 미 먹었다. 10시에 어마어마한 밥이 도착했다. 감사가 특별히 내 가슴까지 닿는 상을 보냈다.

숙소 마당에(이곳은 관리의 집이다) 당집 하나, 굳게 닫힌 작은 정자 하나가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안쪽에 그저 약간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했다. 주변 땅바닥으로는 모두 붉은색 벽돌 가루가 뒤덮였다. 그리고 이 집의 주춧돌에 세워진 기둥들과 현관에는 모두 이 붉은 가루가 뿌려졌다. 당집에 축제가 열릴 때나, 아니면 집안에서 종교적인 의례가 열릴 때 이렇게 뿌려진다고 했다. 안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 중이니 부정 탈 만한 것은 심지어 죽은 개나 황소를 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출입금지라는 표시였다. 정문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했다. 오전 11시에 문과 함께 사진 기구를 챙겨들고 어제 의견을 나눈 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 감영으로 갔다.(11월 11일 자 기록)

“오전 10시 아침상이 들어왔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 수많은 음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884년 11월 11일. 전라감영을 방문한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56~1893)가 쓴 일기 내용이다. 포크는 당시 상차림을 일기에 그려 넣고 음식에 번호까지 매겼다. 밥상 위에는 콩밥·소고기뭇국·닭구이·돼지고기구이·오리고깃국·평양·숯불고기·소고기전·수란·젓갈 등 9첩이 넘었다. 주한 미국공사관 대리공사였던 그는 당시 전라감사(관찰사) 김성근에게 음식을 대접받은 내용을 상세히 적었다. 포크는 전라감영에서 모두 8번의 음식 대접을 받았다. 그는 일기에 “저녁이 되자 나를 위한 연회가 열렸다. 상을 채우고 있는 둥글고 작은 접시에는 10명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이 쌓여 있었다”고 적었다. “이곳 감영은 작은 왕국”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던 포크의 조선 이름은 ‘복구(福久)’였다.

그는 11월 18일 고추장, 된장의 고을 순창을 지나갔다.

‘아마도 순창보다 작은 도시인 공주(公州)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여행 동안 지켜왔던 다른 어떤 곳보다 전체적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곳은 공주보다 컸고 나주보다는 세 배 정도 큰 것 같았다. 훌륭한 조선 고을이었다. 관리는 군수였다.

순창은 미소(miso, 일본된장)를 만드는 소스인 된장과 빨간 고추로 만드는 고약 같은 혼합물로 유명했다. 조선에서 최고였다. 고을 앞의(남쪽) 계곡은 좁았다. 그리고 동쪽 끝 뒤편에는 폭이 좁은 논밭이 펼쳐졌다. 이곳 부근 같은 평야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좁은 계곡은 산비탈 위까지 계단식으로 경작이 잘 되어 있었다. 북동쪽 끝에 있는 고을 초소를 지난 후 우리는 곧 많은 주막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다. 첫 번째 주막의 뒤편 오른쪽으로 돌워진 땅에는 탑의 상석과 일부분의 잔해가 있었고 그 근처에는 다른 돌이 있었다. 그런 모습이 이곳이 한때 절터였다는 것을 말해줬다.

오늘 밤 내 방은 특히나 원시적이다. 방은 가로 10피트3m, 세로 9피트2.7m 크기로 늘 그렇듯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선집에서 찾을 수 있는 자갈

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한쪽 구석에서는 한 통의 술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발효되는 중이다. 낡은 양말(버선)과 다른 옷들이 장대로 받친 선반에 쌓여 있고, 솜뭉치, 옷장, 낡은 돗자리, 바구니, 모자 상자 따위가 아무 데나 쑤셔 박혀 있었다. 몸을 누이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11월 18일자 기록)

남원 춘향의 이야기도 채록했다.

‘옛날 옛적에 남원 부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이 때 이름인 이도령으로 불리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아름다운 기생인 춘향이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다. 그런 후 부사와 아들은 서울로 갔다. 그리고 새로운 부사가 남원에 내려왔다.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기로 악명을 떨치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는 춘향을 원해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그가 묻자 그녀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5-6년을 가뒀 두고 때때로 불러서 매질을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이도령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과거시험을 통과하고 어사 벼슬을 얻어서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를 품고 전라도로 파견됐다. 그는 거지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남원으로 내려왔다. 부사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광한루에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웃 고을에서 관리들이 참석했다. 술, 여자, 밥, 그리고 시가 있는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졌다. 손님이 모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어사도 참석한다. 부사는 서둘러 하인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고 한다. 하지만 운봉* Unpong의 영장이 어사의 신분을 반쯤 알아차리고 말한다. “그를 머물게 합시다”(그의 주장은 그도 부사와 마찬가지로 남자이므로 그 역시 이곳에서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의 차림새가 거지같아서 한 명을 제외하면 어떤 기생도 그의 곁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어느 소녀가 곁에 있다면 술맛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옆의 기생이 그를 의심했다. 그는 운봉을 팔꿈치로 쿡 찔렀다. “쇠고기를 줌 주시오.” 운봉이 많은 양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다리를 뻗고 긴 소매로 고기를 쓸어버리고 관리의 얼굴에 국을 얹어 버렸다. 그는 시를 한 수

쓰겠다고 했다. 운봉이 그러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썼다.

“금잔의 술은 천인의 피요, 옥쟁반의 음식은 만인의 기름이다. 음악은 백성들의 신음이다”

운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시를 이해하지 못했다. 운봉영장은 “저는 이만 가 보겠소이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타고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이 왜 앞으로 가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바로 그때 어사 역시 자리를 뜨고 그의 일행들이 쳐들어와서 부사와 군중을 두들겨 패고 일부를 잡아갔다.

부사는 바지에 일을 보고 말았다. 임실의 현감은 쥐구멍에 머리를 처박아서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신기해했다. 어사가 의복을 갖춰 입고 돌아와 춘향이를 불렀다. 다른 기생들이 그녀가 쓴 칼을 벗겨냈다. 그는 모든 사연을 편지로 써 왕에게 보냈다. 왕은 춘향이를 어사에게 아내로 주고 관직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이도령의 일생에 관한 아주 긴 노래 소리의 일부분이다. 전라도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많았다.(11월 19일자 기록)

11월 8일 용안현감 부인의 성찬을 대접받다

11월 9일 임오군란에서 살아난 용안 현감과 작별하고 익산을 거쳐 삼례에서 자다

11월 10일 ‘사수’을 건너 전주에 들어서 전라감영을 방문하다

11월 11일 전라감영의 위용과 조선의 전통문화에 감동받다

11월 12일 전주를 떠나 금구현감을 만나고 원평에서 맛있는 밥을 먹다

11월 13일 아름다운 태인을 지나 정읍 군령다리 마을에 이르다

11월 18일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고추장, 된장의 고을 순창을 지나다

11월 19일 남원 만복사 유적에 매료되고 광한루 오작교 이야기 ‘춘향전’을
채록하다

11월 20일 남원 운봉 여원치를 거쳐 경상도 땅 함양으로 들어가다

러시아 카르네프 등이 1896년 전북을 찾다

러시아 참모 본부 소속의 육군 대령 카르네프와 미하일로프, 베벨리, 다데슈칼리안 등이 1896년 전북을 찾았다.

이 글의 저자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공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 전역을 여행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조선의 행정적 사회적 조직 체계와 민중들의 생활 여건과 생활양식, 관습, 기후, 지리 조건, 산업, 교통수단 등을 조사 및 관찰하였으며 역사를 뒤바꾼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본 그대로 기술하였다.



대한제국 수립 직전 러시아 정부가 파견한 러시아 장교 조선 탐험대의 생생한 기록. 동학 농민 운동, 갑신정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관파천, 단발령 등 역사 현장의 기록과 조선의 지리,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 등 격동기 조선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비숍에 앞서 한국을 찾았던 러시아의 첩보 장교 V. P. 카르네프는 ‘내가 본 조선, 조선인’이란 책을 통해 “조선인들은 손님을 좀 더 융숭히 대접하고자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방바닥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거의 고문과도 같았다”라며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 속에서 고생해야 했다”라고 온도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

카르네프 등이 전북을 찾다

동학혁명의 와중에 파괴된 무기 공장도 눈에 들어왔다.

‘…서울을 떠나기 전 나는 궁궐의 동벽 너머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하였다. … 목조 헛간에는 가틀링크 기관총과 강철로 된 무기 크루퍼가 모두 망가진 채로 버려져 있었다. 포가는 바퀴 없이 덩굴고 있었고, 망가진 기관총 두 자루는 부대와 함께 경주로 보내졌다고 하였다. 남의 나라 일이었지만 그렇게 스산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뒹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3월 17일 전주를 찾았다.

‘은진을 지나면서부터는 고갯길이 더 자주 나타났고, 산맥을 덮는 작은 산림들이 더욱 눈에 띄었으며, 전주 가까이의 계룡 산맥은 동남쪽으로 돌아서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었다. 평야에는 개간된 전답들이 있었고, 전답들 주위는 많은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3월 17일에 전주에 도착했다. 여자들이 조선어로 ‘창가 나물’이라고 하는 둥근 모양의 어린 풀들을 모으고 있었다. 이 풀을 물에 씻은 후 고추와 함께 찬물에 넣어 먹는다고 하였다.

전주는 조선에서 가장 큰 고을 중의 하나로 협곡에 위치해 있고, 곳곳이 부서지기는 하였지만 약 500년 전에 세워진 18피트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벽은 수많은 집들을 불태우고 파괴한 동학교도들로부터 이 고을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지금 이 고을에는 3,700가구에 2만 4,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많은 군중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우리를 뒤쫓아 왔다. 군중들 사이에서 들리는 “아라사(러시아), 아라사 좋다!”라는 환호성으로 보아 우리카자크인들과 소총이 그들의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전주 남부시장엔 문어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전주에는 장교 열 명과 병사 4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레밍턴 소총으로 무장한 채 주둔해 있었는데, 이들은 다섯 명의 일본 장교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일본 장교들 중 세 명은 1895년 11월에 떠났고, 나머지 두 명은 동학 혁명이 발생하기 직전인 1896년 1월에 떠났다.

‘이 고을에는 시조인 태조의 궁궐(=경기전, 慶基殿)이 있었다. 태조의 부모가 전주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궁궐에는 특별히 울타리를 둘러쳐놓았고, 큰방 중앙에는 왕좌의 천개(天蓋) 아래에 25년 전에 복원된 용두로 장식된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호감가는 얼굴에 가늘고 성긴 턱수염이 있었으며 귀가 크고 눈이 작은 노인으로, 가슴과 어깨 등에 왕실 문장이 세 개 박힌 푸른색 곤룡포를 입고 있었고, 뒤편에 날개 두 개가 달린 모자(=익선관)를 쓰고 있었다.

초상화 앞에는 돛쇠 향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장밋빛과 밝은 갈색이 나는 비단과 견사, 공단으로 만든 펼쳐진 우산 여섯 개와 새들과 용들이 그려진 큰 부채들이 걸려 있었다.

성벽을 따라 나 있는 남문(남부)시장에서는 청국과 일본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과 싱싱한 생선을 돛자리 위에 펼쳐 놓은 채 팔고 있었다. 잎이 풍성하고 싱싱한 단나물과 썩도 팔고 있었는데, 조선인들은 이것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 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문어도 팔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리 길이가 1.25, 머리의 폭과 길이가 6~7베르쇼크인 별종을 보기도 하였다’

순창에 가는 도중 닥나무로 만든 한지를 보고 3월 22일 담양에 도착해 보리싹의 푸른 물결을 구경한다.

‘여행 도중에 닥나무라고 불리는 키 큰 섬유폴로 종이를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풀을 뜯어서 종이를 만드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풀을 2주간 물에 담가둔 다음, 이것을 짜내어 솥에 넣고 24시간 끓인 후 찬물이 들어 있는 나무통에 넣으면 얇은 면화가 만들어진다. 그런 후 가는 돛자리가 부착된 나무틀에 얇은 면화를 부은 후 이 틀에 다른 틀을 부착시킨다. 틀을 뒤집은 다음, 둥근 막대기로 면화를 골고루 펴고 밑틀에 가볍게 누른다. 그러면 종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판에서 떼어내어 말렸다. 하루에 두 명의 일꾼이 300~400장의 종이를 만들고, 종이는 장 당 두 냥에 팔렸다.’

이들은 밤에 순창에 들어선다.

‘우리는 밤에 순창에 도착했다. 700가호에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소가 150마리 있는 작은 고을이었다. 군수는 없었고, 고을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나주의 동학교도들로부터 세 번 째이자 마지막으로 신들에게 가담하라는 요구와 이를 거절할 경우, 고을을 불태우겠다는 위협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동학교도들에게 가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심춘순례’와 전북

일제에 빼앗긴 국토를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 답사기 ‘심춘순례(尋春巡禮)’를 전라도인 시각에서 다시 본 책이 출간됐다.

‘쉽게 풀어 쓴 심춘순례(신아출판사)’가 그것. 이 책은 육당 최남선이 쓴 우리 국토에 대한 예찬의 글 ‘심춘순례’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제작업 한 안내서다. 지역민의 눈으로 보았기에 제대로 된 해제작업이 가능했고, 90년 전의 생생한 기록은 현재와 다시 조우했다.

육당은 석전 박한영과 함께 1925년 3월 28일부터 50여 일간 호남과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도인이라는 필명으로 ‘시대일보’에 그 순례기를 연재했다. 그리고 1년 후, 당대 최고 지성인들의 관심 속에 전반부의 기록을 모아 ‘심춘순례’를 펴냈다. 책에는 오세창의 제자와 고희동의 표지삽화, 정인보의 표제지가 실릴 만큼 이슈가 됐다.

육당의 ‘심춘순례’에는 1920년대의 전주 문화와 전라도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육당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역에는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3월 29일 익산, 30일 전주, 31일 수왕사와 금산사, 4월 1일 태인 동헌, 4일 내장사, 5일 줄포, 고부, 내소사 등, 6일 부안 실상사, 7일 부안 곱소, 8일 선운사, 9일 아산 입암마을, 고창읍 하거리 당산 등을 찾았다.

전주 꽃발정이의 유래를 알고 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병든 아버지와 효심이 깊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춘순례(신아출판사)

아들은 아버지의 병환을 고쳐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도 약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시름에 빠져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으로 활짝 핀 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 아들은 꽃을 찾아 전국 각지를 헤매었습니다. 이같은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어떤 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도인은 자신이 알려주는 곳에 가면 우물이 있고 그 곁에 꽃이 피어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가 알려준 곳으로 곧 달려갔고, 정말 우물가에 예쁜 꽃이 피어있었습니다.

그 꽃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리자 기뻐하셨고, 거짓말같이 아버지의 병환이 나아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우물이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위치한 근처에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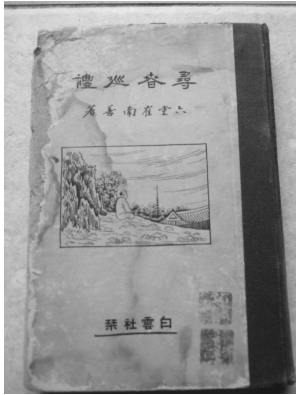
그래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꽃이 있는 우물(井)이 있는 곳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꽃밭정이를 지나다가 길가에 벌려놓은 엿이 하도 먹음직하기에 사 먹으며 보니, 엽전꾸러미가 의젓이 돈 무더기에 놓여있다. 아직 전주도 그런가하여, 당연할 일이건만 펍 의외로 생각된다. 다섯 냇이 일 전이라니 셋 값에 지나지 않을 까 했다. 흰 엿 무슨 엿 할 것 없이 보기에나 먹기에나 펍 만만한 것이 전라도 엿이요, 들깨쌈 콩쌈 따위 종류도 서울보다 많다. 콩나물이 연하고, 엿이 말쑥한 것은 아무래도 전라도의 특징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25년 3월 30일, 최남선의 눈에 비친 남부시장 장날 풍경은 장작, 종이, 대나무, 돌절구, 엿, 들깨쌈, 콩나물 등이었다.

“...장날이라 하여 집을 진 사람, 머리에 이고 오는 사람, 수레를 끄는 사람, 우마를 몰고 오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남문 거리를 지나...”

최남선이 1925년 경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남한 각지를 순례



최남선의 심춘순례

하고 쓴 ‘남도 기행문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때 전주 주변 각지에서 50에서 수백 명 단위의 장사꾼들이 장작과 종이, 대나무, 절구, 엿 등을 지게에 지고 오는 장면이 흔했다고 한다.

‘심춘순례’는 1925년부터 기록되어지는데 지금은 없어진 이리(익산)에서 전주까지 연결된 경편철도를 타고 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시 전주는 구 전매청 부지로 현재는 태평동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당시 전주는 호남선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서울에서 오는 교통편이 없어 불편했는데 경편철도는 호남선과 전주를 이어주던 동맥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책을 보면 익산에서 출발하여 대장춘을 지나 삼례역에서 숨을 고른 후 한내천을 건널 때 비비정과 호산서원을 바라보며 전주 입성을 기대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은 한내천 교량 위에 열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길이 바로 경편철로이다. 경편철도는 1914년 11월에 준공하여 1927년까지 13년간 운행하던 협궤열차였다.

육당은 경편열차를 “채신없는 값으로 어떻게 까불까죽하는지 마치 요망스런 방울 당나귀에 올라앉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고(故) 작촌 조병희 선생은 “그놈의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저저 광산에 있는 철도 정도나 되나요. 딸까닥 딸까닥 해요. 그것 하나 남겨 놓았으면 전주 물 건인디. 협궤차하고는 틀려요. 아주 좁아요. 광산철도하고 비슷혀. 기차는 화통이 쪽 나오고 눈이 어떻게 텔레비에 나오는 소리까지 땡기는디 그것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디를 갈 적에 우우하고 갔는디 탈선이 되었어요, 탈선이

되니까 모두 동네에 가서 막대기를 가져다가 올려 가지고 갔응께, 가히 짐작할 수 있지요, 뭐 도로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으니까나. 철도는 철도여. 뚜껑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덕진 어디로 가시고 하니 지금 국악원 요쪽으로 지났어요. 덕진 거기, 뽕뽕 소리 내고 헐 적에는 향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른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는 전 동국사 종결스님의 설명이다.

“전주역의 넓은 광장에서 짐 다툼하는 작은 지게꾼들의 수월치 않은 싸움통에 한참 우스운 괴로움을 겪고”라며 육당이 전주역에 내렸을 때의 풍경을 묘사한 글에서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전주역을 내리자 지게를 멘 짐꾼들의 모습과 전주성의 휘철한 길을 따라 남문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을 보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경편철도는 그 후 1927년에 철도국이 전북철도를 매수하여 경전북부선의 기존 철로를 광궤로 개축에 착수하여 1929년 9월에 완공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전주 이리 광개축 공사와 더불어 전주에서 순천 간 철도를 1936년에 준공하여 여수까지 이르는 노선을 ‘전라선’이라 명명했다.

경편철도가 광궤로 개축하면서 전주 역사도 한옥의 형태로 1929년 새롭게 완성되었다. 새롭게 부각된 노송정 전주역사 부근은 전주의 중심가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육당이 전주에서 모악산으로 가는 여정에 꽃밭정이를 지나는데 길가에 옛장수가 벌린 좌판과 엽전 꾸러미의 풍경도 재미있다.

모악산 가는 길 문정리의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세내 흐르는 큰 벌판(난전)이 시원하게 눈앞에 전개되는 모습도 생경하게 표현했다.

서울로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

합부대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회군한 원평 구미란에서 비장한 최후를 맞았다.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부는 사로잡혀 처형됐다. 녹두꽃이 지던 날 그들의 떠도는 넋 위로 파랑새의 슬픈 울음이 스쳐갔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육당 최남선은 30년 후인 1925년 봄 비극의 땅 전라도를 돌아본 소회를 ‘심춘순례’로 엮어냈다. 후백제의 왕도 전주를 옛 백제 땅 순례의 시발점으로 삼은 최남선은 오목대에 올라 ‘만 오천의 주민에 일명가(一名家) 일망사(一望土) 없음이 예와 같음은 어찌 된 일인지…’라고 탄식했다.

당시 육당은 모악산과 변산을 비롯, 백암산과 내장산, 선운산과 조계산을 넘었으며 무등산은 두 번이나 횡단했다.

‘모악산에 오르다’ ‘삼층 법당의 금산사’ ‘유근치 넘어 내장산’ ‘병바위를 지나고 고창을 지나’ ‘선운사와 도솔산’ 등 지역 곳곳에 대한 기록이 오롯하다.

금산사 만인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필자가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금산사 경내에 자리한 ‘만인교(萬人橋)’가 1920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고서(문화재청 발간, 2008년)’에 따르면 1920년 ‘만인교(萬人橋)’를 세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금산사조교기념비(金山寺造橋紀念碑)’가 세워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결과, 비가 너무 낡아 한자로 쓰인 ‘만인교’란 글자 외엔 판독이 거의 불가능해 탁본(탐본) 등을 통해 시주자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왜 이 곳에 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안필성이 만인교를 건립할 때 회사금을 많

이 났다는, 일부 자료만 확인된다.

‘가로질러 가는 시내 위에 변변치 않는 다리를 놓고, 이름만 작은 글씨로 만인교라 하여 기적비를 세웠다. 아무리 보아도 비에 든 비용이 다리에 든 것보다 몇 배였을 듯 한 것을 보면, 목적이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닌, 실상 비에 있음이 너무도 현저히 드러나 참 한심한 생각이 났다. 중들 이름 위에 직책을 쓰는데, 대본산 모, 연합장 모라고 한 점에 가뜩이나 아픈 허리가 거의 부러질 뻔하니 이 짓한 그네들도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최남선이 발간한 ‘심춘순례’에도 ‘만인교’가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건립 연도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안 내소사가 마을 당산제를 관여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1930년 무렵 내소사에서 스님들이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 당시 사찰 주도의 당산제에는 굿판이 없었고, 스님들이 염불을 하고 절을 올리면 주민들도 절을 하는 형태였다고 한다. 그 후 내소사 주도의 당산제는 치폐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와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다시 부활한다. 내소사 당산제는 주변의 석포·원암·입암 당산제와는 구별되는 사찰 중심의 당산제인 동시에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사찰의 배려가 깔린 내소사만의 독특한 포교 전통으로 보인다.

현행 내소사 석포리의 당산제는 2009년부터 내소사 바로 앞마을인 입암리 당산제를 근거로 복원된 것이다.

당산제의 대상인 당산은 수령이 500~700여 년 된 느티나무인데, 내소사 경내에 한 그루가 있고, 마을에 한 그루가 있다. 내소사 경내에 있는 당산나무를 ‘할머니 당산’, 입암마을에 위치한 당산은 ‘할아버지 당산’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당산나무를 ‘수목대신’이라고 축원했다고 한다.

할머니 당산나무는 그 모습이 꽤 오래된 형태였던 것 같다.

1925년 육당 최남선이 내소사를 찾았을 때, 입암리 당산의 모습을 보고

‘원시종교에 있는 제단의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 가진 모범적인 설비이다. 요만 치 구격(具格) 된 것은 보기 쉽다 할 수 없다’

고 ‘심춘순례’에 묘사했다.

최남선이 보기에는 입암리 당산의 제단 모습이 원시종교에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 정도로 꽤 오래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불교계의 큰 어른인 석전 박한영 스님을 모시고 다녔다. 전북 곳곳을 다니면서 천재도 모르는 처처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매일 기록한 글을 자신이 창간한 시대일보에 발표했다. 당시 열악한 교통과 통신수단을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기고한 글들은 한 권의 책 ‘심춘순례’로 탄생한다.

“곰팡내 나는 서적만이 이미 내 지식과 견문의 웅덩이가 아니며 한 조각 책상만이 내 마음의 발일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전주의 풍경을 재현하고 있는 듯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제 4 부

신선도 부럽지 않는 변산과 지리산

심광세의 ‘유변산록(遊邊山錄)’

‘유변산록(遊邊山錄)’은 1607년 심광세가 부안 현감으로 재직할 때 변산을 유람하고 그 절경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유변산록(遊邊山錄)’은 1607년(선조 40) 5월 예조 좌랑(禮曹佐郎)의 임기를 마친 후 부안 현감(扶安縣監)으로 부임한 심광세(沈光世, 1577~1624)가 함열 현령 권주(權澍), 임피 현령 송유조(宋裕祚), 부안 현 상사(上舍) 고흥달(高弘達), 동생 심명세(沈明世) 등과 함께 다섯 명이 변산을 유람한 뒤 그 기묘한 절경을 화축(畫軸, 두루마리 그림)으로 만들고, 그림마다 각각 서(敍)를 달아 변산의 명소를 설명한 글이다.

‘유변산록’은 1636년에 간행된 ‘휴옹집’의 초간본에는 실려 있지 않다가, 1875년(고종 12) 저자의 9세손 심경택(沈敬澤)이 목판 5권 3책으로 간행한 중간본에 수록됐다.

서문은 1635년에 이경식(李景奭)이 썼고, 발문은 1636년 이식(李植)이 썼다. 그리고 중간서(重刊序)는 1859년 심경택이 썼다.

‘유변산록’은 다른 기행문과는 달리 명소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동시에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림과 설명 뒷부분이 유실되어 전체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후일 유실된 자료가 발견된다면 우리나라 기행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작품이다.

‘유변산록’은 크게 9개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서두에서는 ‘유변산록’을 짓게 된 동기를 서술했고, 이어서 어수대(御水臺), 화룡연(火龍淵), 직연(直淵), 진선대(眞仙臺), 월정대(月精臺), 주암(舟巖), 용암(龍巖), 마천대(摩天臺) 등의 순서로 명승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단락에는 「유변산록」을 짓게 된 동기와 유람에 동행한 인물을 밝히고 있다. 둘째 단락부터 아홉째 단락까지는 각 명승지의 풍광에 대

한 묘사가 주를 이뤘다. 간혹 ‘어수대’나 ‘주암’ 등의 명승지는 명명된 유래를 밝혔다. 그리고 각 단락의 말미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접하고 탈속(脫俗)하고 싶은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유변산록’의 서문에는 그가 변산에서 매우 바쁘면서도 유람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전라도 부안현감으로 부안 고을을 맡은 이후로 공무가 너무 많아서 편하게 지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분주했다. 비록 변산을 유람할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럴 경향이 없었던 것이다. 마침 이웃 고을을 맡고 있는 2곳의 수령이 함께 찾아와서 “변산을 유람해 보자”고 했다. 내 평소의 생각과 딱 맞았기에 나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곧바로 가벼운 신발을 챙기고, 가마도 준비했다. 우리는 험한 길을 넘어가며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찾아다녔다. 어떤 때는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며 용이라도 웅크리고 있을 법한 깊은 연못을 엿보기도 했다. 이는 이전 사람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두루 밟으면서 물리도록 실컷 구경했다. 다만 관직에 매인 몸들이어서 각기 일들이 있는지라 아주 여유롭게 유람할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비록 기가 막힌 풍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대충 잠깐 훑어보면서 바삐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끝내 산신령에게 속물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렇지만 당시의 그 멋진 유람을 아무런 자취도 없이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두루마리를 만들고, 또 글로 적어서 훗날의 볼거리로 남겨두고자 했다.

때는 1607년 5월이고 함께 간 사람은 함열현령 권주(權澍), 임피현령 송유조(宋裕祚), 부안고을에 사는 진사 고흥달(高弘達), 내 아우 심명세(沈明世)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호빈거사(湖濱居士) 심광세(沈光世) 적는다’

그가 유람을 한 시기는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기 1년 전인 1607년 5월이었다. 그와 함께 유람을 간 사람은 함열현령 권주(權澍), 임피현령 송유조(宋裕祚), 부안고을에 사는 진사 고흥달(高弘達), 아우 심명세(沈

明世)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함열현령 권주와 임피현령 송유조 두 고을의 수령이 유람을 적극 권유했다.

이 5명의 산행은 외형으로는 매우 단출했지만, 내용은 매우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광세가 위의 서문에서 ‘험한 길을 넘어가며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찾아다녔다. 어떤 때는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며 용이라도 웅크리고 있을 법한 깊은 연못을 엿보기도 했다. 이는 이전 사람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다’고 쓴 것에서 바쁜 가운데 많은 곳을 보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광세는 “우리는 이곳저곳을 두루 밟으면서 물리도록 실컷 구경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직에 매인 몸들이어서 각기 일들이 있는지라 아주 여유롭게 유람할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여 대략 훑어보며 바삐 지나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심광세의 ‘변산유람’은 다른 사람의 유람에 비해 특별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유람을 마치고 작성한 유람록은 어느 누구의 유람록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심광세의 변산유람의 특징에 대해 “‘유변산록’은 그가 부안현감으로 있을 때 함열사군(咸悅使君) 권주(權澍)와 임피사군(臨陂使君) 송유조(宋裕祚) 등과 변산을 편력하면서 만든 것이다. 어수대(御水臺)·화룡연(火龍淵)·직연(直淵)·진선대(眞仙臺)·월정대(月精臺)·주암(舟巖)·용암(龍巖) 등의 기묘한 절경을 그려 화축(畫軸: 두루마리 그림)을 만들고, 그림마다 각각 서(敍)를 달아 변산의 명소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단순히 유람에 그치지 않고, 변산의 기묘한 절경이 있는 명소마다 그림으로 그리고 각각 서를 달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변산록’

에 나오는 “그렇지만 당시의 그 멋진 유람을 아무런 자취도 없이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두루마리를 만들고, 또 글로 적어서 훗날의 불거리로 남겨두고자 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명산을 유람하고 기록을 남긴 글은 수없이 많지만, 글과 함께 그림까지 그려서 남긴 경우는 전무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그림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온전히 남아 있다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림은 전하지 않고 명소에 대한 설명만 남아 있다. 이 설명을 모아 놓은 것이 결국 심광세의 ‘유변산록’이다. 하지만, 이 내용도 모두 전하지 않고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

직연에서 근원 쪽으로 올라가면 골짜기가 깊어지고 천석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 산에 사는 승려들도 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깊은 곳에 있는 진선대(眞仙臺)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쪽으로는 군산도(群山島), 왕등도(王登島), 구위도(鳩蟬島)의 여러 섬과 백암산(白巖山), 내장산(內藏山), 선운산(禪雲山) 등 산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신선이 있는가? 아니면 이곳에 노니는 사람이 진짜 신선인가라고 하여, 그곳에 노니는 사람이 바로 신선이라고 했다.

진선대에서 놀고 밤이 되어 내려오에 햇불을 잡고 가면서 묘적암(妙寂菴)에서 잤다. 이 암자가 이 산에서 가장 명당자리에 있다고 하니, 온산의 진면목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월정대가 암자의 뒷봉우리인데, 안계(眼界)가 진선대와 갑을을 다툼다고 했다.

월정대에서 내려와 묘적암을 거쳐 곧바로 지름길을 따라가면 실상동(實相洞)으로 나오는데, 몇 리 가지 않아 주암(舟巖)이라는 것이 있다. 동서로 절벽이 있고 석벽이 높이 감싸고 있는데, 온 산의 물이 이곳을 지나가므로 그 형세가 매우 빠르고 급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곁의 흙이

모두 깎여나가고, 물이 모여 못이 되었다. 10여 무쯤 되는 못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모습이 마치 배가 뒤집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암에서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몇 리 가지 않아 용암(龍巖)이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이름이 없었고, 이곳에 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난해에 자신이 이 산에 놀러왔을 때 우연히 이 길에서부터 마천대로 향하다가, 보고는 일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이곳을 변산의 유람하는 곳 중 하나로 삼았다고 했다. 대개 바위 모양이 용이 엮드려 있는 것 같아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곳의 바위와 물, 그리고 단풍 등이 아름다워 주암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용암에서 마천대(摩天臺)로 오르려면 길이 매우 험하고 높은데, 10여 리쯤 가면 비로소 그 정상에 도달한다고 했다. 마천대는 이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부르는데, 서남쪽으로 여러 산에 임해 있고, 동북쪽으로 바다와 육지를 굽어보고 있다.

호남과 호서의 수십 고을의 땅과 안면도 이하의 여러 섬을 모두 손으로 가리키며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천대에 대해 위치, 경관에 이어 그 대 아래에 의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의상암(義湘庵)이 있고, 그 앞에 큰 바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내용이 끊겼다. 마천대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셈인데, ‘유변산록’의 내용이 마천대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 심광세의 ‘유변산록’은 비록 미완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변산에 대한 많지 않은 유람록 가운데 하나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소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것인데, 그림이 전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는 ‘유변산록’의 글과 그림을 통해서 변산의 모습을 후대에 전하려

했는데, 그 까닭은 그곳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였다. 그가 용암을 설명한 부분의 말미에서

‘아아! 만약 이 바위가 기전(畿甸)에 있었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상하며 사랑하고 잇달아 칭찬하며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지만, 다만 궁벽한 바닷가에 있어서 매몰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고 아쉬워한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심광세의 ‘유변산록(遊邊山錄, 1607년 5월)’에 가마소계곡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동국여지지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어수대(御水臺)에서 십여 리를 가서 청계사(淸溪寺)에 이르렀다. 절 왼쪽에는 학봉(鶴峯)이 있는데 깎아서 세운 듯한 것이 만 길이나 되고, 푸른 학 한 쌍이 내려앉은 동지가 있다. 절 뒤에는 청연암(淸淵菴)이 있다. 절 앞으로 시내가 흐르고 그 상류에 청연(淸淵)이라는 못이 있는데, 못은 맑고 깊으며, 길이와 넓이가 수십 보는 될 만하며, 사방에는 큰 바위들이 에워싸고 있고, 물은 옥 같은 소리를 내며 흘러나와 그 바위 위로 평평하게 펼쳐져 발을 씻고 또 양치도 할만 했다. 억지로 십 리쯤 가야 비로소 화룡연(火龍淵)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늘 향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신령이 응답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화룡연을 보고 나서 뒤에 다시 왔던 길을 따라서 청림동(淸臨洞) 입구를 나와 십여 리를 걸어서야 비로소 실상사(實相寺)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서 청연은 가마소, 화룡연은 와룡소, 학봉은 병봉(안주봉)으로 추정되며, 청계사는 서운마을 기도를 지나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즉 학암(안주봉으로 추정됨)을 왼쪽에 두고 청계사(淸溪寺)가 있었다면, 청연암(淸淵菴)은 대밭 뒤 어디쯤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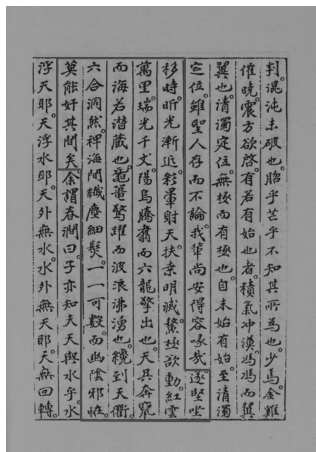
심광세는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자는 덕현(德顯)이며, 호는 휴옹(休

翁)이다. 예조 좌랑, 해운판관(海運判官), 부안현감 등을 역임했고, 시무십이조(時務十二條) 및 안변십책(安邊十策) 등을 건의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성묘하러 고향에 갔다가 행재소로 가던 중 부여에서 병사했다. 고성의 유촌서원(柳村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휴옹집(休翁集)’과 ‘해동악부(海東樂府)’ 등이 있다.

유몽인, 1611년 지리산을 찾다

‘어우야담(於于野談)’의 저자로 유명한 유몽인(柳夢寅, 1599~1623)이 53세 때 쓴 기행문 ‘유두류산록(流頭流山錄)’은 지리산 유람기의 백미로 전해져 오고 있다.

‘2월 초에 임지에 부임했다. 하지만 용성(현 남원)은 큰 고을이라 업무 처리에 정신 없이 바쁘기만 하다. (중략) 목동에는 수춘암이 있는데 그 수석이 매우 아름답다. 진사 김화가 그곳에 살면서 집을 재간당(在



유몽인이 1611년 지리산을 찾다

濶堂)이라 불렀다. 그 집은 두류산(頭流山) 서쪽에 있어서 서너 겹으로 둘러싼 안개 낀 모습을 누대 난간에서 바로 마주 볼 수가 있다. 두류산은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불렀는데,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에도 “방장산은 저 바다 건너 삼한에 있네”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한 시의 주석에는 “대방국의 남쪽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 살펴보니 용성의 옛 이름이 대방(帶方)이다. 그렇다면 두류산은 삼신산(三神山: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과 한무제는 배를 띄워 이 삼신산을 찾게 하느라 쓸데없이 공력을 허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얻고 있으니…’

남원수령으로 부임한 유몽인이 1611년(광해 3년) 지리산을 유람하고 쓴 ‘유두류산록’의 서문 중 일부이다.

두류산의 의미는 ‘백두대간[頭]이 흘러왔다[流]’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산 이름인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智] 달라진다[異]’는 의미이다. 유몽인은 두류산 곳곳의 경물을 눈에 보듯

실감나게 묘사했으며, 그 경물들을 통해 때로 자신만의 인생론을 펼치기도 한다. 또 용에 관한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무당을 싫어하는 유자(儒者) 특유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한편 천왕봉에 올랐을 때는 그곳 매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동정하기도 하여 치자로서 백성의 고통을 느껴 보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두류산에 대한 저자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대목도 탁월한 식견이어서 볼만하다.

‘내 발자취가 미친 모든 곳의 높낮이를 차례로 매겨본다면 두류산이 우리나라 제일의 산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인간 세상의 영화를 다 마다하고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직 이 두류산만이 은거하기에 좋을 것이다. 이제 돈과 곡식과 갑옷과 무기와 같은 세상 것들에 대해 깊이 알아 가는 것은 머리 허연 이 서생이 다룰 바는 아니리라. 조만간에 이 벼슬 끈을 풀어버리고 내가 생각한 애초의 일을 이룰 것이다. 만약에 물소리 조용하고 바람소리 한적한 곳에 작은 방 한 칸을 빌릴 수 있다면 어찌 고흥의 옛집에서만 나의 이 지리지(地理志)를 쓸 수 있겠는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은 야담과 우리나라 산천을 두루 유람하며 기록을 남긴 유몽인은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에 오른 뛰어난 문필가이자 외교관이었지만 역모죄에 몰려 처형되어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

‘월락동을 거쳐 황혼동을 지났다. 고목이 하늘에 뿅뿅이 치솟아, 올려다봐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밝은 대낮일지라도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월락동·황혼동이라고 부른다. 와곡(臥谷)으로 돌아들자 수목이 울창하고 돌길이 험하여 더욱 걷기 힘들었다’ — ‘유두류산록’

음력 4월 2일(양력 5월 13일) 아침, 지금의 와운마을 인근 어딘가로 추정되는 월락동·황혼동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선 유몽인 일행은, 곳곳

에 쓰러져 가파른 돌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고사목의 가치를 제거하거나 비켜가느라 엄청 힘든 산행을 했다.

또 ‘수십 리에 걸쳐 굽이굽이 뻗은 시내’라는 표현으로 보아 계곡을 따라 길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날 유몽인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하여 정오 무렵에 갈월령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고개는 동선 상으로 보아 현재 전북 남원 산내면과 경남 함양 마천면의 경계를 이루는 삼정산능선(중북부능선) 상의 영월령으로 추정된다. 약 5km 정도 뒹직한 거리를 무려 대여섯 시간이나 걸려 올랐으니 그 고단했을 유람이 짐작된다.

갈월령을 넘어서서 유몽인 일행이 도착한 영월암은 깊은 산중에 있는 작은 암자이지만 우리나라 불교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 공간이다. 유몽인은 이곳에 머물고 있던 ‘선수(善修)’라는 승려와의 만남을 전하고 있다. 법호가 부휴(浮休)로 부휴선수대사(1543~1615)로 잘 알려진 이 고승은 벽송사를 창건한 벽송지엄대사의 법손으로 벽송대사의 법맥을 이은 부용영관의 제자이다.

부용영관은 두 명의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는데, 바로 서산대사로 잘 알려진 청허휴정과 부휴선수이다. 이 두 고승 역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훗날 청허계와 부휴계라는 법맥을 이루게 되며, 이 두 문중에서 배출된 승려들에 의해 조선 불교가 지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청허휴정은 사명유정, 소요태능, 청매인오, 편양언기 등의 제자를 두었고, 부휴선수의 제자로는 임진왜란 후 화엄사, 쌍계사, 해인사를 비롯한 대가람의 중창불사를 주도한 벽암각성이 있다.

지리산에 머물고 있던 부휴선수는 1612년(광해군4) 미친 승려의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나왔다고 하는데, 유몽인이

‘이름난 승려 선수가 이 암자에 사는데, 제자들을 거느리고 불경을 연역하여 사방의 승려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영월암에 주석하고 있을 때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부휴선수는 조계산 송광사에 머물다가 1614년 지리산 칠불암으로 옮긴 후, 이듬해 7월에 입적하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영월암에서 만난 지 1년 뒤인 1612년 4월 5일의 ‘조선왕조실록’ 기사가 흥미롭다.

‘김직재 사건’과 연류되어 국문을 받고 있는 부휴선수와 남원부사에서 물러나 있다가 예조참판으로 제수되는 유몽인의 이름이 나란히 올려져 있다.

유몽인은 지인들에게 지리산 유람을 청하며 이런 문구를 이어갔다.

‘술이 좀 거나해질 때, 내가 술잔을 들고 좌중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봄에 두류산을 마음껏 유람하여 오랫동안 묵은 빔을 좀 갚고 싶었소. 누가 나와 함께 유람하실 분이 계시오?” 유몽인과 선비들은 여러 차례 편지를 교환한 후 재간당에서 모일 것을 기약한 후 만났다. “3월 28일. 처음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모였다. 기생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모두 실컷 취해 버렸다. 그러기를 한밤중까지 계속하다 그대로 시냇가 재간당에서 잤다.” “3월 29일. 요천을 따라 내려가다 반암을 지났다. 때는 멋들어진 풍경 속에서 꽃들이 활짝 피었고, 밤사이에 내린 비도 아침이 되자 맑게 개어 꽃을 찾는 흥취가 손에 잡힐 것만 같다. 낮에는 운봉과 황상의 비전에서 쉬었다”

그리고 곳곳을 실감나고 감질나게 잘 기록하고는 그의 유람기 마지막에 “두류산이 우리나라 제일의 산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인간 세상의 영화를 다 마다하고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직 이 두류산만이 은거하기에 좋을 것이다”라고 지리산에 대한 총평을 남겨 놓았다.

■1611년 어우당 유몽인 선생의 [두류산록] 지리산 유람 일정

- 2/23(한식) : 한식이 가까울 무렵, 승주(昇州) 수령 순지(詢之) 유영순(柳永詢)과 재간당에서 만나 두류산 유람 약속.
- 3/27 : 승주(昇州:순천) 수령 순지(詢之) 유영순(柳永詢) 만남
- 3/28 : 남원관아→김화의 재간당(1박)
- 3/29 : 재간당→반암→운봉 황산 비전→인월→백장사(1박)
- 4/1 : 백장사→황계→영대촌→흑담→환희령→내원→정룡암(1박)
- 4/2 : 정룡암→월락동→황혼동→와곡→갈월령→영원암→장정동→실덕리→군자사(1박)
- 4/3 : 군자사→의탄촌→원정동→용유담→마적암→송대→두류암(1박)
- 4/4 : 두류암→석문→옹암→청이당→영랑대→소년대→천왕봉→향적암(1박)
- 4/5 : 향적암→영신암→의신사(1박)
- 4/6 : 의신사→홍류동→신흥사→만월암→여공대→쌍계사(1박)
- 4/7 : 쌍계사→불일암→화개동→섬진강→와룡정→남원 남창(1박)
- 4/8 : 남창→숙성령→남원부 관아

두류산 유람을 떠나기로 지인들과 약속하고 지리산 백장사에 들다.

‘나는 벼슬살이에 종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낸 것이 벌써 23년이다. 스스로 헤아려보니 외람되게 청현직(淸顯職: 지평 헌납 장령 등)에 있으면서 임금 계신 곳에 출입한 것도 오래되었으니, 불초한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이었다. 이제 늙은 데다 잔병이 잦아지니 물러나 유유자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평소 산과 바다를 즐겨 유람하였으며 굴·유자·매화·대나무 등이 어우러진 시골에서 살고 싶었다. 만력(萬曆) 신해년(1611년, 광해군 3년) 봄에 벼슬을 사양하고 식구들을 거느리고서 고흥(高興)의 옛날 집으로 향하려 하였는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정의 대부들이 내가 아직 상늬은이가 아닌데도 미리 물러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용성(龍城:남원)의 빈자리에 나를 추천하여 은혜롭게도 수령으로 임명됐다. 나는 용성은 고흥과 1백 리도 채 안 되는 거리이므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행장을 풀어놓고 쉬어가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였다.

2월 초에 임지로 부임했는데 용성은 큰 고을이라 공문을 처리하는 데 정신없이 바빴다. 게으르고 느긋한 나로서는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식(寒食)이 가까울 무렵, 승주(昇州:순천) 수령 순지(詢之) 유영순(柳永詢)이 용성의 목동(木洞) 선영에 성묘하러 왔는데, 나는 불초한 내가 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으니 나보다 선배인 순지에게 예모를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목동 수용암(水春巖) 근처 수석의 빼어난 경관에 꽤나 마음을 기울였다. 진사 김화(金渾)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집의 이름을 재간당(在澗堂)이라 하였다. 재간당은 두류산 서쪽 기슭에 있어, 서너 겹으로 둘러쳐진 구름 깎은 봉우리를 누대 난간에서 마주 바라볼 수 있었다. 두류산은 일명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하여, 두보(杜甫)의 시에, ‘방장산은 바다 건너 삼한에 있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주석에 ‘방장산은 대방국(帶方國) 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 살펴보니, 용성의 옛 이름이 ‘대방(帶方)’이니 그렇다면 두류산은 곧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진시황(秦始皇)과 한 무제(漢武帝)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삼신산을 찾게 하느라 쓸데없이 공력을 허비하였는데, 우리들은 앉아서 이를 구경할 수 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내가 술잔을 들고 좌중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올 봄에 두류산을 마음껏 유람하여 오랜 소원을 풀고 싶는데 누가 나와 유람하시겠는가?” 라고 하였다. 순지가 말하기를, “내가 영남 지방의 감사로 나왔을 적에 이 산을 대략 유람했지만 종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방면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다가 내가 승주로 부임해오게 되어 우연히 이 산과 이웃하게 되었소.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어찌 혼자 쓸쓸히 유람을 할 수 있겠소? 그대와 유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소.”라고 하였다. 드디어 굳게 약속하고 술자리를 파하였다. 그 뒤에 여러 번 서신을 교환하며 재간당(在澗堂)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

3월 27일 정묘일. 순지가 약속한 날에 도착하였다. 28일 무진일. 처음 약속했던 장소에서 다시 모여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기생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모두들 실컷 취하고 한밤중이 되도록 술자리가 이어져 그대로 시냇가 재간당에서 잤다. 29일 기사일. 수레를 준비하도록 하여 서둘러 떠났는데, 순지는 술이 덜 깨 부축해 수레에 태웠다. 재간당 주인 김화(金渾)와 순창(淳昌)에 사

는 내 집안 생질 신상연(申尙淵)과 천한 몸에서 난 인척 생질 신제(申濟)도 나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요천(蓼川)*을 거슬러 올라 반암(礪巖)을 지났다. 온갖 꽃이 만발하는 철인 데다 밤새 내린 비가 아침에 개이니, 꽃을 찾는 흥취가 손에 잡힐 듯하였다. 정오 무렵 운봉(雲峯) 황산(荒山)의 비전(碑殿)에서 쉬었다.

만력 6년(1578년, 선조 11년) 조정에서 운봉 수령 박광옥(朴光玉)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로소 비석을 세우기로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대제학 김귀영(金貴榮)이 기문(記文)을 짓고,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 글씨를 쓰고, 판서 남응운(南應雲)이 전액(篆額)을 썼다. 지난 고려 말 왜장 아기발도(阿只拔都)가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영남 지방을 침략하였는데, 그가 향하는 곳은 모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나라의 참위서(讖緯書:비결서)에 “황산에 이르면 패하여 죽는다”라고 하였는데, 산음(山陰) 땅에 ‘황산(黃山)’이란 곳이 있어 그 길을 피해 사잇길로 운봉 땅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때 우리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황산의 길목에서 기다리다 크게 무찌르셨다. 지금까지 그 고을 노인들이 돌구멍을 가리키며, ‘옛날 깃발을 꽂았던 흔적’이라고 한다. 적은 군사로 감당하기 어려운 적과 싸워 끝없는 터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어찌 단지 하늘의 명과 인간의 지모 이 둘만을 얻어서이겠는가? 그 땅의 형세를 살펴보면 바로 호남과 영남의 목을 잡는 형국이다. 길목에서 치기에 편한 것이, 바로 병가(兵家)에서 말하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지난 정유년(1597년, 선조 30년) 왜란 때, 양원(楊元) 등은 이 길을 차단할 줄 모르고 남원성을 지키려다 적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 어찌 땅의 이로움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비석 곁에 혈암(血巖)이 있었는데 이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 바위에서 피가 흘렀는데, 끊이지 않고 샘처럼 솟아났다. 이 사실을 서울에 알렸는데 답변이 오기도 전에 왜적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였다’라고 하였다. 아! 이곳은 태조대왕께서 위대한 공을 세우신 곳이니, 큰 난리가 일어나려 할 때 신이 알려준 것인가 보다.

운봉 수령 백소(伯蘇) 이복생(李復生)이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역참(驛站)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술을 몇 순배 돌리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 함께 길을 떠났다. 시내를 따라 10여 리쯤 가니 모두 앉아 구경할 만한 곳이 있어 수레에

서 내려 시냇가에 앉아 쉬었다. 북쪽으로부터 산세는 점점 높아지고 길은 점점 험난해져, 말이 끄는 수레에서 남녀(藍輿)로 바꾸어 타고 백장사(百丈寺)*로 들어갔다. 순지는 숙취가 아직 풀리지 않아 먼저 불전(佛殿)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코를 고는 소리가 우레처럼 들렸다. 어린아이가 꽃 두 송이를 꺾어 가지고 왔다. 하나는 불등화(佛燈花)라고 하는 꽃인데 연꽃만큼 크고 모란꽃처럼 붉었다. 그 나무는 두어 길이는 뽕직하게 높았다. 다른 하나는 춘백화(春栢花)였다. 붉은 꽃받침은 산에서 나는 찻잎처럼 생겼고 크기는 손바닥만 했다. 병풍과 족자에서 본 것과 같았다. 절의 위쪽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천왕봉을 바로 마주 보고 있어 두류산의 참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 요천(蓼川)은 섬진강의 지류들 중 하나로서 남원시의 중앙부를 지나 남서부의 금지면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다. 하천 주위에 여뀌꽃이 많이 핀다하여 蓼(여뀌 요)川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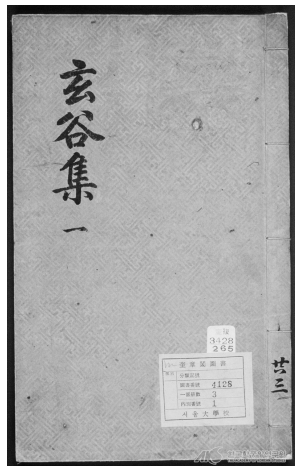
* 백장사(百丈寺)는 실상사에서 남원 인월 방향 국도로 3킬로미터 정도 가다가 백장휴게소가 있는 매동마을에서 우측 산도로 1킬로미터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위한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이 1618년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을 지었다.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 임진왜란 때는 김덕령을 따라 종군했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주부·감찰 등을 지냈고, 1613년 계축 옥사 때 파직 당했다. 인조반정으로 재등용되어 장령·집의 등을 지내다가, 1624년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토벌에 참여해



공을 세웠고, 병자호란·정묘호란 때도 항전했다. 벼슬은 공조참판·자헌대부·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광해군의 폭정과 혹독한 부세(賦稅)를 개탄하여 그 정경을 자세히 엮어놓은 가사 작품 ‘유민탄(流民歎)’을 지었다고 하나 전하지는 않는다. 저서로 ‘현곡집’, ‘기행록(紀行錄)’, ‘최척전(崔陟傳)’이 있다.

남원부사로 부임하였을 때 지리산을 유람하고서 유람록인 ‘유두류산록’과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 중 장편 시 ‘유두류산백운(遊頭流山百韻)’이 유명하다.

유람록은 ‘유람의 동기→일정별 유람 기록→유람의 총평[후기]’ 등 유람에 따른 시간적 기록의 총칭이다.

‘유두류산록’은 이러한 형식에 맞춰진 유람 기록으로, 일기체 형식의 산문으로 되어 있다. 유몽인은 남원부사로 부임한 1618년 인근의 순천 지역 수령인 유영순(柳永詢, 1552~1630) 등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다. 유

람 일정을 살펴보면, 남원 관아를 출발하여 운봉→함양 영원암→군자사→
쑥밭재→천왕봉→세석평전→영신암→의신사(義神寺)→신흥사(新興寺)→
쌍계사(雙溪寺)→불일암(佛日庵)→화개→구례를 거쳐 귀가하였다.

지리산 유람은 주로 천왕봉을 등정하거나 이상향인 청학동을 찾아가
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유몽인은 이 둘을 모두 겸한 유람이었다.
함양에서 천왕봉을 오르는 코스는 함양 군자사와 용유담(龍游潭)을 거
쳐 곧장 천왕봉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유몽인은 지리산의 동
쪽 권역인 쑥밭재와 증봉, 하봉을 거쳐 천왕봉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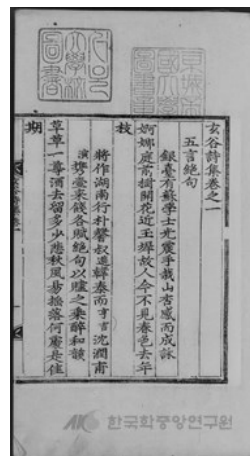
*지리산 산행일자 : 1618년 4월 11일~17일

*산행코스 : 남원~구례~화개~쌍계사~불일폭포~신흥사~남원

*특 징 : 불일폭포 주변의 경관묘사가 뛰어나며 향로봉과 백학봉 등
주변 산세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한편 불일암 외에도 인근에 있는 여러
암자들의 거론이 관심을 끈다.

*수록 문집 : 현곡집(玄谷集) 14권.

무오년(1618년, 광해군 10년) 2월에 나는
서울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남원(南原)에 잠시
와 살게 되었다. 동생 현주공(玄洲公) 조찬한
(趙繼韓)이 또한 토포사(討捕使)로서 삼남 지
방을 다스리고자 먼저 남원에 와 있어 서로 떠
돌아다니는 중에 다행히 만나게 되니, 영원
(鵠原)의 아주 기이한 일이었다.



조위한의 현곡집

내가 현주공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방(帶方)을 왕래한 것이 몇 번이 되는지 모르는데 끝내 방장산(方丈山)을 유람하지 못한 것은 공무에 매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속의 인연이 끝나지 않아 요마(妖魔)가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 진시황과 한무제가 일생동안 힘들게 찾았어도 이 산이 어디에 있는지 끝내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중국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산의 존재를 아득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삼신산(三神山)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이 어찌 여름 벌레가 얼음을 알지 못하고 하루 사는 버섯이 초하루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다행히 동방에 태어나 이 지방에 와서 날마다 방 안에서 안석에 기대어 창문으로 삼신산을 바라보고 있네만 아직도 발품을 아끼고 있으니 한 번 올라가 노닐며 실컷 자연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 어찌 마음을 씻어내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돌아가 지인들에게 변명할 말도 없을 것이네. 게다가 그대는 공무가 한가하고 나도 지병이 조금 나았으며 시절은 화창하고 꽃구경하는 때도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 한가한 틈을 타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뒷날을 또 어찌 기약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현주공이 말하기를,

“저의 뜻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침 경상 병사(慶尙兵馬) 남이흥(南以興)과 쌍계(雙溪)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공무를 겸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쌍계로 가기로 정하였다.

4월 11일 경자일. 맑음.

남원 부중(府中)에서 현주와 말을 타고 순자강(鶉子江)으로 오니 방

원량(房元亮)이 먼저 중주원(中酒院)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양동애(梁東崖)가 뒤따라 왔다. 이 두 사람과는 모두 약속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배에 올라 나루를 건너 말을 타고 7, 8리 정도 가니 강가 언덕에 정자가 우뚝 서 있었다. 주변의 고목과 푸른 등나무, 그리고 수석이 자못 빼어났는데 고인이 된 참판(參判) 김계(金啓)의 이른바 수운정(水雲亭)이라는 곳이였다.

말에서 내려 정자에 올라 주변을 관람하고 되돌아서 곡성(谷城)으로 가는데, 고을 수령 최호(崔皐)가 서울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관사가 적막하게 비어 있었다. 반나절 동안 심심하게 있다가 현주가 먼저 절구 한 수를 짓고 나는 동애(東崖) 양자발(梁子發)과 함께 화답하였다.

이 고을 사는 상사(上舍) 김련(金鍊)이 자식과 조카들을 데리고 안건(安健)에 이르렀다가 모임에 왔다. 저물녘에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홍원(金弘遠)도 초대를 받고 왔다.

12일 신축일. 맑음.

나는 방원량과 먼저 상사 김련의 집으로 갔고 현주는 담양부사를 전송하고 뒤따라 왔다. 술이 세 순배 돌았을 때 현주가 먼저 나가고 나는 방원량과 뒤따라갔다.

강을 따라 30리를 가니 가파른 길과 위태로운 잔도가 매우 험했다. 바람에 흔들거리고 매우 가파른 것이 단양(丹陽)의 영춘(永春)에 뒤지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다만 사군(四郡)만을 거론하고 이 협곡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 강산의 절경도 시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압록진(鴨綠津)에 이르니 동애가 옥천(浴川)에서 먼저 곧바로 강가에 이르러 악사를 시켜 피리를 불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배에 올라 술을 준비하게 하니 곡성 관아 기생 두 명이 와서 배에 올랐다. 그들에게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강가를 오르내렸는데 흥이 가라앉지 않아 배 안에서 각자 읊시 한 수 씩 짓고 배에서 내려 다시 협곡을 따라 30리를 갔다.

줄줄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 구례현(求禮縣)에 들어가서 시 몇 수를 짓고 고을 수령 민대륜(閔大倫)과 조출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이날 밤은 가랑비가 잠시 내렸다.

13일 임인일. 맑음.

아침에 아전 요간(了簡)을 광양(光陽) 사는 심생(沈生)에게 보내어 산 중에서 만나기로 기약하였다. 현주가 먼저 출발하고 우리 세 사람은 또 협곡을 따라 30리를 가서 바위기둥을 만나 길을 돌아가니 무너진 성돌과 허물어진 보루에 방어하는 곳이 있었는데 훌륭한 경치와 기이한 모습은 비록 수백 개의 효산(嶠山)과 함곡관(函谷關)이 있더라도 이보다는 낫지 못할 것이다.

바위기둥에서 협곡을 따라 20여 리를 가서 화개동(花開洞)에 들어갔다. 대체적으로 이 협곡은 옥천에서 화개에 이르는 110리 길을 강을 따

라 가거나 때로는 돌아가게 되는데, 돌길과 우뚝 솟은 바위, 푸른 강과 흰 돌들이 곳곳마다 사랑스러웠고 도중에 만난 외딴 마을은 무릉도원 같아서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화개동 입구에서 악양(岳陽)으로 곧장 가는 길을 버리고 작은 지름길로 들어갔는데 큰 개천이 팔팔거리며 산중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었다. 개천을 따라 10리를 갔는데 계곡은 휘돌고 바위들은 모습을 바꾸어 비단 같은 바위와 옥 같은 꽃들이 굽이굽이 다 기이한 절경이었다.

말이 가는 대로 천천히 보면서 실컷 즐겼다.

무릉계(武陵溪)에 이르니 이곳에 사는 승려 십여 명이 나와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토포사께서 이미 병사(兵使) 나리와 석문(石門)에서 모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듣자마자 가마를 타고서 시내를 건너 몇 리를 더 가서 석문에 이르렀다. 우러러 우뚝 솟은 바위들을 바라보니 나란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오른쪽 바위에는 석문(石門)이라고 새기고 왼쪽 바위에는 쌍계(雙溪)라고 새겨놓았다. 네 글자의 필세가 마치 용과 뱀이 올라 움켜 질 듯하고 칼과 창이 비껴 꽃혀 있는 듯이 삼엄하였으니 최고운(崔孤雲)의 필적이었다.

병사와 만나 시냇가 바위 위에 앉아서 술상을 차렸는데 진주 기생 예닐곱 명이 보석들을 치장하고 각각 노래를 부르거나 가야금을 뜯거나 피리를 부니 물소리와 서로 섞여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절의 승려들이 앞뒤로 빙 둘러앉았는데 그 중에 옷이 매우 깨끗하고 눈빛이 빛나는 이가 있었다. 범명은 각성(覺性)이라고 했는데 경서에 통달하고 글을 볼 줄 알아서 불가의 대승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제자 이백 명을 데리고 신흥사(神興寺)에서 설법을 해 왔는데 우리들이 산에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와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병사는 먼저 절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들은 둘러앉아 바위 위에서 시를 짓고 뒤따라 들어갔다. 고목 천여 그루가 그늘을 드리우고 몇 그루의 동백나무에는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절 앞에 돌거북이 지고 있는 오래된 비석이 있는데 길이가 한 길은 넘어 보였으며 ‘진감대사비명(眞鑑大師碑銘)’이라는 제목에 당나라 광계(光啓) 3년(887년)에 세운 것으로 글과 글씨 모두 최고운의 자취였다.

누각에 올라 주연을 열어 기악과 노래를 실컷 하며 기생들은 앞에서 번갈아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깊은 밤 밝은 달빛 아래에서 한껏 취한 뒤에야 자리를 파하였다.

14일 계묘일. 맑음.

병사는 진양(晉陽)으로 돌아가고 각성은 신흥사로 돌아갔다.

정오에 가마를 준비하여 불일암(佛日庵)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심생이 광양에서 젊은 노새를 타고 백 리를 달려서 아침 일찍 당도하였으니 기이한 일이었다. 다섯 사람이 각자 가마를 타고 법당 뒤쪽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니 정상이 너무 험해서 부여잡고 오를 수가 없었다. 가마 메는

승려들은 풀무질하는 소리를 내면서 헐떡이고 소금기가 등에 배었다.

대여섯 걸음 가는 사이에 어깨를 바꾸고 다리를 바꾸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통에 왼쪽으로 거꾸러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 가마 타는 고통이 가마 메는 것보다 뒤지지 않았다.

한 치를 나아가고 한 자를 물러나며 힘들게 팔구 리를 올라가니 벼랑이 끊어져 나무를 잘라 길을 이어 놓은 곳이 몇 군데 되었는데, 굽어보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계곡인지라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듯싶었다. 가마에서 내려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은 채 포복으로 간신히 벼랑에 붙어 건넜다.

불일암에 도착하니 절은 오래되었는데 승려는 없고 단청은 떨어져 나가 있으며 빈 감실(龕室)은 고요하고 창문은 영롱하였다. 오른쪽에 청학봉(靑鶴峯)을 마주하고 있는데 구름을 끼고서 푸른 절벽이 뾰족하게 서 있었다. 승려가 말하기를,

“바위틈에 청학 한 쌍이 항상 등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었는데 바로 고운(孤雲)이 말을 타고 왕래하던 곳입니다. 천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 탈 없이 보존되고 있었는데 불행히 이 산에 놀러 왔던 어떤 영남 유생이 돌을 던져 상처를 입은 뒤에 날아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아래에 계곡이 있는데 청학동(靑鶴洞)이라고 했다. 만 길이나 움푹 들어가 있어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소나무, 삼나무, 회나무, 잣나무가 어둑하게 가리고 있고 다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할 뿐이었다.

왼쪽에는 향로봉(香爐峯)이 청학봉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웅장함이 서로 대등하였다. 불일암에서 동남쪽으로 백 걸음쯤 가서 향로봉에 못 미쳐 긴 폭포가 솟아 나와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날아다니는 물살과 이리저리 튀는 물방울이 숲을 씻어내고 계곡에 메아리치며 우르릉대는 것이 마치 수많은 우레가 이 계곡의 하늘에서 내리치는 것 같았으니 참으로 천하의 장관이었다. 송악(松岳)의 박연폭포와 그 순위를 다투 만한데 골짜기의 장관은 박연폭포도 미치지 못할 듯싶었다.

절 앞에 십여 명 정도 앉을 만한 누대가 있는데 바위에 ‘완폭대(翫瀑臺)’ 세 글자를 새겨놓았으니 역시 고운이 직접 쓴 것이었다. 다섯 사람이 누대 위에 둘러앉아 잔을 씻어 술을 따르고 기생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공에게 피리를 불게 하니 그 소리가 구름을 뚫고 나가 골짜기에서 메아리로 화답하였다. 가슴속이 상쾌해져서 훌쩍 세속을 떠나고픈 생각이 들었는데 어슴푸레하게 바위구멍에서 최고운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누대 앞에 고목들이 둘러서 있는데 앞에 지나다니는 유람객들이 겹질을 벗기고 이름을 새긴 것이 매우 많았으니 심지어 30년 전의 것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심생과 방원량(房元亮) 군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을 찾으려고 절벽을 따라 내려갔는데, 방군은 중도에서 돌아오고 심생은 끝내 바닥까지 가서 다 보고 왔다. 함께 나지막하게 시를 읊고 경치를 감상하면서 해가 지는 줄을 알지 못했다.

시 몇 편을 짓고 왔던 길을 되짚어가다가 한 가닥 좁은 길을 찾아내서 풀을 헤치고 덩굴을 제치며 곧장 몇 리를 내려가 옥소암(玉簫庵)에 닿았다. 암자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데 절벽을 뚫고 허공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난간을 설치해서 아득하게 허공에 떠서 새가 나래를 펴고 있는 것 같아,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해서 일반적인 승방이나 절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 암자는 담양 선비 이성국(李聖國)이 이 산에 들어와 이십 년 동안 도를 닦다가 재산을 다 털어 절에 시주해서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옷을 벗어 놓고 피곤해 누워 시를 짓고 돌아와 가마 타고 곧장 내려가니 마치 구렁이나 우물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수백 걸음 가서 영대암(靈臺庵)에 닿았고, 수백 걸음 더 가서 불출암(佛出庵)에 이르렀다. 이 두 암자는 모두 험한 골짜기 위에 있어서 한 점 속세의 먼지가 없었으나 옥소암에 비한다면 풍격이 한참 못 미쳤다. 불출암에서 또 1리쯤 가서 쌍계로 돌아와 묵었다.

15일 갑진일. 맑음.

일찍 길을 나서 무릉교(武陵橋)를 건너 신흥동(神興洞)으로 들어가니 계곡이 깊어질수록 모습이 달라졌다. 옥빛 땅과 금빛 모래를 밟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옥빛의 못물은 곳곳마다 절경이었으니 금강산 만폭동(萬瀑洞)과 서로 비슷하다 할 수 있겠으나 웅장하고 다채로운 모습은 더 나았다.

말에서 내려 돌 위에 앉아 실컷 바라보다가 진양에서 온 아이에게 물 속에 들어가 헤엄치게 하니 또한 기이한 볼거리였다. 십여 리를 쉬지 않고 가서 신흥동에 도착했다. 계곡 입구에 삼신동(三神洞)이라고 새긴 돌이 서 있었고 홍류교(紅流橋)를 건너자 시내 주변에 또 세이암(洗耳嶺)이라고 새겨 놓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고운의 글씨가 아니었다. 시냇가에 능파대(凌波臺)의 옛 터가 있었는데 누대는 없어지고 잡초가 우거져 보이지 않았다.

각성(覺性)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맞이하여 가마를 타고 절에 들어갔다. 절 앞 높은 누대에 앉았는데 누대는 넓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연못은 크기가 작은 배를 띄울 만했다. 깎아지른 듯한 기이한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신령스러운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와 상쾌한 기운이 몸을 휩싸고 도는데 마치 찬란한 누각, 달빛 스며드는 전각에서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깨닫지 못하는 듯 황홀했다.

각성이 차를 대접한 뒤에 법당으로 인도하였는데 갖가지 색채가 휘황찬란하게 용 비늘을 비추고 있었다. 젊고 환한 승려들 수백 명이 나한(羅漢)처럼 둘러서 있는데 모두 각성의 제자들이었다.

승려가 밥과 나물들을 차려 주었는데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족했다. 진양 기생들을 먼저 보내고 각자 시를 한 수씩 지어 각성에게 주었다.

계곡을 나와 돌아가려는데 심생은 뒤에 남아 이곳에서 묵었다. 돌아오는 길에 사나운 바람이 계곡을 흔들어 놓아 다들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갓이 날리고 옷이 찢어져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아마도 지리산의 신령이 속된 발자취가 영험한 땅을 더럽힌 것에 분노해서 용과 바람을 시켜 그 먼지를 떨어버리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강가에서 말을 쉬게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 현주를 먼저 보내고 나와 방군은 말을 타고 용두정(龍頭亭)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지세가 아주 장쾌하였으니 용두정이라는 이름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계속해서 저물녘에도 바람이 세게 불어 곧장 구례로 가서 묵었다.

16일 을사일.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중방리(中方里)를 거쳐 성원(星院) 정랑(正郎) 최유장(崔孺長)의 우거(寓居)에 들어갔다. 시냇가 돌 위에 앉으니 주인이 술상을 차려와 오래도록 답소하다가 시를 지어 그에게 주었다. 현주는 먼저 숙성치(肅星峙)를 넘어 남원으로 가고 양자발은 울치(栗峙)를 넘어 술산(述山)으로 돌아갔다. 나는 방군과 함께 둔산령을 넘어 저물녘에 말을 달려 월파현에 이르러 묵었다.

17일 병오일. 맑음.

내가 남원으로 돌아오니 현주도 부중(府中)에서 와서 만났다.

18일 정미일. 비움.

말을 보내 동애를 맞이하였고 기행에 대하여 오언 고시 한 편씩을 지었다.

19일 무신일. 맑음.

산에서 지은 시의 초고들을 점검하니 칠언 율시 각 열 편, 오언 율시 각 스무 편, 칠언 절구 각 세 편, 오언 고시 각 한 편, 모두 백두 편이었는데, 모아서 책 한 권을 만들어 보기 편하게 하고 현주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해서 앞에 붙였다.

20일 기유일.

현주는 완산(完山)을 향해 떠나고 동애도 술산으로 돌아가고 나만 홀로 이 외딴 남원에 남아 쓸데없는 두레박 신세 같았다. 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져 돌아다니다가 형제를 만난 것은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 드문 일이었고, 함께 삼신산을 노닐면서 더구나 시우(詩友)가 되었으니 천년에 한 번 얻기 어려운 기이한 모임이었다.

그렇건만 유람을 다하지 못하고 공무는 일정이 있기에 이를 동안 산속에 있으며 고상한 감상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는데 멀리 이별하게 되어 급히 이 즐거운 모임을 떠나게 되었으니 아! 슬프지만 어쩌면 여기에도 운수가 있는 것인가? 만나고 헤어짐은 알 수가 없고 인생은 유한하니 뒷날 친밀하게 한곳에 모이는 일은 쉽게 얻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럭저럭 이번 유람의 앞뒤를 기록해서 뒷날 열람할 것으로 삼는다.

한편 ‘쌍계사차기암운(雙溪寺次畸庵韻)’이 조위한의 시문집 ‘현곡집(玄谷集)’ 권3에 수록되어 있다.

조위한은 1618년(광해군 10)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쌍계사(雙溪寺) 방면을 유람하고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을 남겼다. 당시 쌍계사 등지를 3일 동안 두루 둘러보았는데, ‘쌍계사차기암운’은 아마도 이때 지은 듯하다. 정홍명(鄭弘溟, 1592~1650)의 시에서 차운하여 지었다.

철연절구의 구성법에 맞게 지은 한시로 총 2수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시는 작자가 지친 말을 타고 쌍계사로 향할 때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산승도 자신을 알아보고, 산새도 자신을 알아본다고 표현하여 이전에 쌍계사에 와 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의 시에서는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의 문장과 글씨에 대해 유심히 살피면서 최치원을 회상하는 감정을 노래하였다.

권마투고사(倦馬投孤寺) 지친 말을 타고 고즈넉한 절로 드는데
 등등협로지(登登峽路遲) 가도 가도 협곡 길은 더디기만 하구나
 산승인전도(山僧認前度) 산승은 전에 온 나그네인 줄 알아보고
 곡조사상지(谷鳥似相知) 골짜기 새도 아는 사이인 듯 지저귀네
 석각삼장극(石刻森長戟) 돌에 새긴 글씨는 긴 창을 벌여 놓은 듯
 비문동색사(碑文動色絲) 비석에 새긴 글은 오색실로 수를 놓은 듯
 비음구연저(悲吟久延佇) 슬픈 마음으로 읊조리며 오래도록 서서
 종일비심사(終日費深思) 하루 해가 다가도록 깊은 생각만 하였네

앞의 시는 제2구와 제4구에 각각 ‘지(遲)’, ‘지(知)’의 운자를 썼고, 뒤의 시는 제2구와 제4구에 각각 ‘사(絲)’, ‘사(思)’의 운자를 썼다.

이 작품은 조위한이 쌍계사를 유람할 때 느낀 정서와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를 보고 느낀 감상을 노래한 한시로, 시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 조위한의 산수 유람에 대한 의식과 역사 유적지를 대하는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현곡은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좌천을 몇 차례 당하는 등 순탄치 않은 벼슬 생활을 이어가다가, 1613년(광해5)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폐고(廢錮,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음)를 당하고 만다. 이후 인목대비 폐출 논의가 시작되자 벼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1618년 2월 가솔을 이끌고 삶의 터전을 다시 남원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 현곡은 남원의 주포면 성촌(省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양경우의 ‘서만(西灣) 조지세를 그리며’(지세는 조위한의 자)라는 시의 제목으로 보아, 성촌은 지금의 주생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서만마을’임을 알 수 있다.

현곡은 남원으로 거처를 옮긴 지 불과 두 달 만에 지리산 유람을 나섰다. 마침 삼도토포사로 남원에 들른 그의 동생 조찬환과 함께 유람을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현곡은 지리산을 남다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심정은 그가 한양을 떠나며 지은 ‘차귀거래사’의

‘고향으로 돌아가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돌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중략) 고운(최치원)의 높은 기개 우러러보고, 깊고 그윽한 두류산을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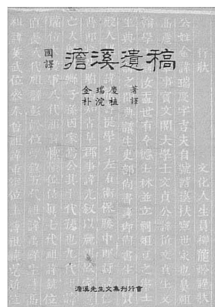
라는 내용에서 드러난다. 세상과 등지며 남원으로 돌아오게 된 데에는 지리산이 그의 마음 한 곳에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현곡은 5년 후인 1623년 인조반정 후에 다시 조정으로 불러 들어가 벼슬 생활을 이어가는데, 남원에 머물던 1621년에 군담소설, 피란소설로 잘 알려진 ‘최척전’을 집필했다. 이 글 내용 중 남원에 살던 최척의 가족이 정유재란을 맞아 지리산 연곡사로 피신하였다가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주인공 최척이 섬진강을 배회하며 가족을 찾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서경의 ‘송사상유변산서(宋士祥遊邊山序)’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실학의 거장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의 제자 담계 김서경(澹溪 金瑞慶, 1648~1681)은 1648년 부안군 상서면 동림리 태생이다. 본관이 부안인 그는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한 재사였다.

그는 어려서 사략(史略)을 읽었는데 반절을 읽고는 터득했다고 하며, 7세에 소학(小學)을 배우면서는 부모에 효도, 어른의 공경 등 모든 행실을 오직 소학에 따라 행하여 사람들은 소학 판본(板本)이라고 불렀다.



김서경의 담계유고

‘송송사상유변산서(送宋士祥遊邊山序)’는 1666년(현종 7)에 부안 출신으로 조선 후기의 문인인 김서경이 ‘변산으로 유람 가는 송사상(宋士祥)을 보내면서 지은 송서(送序)’의 글이다.

‘송송사상유변산서’는 그의 문집 『담계유고(澹溪遺稿)』 2권에 수록되어 있다. 김서경은 부안에 대대로 자리 잡고 사는 지주였으며,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1692년(숙종 20)에 창건된 동림서원(東林書院)에 초당(草堂) 김회신(金懷愼), 반계 유형원, 삼우당(三友堂) 유문원(柳文遠)과 함께 배향되었으나 서원은 훼손되었고 지금은 서원 터라는 뜻의 원 터 이름만 남아 있다.

‘송송사상유변산서’는 서(序)를 쓰게 된 이유, 변산의 주요 명소 소개, 맺음말로 이어지는 3단 구성이다.

1666년 병오년에 작자는 부안 월정암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송사상(宋士祥)이 찾아와 본인은 변산을 잘 모르니 말로 안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다. 이에 작자는 월정암을 기준으로 변산을 소개하고, 마지막

으로 아름다운 변산 유람을 송사상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이 글이 유람하는 이의 심심풀이로 삼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월정암에서 5리쯤에 우금암이 있는데 우금암의 남쪽에는 개암사가, 북쪽에는 묘암사가 있으며, 그 곁에는 옛 성이 있어 유람하는 사람이 많다. 서북쪽 산마루에는 상천암(上天庵)이 있다. 남쪽으로 4리쯤에 석재암이, 서쪽으로 백 보 거리에 왕재암이, 동쪽으로 백 보 거리에 어수대(御水臺)가 있다.

‘병오년(1666) 9월에 나는 월정암(月庵)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외갓집의 형뻘인 송사상이 먼 곳에서 찾아온 일여덟 명의 손님과 봉래산 경치를 구경하자고 약속하여, 떠나기에 앞서 나를 찾아와 부탁하였다.

“나는 산길이 험한 지 평탄한 지, 먼 지 가까운 지를 전혀 모르네. 어느 풍경이 좋고 어디가 중요한 지도 전혀 모르게 된 지가 오래이네. 지금 타향의 친한 벗들이 멀리서 찾아와 나더러 길을 인도하라고 하니, 내가 주인이면서도 무어라 할 말이 없네. 그대가 한마디 말로써 길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내가 대답했다.

“어찌 기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의 둘레가 백여 리나 되니, 두루 다 구경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쳐 갔던 길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상이 말했다.

“그게 좋지. 그게 좋아”

내가 설명했다.

“여기서 5리쯤 가면 우금암(禹金)이 있는데, 둘레가 900보 채 안되고, 높이는 20길에 넘습니다. 그 바위 속에 동굴이 있는데, 우금굴(禹金窟)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샘이 하나 있는데, 주액천(珠液泉)이라 합니다. 동쪽으로 100보쯤 가면 한 초가집이 있는데, 체석전(釋殿)이라 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몹시 가팔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금암 남쪽에는 개암사(開巖寺)가, 북쪽에는 묘암사(妙巖寺)가 자리하고 있다’

어수대 남쪽 70보 거리에 왕등암(王登庵)이 있는데, 신라왕 김부가 살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신라왕 김부(金傳)가 한때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고증하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수대에 올라가면 백리 긴 강이 도도히 바다로 흘러가고 만호의 여염집이 하나하나 땅에 흩어져 있으니, 천천히 거닐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가득 보이고, 눈을 돌려보면 넘치는 홍이 일어납니다. 양자(子)가 말한 “복된 땅은 음양(陰陽)에 부합된다”는 구절이 어찌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10여 리를 건다 보면 종소리가 구름 너머에서 은은히 들려오고 염불소리가 대나무 사이로 어렵듯이 들리니, 이곳이 바로 대소래사(大蘇寺)입니다. 그 터는 풍수지리에서 말한 바 ‘누워 있는 용의 형국입니다. 벽안(碧眼堂) 뒤에는 양안(兩眼)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승려가 머물지 않고 절이 황폐해져 그곳에 머물러 자기는 어렵습니다’

‘김부’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이름이다. 왕위를 고려 태조에게 넘겨준 뒤에 정승공에 봉해졌으며, 김부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산으로 십여 리를 가면 벽안당이 있고, 그 뒤에는 양안암이라는 암자가 있지만 절이 황폐하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50보쯤에 원효암(元曉庵)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우물이 있다. 서쪽으로는 층층 바위가 있고, 층층 바위 위에 현운각이라는 누각이 있다.

서쪽으로 3리쯤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며 푸른 소나무가 빼어난 곳이 마천대(摩天臺)이다. 이곳은 많은 유람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그 아름다운 경계가 널리 있어 모두 기록하기 어렵다. 마천대에서 동쪽으로 삼백 보쯤에 진표대(眞表臺)가 있지만 작자는 구경하지 못했고, 남쪽으로 이백 보쯤 내려오면 의상암 사찰이 있다.

다시 남쪽으로 이십 리쯤 거리에 붉은 기와가 층층이 일어나고 단청 누각이 골짜기에 찬란히 빛나는 곳에 실상사가 있다. 큰 사찰이라 스님이 많고, 수많은 손님이 찾아온다. 대웅전에 있는 옥으로 만든 찻그릇과 대웅전 벽에 천불 탕화 3폭, 영자전에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이 유명하다. 서쪽으로 4리쯤 거리에 용추[직소 폭포]가 있는데 작자는 가보지 못했다. 서쪽으로 5~6리를 석벽을 따라 올라가면 조도암(造道庵)이 있고, 서쪽으로 4리쯤 가면 소나무와 잣나무 속으로 은은히 보이는 월명암이 있는데 불경에 능통한 신여(信如)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월명암은 빙 둘러 봉래산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 산의 아름다운 경계가 모두 모여 있다. 서쪽으로 이백보를 올라가면 월정대가 있는데 ‘신선대’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실상사 남쪽에는 가련봉이 있고, 가련봉 앞에 취령대가 있으며, 취령대 남쪽에 벽송암, 상사자암, 하사자암 등과 내소사가 있다. 내소사는 산골짜기가 깨끗하고 나무숲이 해맑아서 가볼 만하다.

‘상사 남쪽에 가련봉(可憐峰)이 있고, 가련봉 앞에 취령대(鸞靈臺)가 있는데, 아름답고도 상쾌한 곳입니다. 취령대 남쪽에 벽송암(碧松庵)·상사자암(上獅子庵)·하사자암(獅子庵) 등과 내소사(寺)가 있는데, 골짜기가 깨끗하고 나무숲이 조출해서 유람객의 눈을 붙잡아 둘 만합니다. 산길이 순탄하고 가까우니 발길이 닿을 만하지만, 그 나머지 천층암(千層庵)·청연암(淸淵庵)이나 학암(鶴巖)·장암(壯巖) 등은 길이 굽고 산 또한 험해서 앞이 좁고 시야까지 막혔으니 그곳을 가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어찌 다리품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시냇가 바위벽이 붉고, 안개가 짙으면 계곡이 푸르며, 서리가 내리면 수많은 바위가 파리해지고, 눈이 날리면 수많은 골짜기가 하얗게 덮이는 것이 산속의 사계절 경치입니다. 해가 뜨면 차 끓이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름이 돌아가면 새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 산속의 아침과 저녁 경치입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경치가 날로 새로워지고, 아침이 가고 저녁이 오면 아름답

다운 경치가 끝이 없으니, 기괴한 봉우리와 빼어난 나무숲을 하나하나 들어서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큰 즐거리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면 한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백(李白洲)의 시에 이르기를

‘그늘진 골짜기에 천년 동안 햇빛 비치지 않고 층층 누대에는 유월인데도 찬 바람이네(陰壑千年無白日, 層臺六月有寒風).’

라고 하였습니다. 아아! 예전에 내가 갔을 적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우뚝 선 바위만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즐거워 돌아가기를 잊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국화가 예쁘게 단장하고 수많은 골짜기의 단풍잎이 일천 봉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기 알맞은 절입니다. 정말 알맞은 절입니다. 이번 여행이 좋은 기회지만 제 일에 얽매어 신선 친구들을 따라 놀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사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자네는 세속의 선비인데, 어찌 신선과 함께 놀 수 있겠는가?” 내가 말했다.

“세속의 선비가 먼저 놀았으니, 신선께서도 놀아보심이 어떠신지.”

백주는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호이다. 이조판서 이수광의 아들로 문장이 뛰어났으며,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를 역임했다.

‘陰壑千年無白日, 層臺六月有寒風’는 이민구의 칠언율시 ‘유영주구호(遊瀛洲口呼)’에 나오는 구절이다. ‘백주집’에는 ‘한풍(寒風)’이 ‘냉풍(冷風)’으로 되어 있다.

그는 스승 반계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하(晔)의 청에 의해 집필한 ‘반계선생에 올리는 제문’과 ‘반계 유선생 행장’이 오늘에 전하고 있다. 그는 제문에서, “아! 슬프고 슬프다. 모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훌륭한 거동과 법이 되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고, 덕스러운 음성을 길이 들을 수 없으니, 의심이 있으면 누구에게 여쭙 것이며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승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의 귀중한 유고는 후손들에 의해

2004년 4월 국역으로 출판되어 학계의 '반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예부터 천재는 요절한다고 했던가. 담계는 1681년 10월 18일,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지는 해가 서쪽에 잠기며 동쪽을 되비추니
강에 가득한 물결 빛이 한꺼번에 붉어지네.
인간 세상도 이때부터 황혼에 가까워지니
(중략) 그대와 함께 서서 큰 바다 바람을 맞네 어두움은 어디서 오고 밝음은 어
디로 가는지 뜬구름 같은 인생을 깨달으며 이 가운데 들어가네’

소승규(蘇昇奎. 1884~1908)의 ‘난곡유고(蘭谷遺稿)’에 실린 시다.

소승규와 친구들이 1897년 4월 16일부터 19일 동안 변산을 유람하
며 기록한 기행문에는 다양한 시들이 들어있다. 시에서 낙조는 그냥 해
떨어짐이 아니라 동쪽을 다시 비친다는 순환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인간
은 들어가면서 뜬구름이란 것도 깨닫는다. 소승규의 53세 때의 일이니
그때는 지긋한 나이로 농익은 인생사를 시에 담아 풀어냈다. 여기서 주
목되는 절창(絶唱)은 ‘그대와 함께 큰 바닷바람을 맞는다’는 대목이다.

‘거친 바람을 함께 맞는 그대 있음에 황혼도, 어둠도, 늙어감도 그저
두렵지 않은 깨달음의 과정이려니...’

작가는 기행문의 목적에 경치 감상과 문화유산 답사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만나 토론을 벌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게다가 유람하는 도중 시흥이 일어나면 일행들과 운자를 주고받
으며 지은 88편의 시문까지 기록하고 있어, 조선 시대 문인들의 기행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유봉래산일기’는 작가가 부안의 변산반도에 있는 명승고적 등을 유
람하면서 느끼고 겪은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선인들의 느낌과 풍
취를 회상하며 작가의 문학적 시선을 담아내었다. 기행 일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날인 4월 16부터 4월 19일까지는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상발마을에서 출발하여 변산의 개암사 입구까지 도보와 배를 이용하여 도착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개암사를 비롯하여 실상사, 직소폭포, 월정산, 채석강 등 명승지를 유람하며 기록하였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격포에 머물면서 주변 명승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기록하였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돌아오는 길에 지인과 인척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풀 속의 오솔길을 따라 한곳에 이르니, 숲속 어둡게 그늘진 곳에서 바람 소리가 성난 듯 들려왔다. 천 자 깎아지른 벼랑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 귀신이 대숲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절벽 위에 한 신당(神堂)이 있는데, 수성당(水聖堂)이라고 했다. 벽 위에 한 부인이 천연히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물귀신이 신당에 있는 것 같았다. 초연하면서도 슬프고 숙연하면서도 두려워, 떨려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난곡 일행이 격포진(格浦鎭)과 적벽강을 유람하며 수성당에 이른 날인 4월 23일, 그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고을 뒤의 주산(主山)이 특이하게 빼어나고 기세가 당당했으므로 그 산 이름을 물었더니, 상소산(上蘇山)이라 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百濟)를 정벌할 때 이곳 부풍(扶風)에 와서 이 산에 올랐으므로 이름을 상소산(土山)이라 했다고 한다. 옛사람의 유적을 느끼면서 산에 올라보니, 북쪽으로는 큰 바다와 통하고 서쪽으로는 군산(群山)과 닿았다. 만 가지 천 가지의 기이한 모습에 눈앞에 가득 있으니, 이 또한 부령(扶寧, 부안)의 일대 장관이다. 그래서 또 한 절구를 읊었다.’

‘소정방 장군이 어느 해 이 산에 올랐던가. 뜬 구름 흐르는 물이 조용하기만 하구나.
천년 지나간 자취를 물어볼 사람도 없어
고즈넉한 숲 사이로 새 소리만 한가롭구나’

참고문헌

- 이종근, 호남문화인문기행, 한국학호남진흥원, 2023
- 박지원 외, 한국산문선 7, 민음사, 2017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여행기, 2021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호남여행기, 2022
- 카르네프 뇌,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김정화 번역, 가야넷, 2003
- 포크, 대동여지도를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조법종 등 번역, 알파미디어, 2012
- 심춘독회, 쉽게 풀어 쓴 심춘순례, 신아출판사, 2014
- 이하곤, 남유록과 남향집, 이하곤 번역, 이화문화출판사, 2003
- 강세황, 강세황 산문 전집, 박동욱 등 역주, 소명출판, 2008
- 김승우, 옛 문학에서 발견한 전북 문화 풍경, 태학사, 2020
- 유몽인 등,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허경진 등 번역, 돌베개, 2016
- 소승규 등, 봉래산일기, 번역 허경진, 부안문화원, 2007
- 익산시, 유금마성기, 번역 이의강 등, 2021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개성유람기, 혜안, 2021
- 이민희, 근대의 금강산과 강원도 그 기록의 지평, 소명출판, 2022
- 김승우, 19세기 풍패지향의 풍경, 한국언어문학 제108집, 2017
- 정훈, 전주8경시 형성 과정 및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85집, 2011
- 노재현 등, 전주팔경의 시원과 변용,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5
- 유정열, 임훈의 등덕유산 향적봉기 연구, 2021년
- 디지털하동문화대전, 디지털남원문화대전, 디지털부안문화대전, 디지털익산대전 등
-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부안독립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3

전라감영과 전북 ‘와유(臥游)’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편저자 이종근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86-2 (94910)

979-11-90608-28-2 (세트)

예나 지금이나 산수화와 유람기에는 ‘와유(臥遊)’라는 제목을 쓴 것이 적지 않다. 처음 이를 접한 사람들은 ‘누워서 노닌다’는 뜻을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에는 그럴만한 함축적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라는 기행문을 비롯, 유몽인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등 전라감영을 찾은 선비, 미국인, 소련인, 일본인 등을 소개하는 책자다. 강흔의 ‘부안 격포행궁기’와 ‘하설루기’는 아직 한문 번역이 전혀 안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한다. 전라감영을 찾은 프크와 카르네프, 이하곤 등이 있어 제목에 이를 달았다.

4부 각 부마다 시대는 고려때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지역은 전주로부터 시작해 익산, 남원, 고창, 부안 등을 둘러본다. 옛 사람의 글을 통해 갈 수 없는 아름다운 땅뿐만 아니라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사라져버린 산과 물까지 함께 즐겨 보는 건 어떠한가? ‘와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현대에도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북을 소재로 한 ‘와유(臥遊)’ 책자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9

791190608862

94910

값 15,000원

ISBN 979-11-90608-86-2

ISBN 979-11-90608-28-2 (세트)